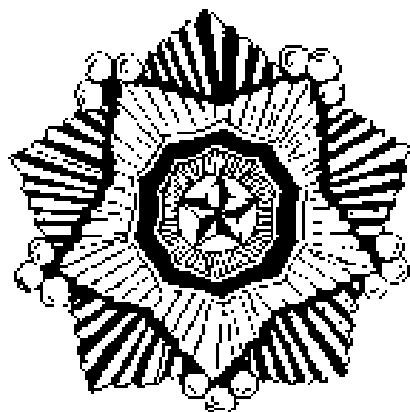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9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9호

(루계 제 695 호)

## 차 례

나의 선군조국 .....	3
천벌받은 왜 《천황》 .....	4
백두산호위장군 김정숙동지 .....	6
때가 흐른다 .....	7
빛나는 조국, 슬기로운 인민의 노래 .....	19
《조선아 너를 빛내리》 .....	20
제 1의 생명 .....	21
만경대에서의 뜻깊은 하루 .....	31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32
구룡연길목에서 .....	32
광선사진관앞에서 .....	33
어머님의 한생 .....	33
주체문학의 대강 .....	34
위대한 령도자 <b>김정일</b> 동지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선군문학	34
한 녀인에 대한 추억 .....	39
조국찬가에 바쳐진 진실한 시형상 .....	48

심장에 새겨진 모습 .....	52
심장을 바치라 .....	53
어머니당은 부른다 .....	53
푸른 들에 10 월이 설레인다.....	54
그대 위한 내 사랑 .....	55
병사의 손.....	57
백두산정에서 .....	58
어머니의 소원 .....	58
우리 동네 .....	59
눈물의 노래 .....	60
참된 생활의 교과서 .....	61
비전향장기수-나의 어제와 오늘 .....	62
사랑에 대한 생각 .....	64
산 인간으로 안겨오는 진실한 형상.....	68
집을 노래하련다 .....	71
내 조국.....	73
물에 대한 생각 .....	74
내 사랑 내 고향아 .....	75
선군치녀 .....	76
인생과 조국 .....	77
남녘에 보내는 사계절편지.....	78
백년숙적 .....	79
에스빠냐문예부흥기의 대표적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80

# 나의 선군조국

문동식

하늘은 가없이 맑게 열리고  
어데 가나 산천은 푸르려 설레여라  
바라볼수록 내 마음 긍지로 부푸는  
나의 선군조국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여

온 나라 어데 가나  
활력과 락관에 밝게 웃는 조국이여  
우리 장군님 전선에서 전선으로  
끝없이 이어가신 그 자욱우에  
이 땅의 천만갈래 길들이 뻗었구나

천출명장의 슬기와 지략으로  
산도 들도 흐르는 시내물도  
저리히도 푸르고 청신한 나의 조국  
그이의 은혜로운 해빛이 어리어  
저리도 눈부시는 희망찬 창문들

세찬 광풍이 불어올수록  
이름모를 한포기 풀이라도  
더 소중히 마음속에 안으시는 장군님  
멀고도 먼 깊은 산촌에도  
선경을 펼쳐주신 그이의 숨결로  
후더운 이 땅 꽃피는 강산이여

이 땅에 뿌리내리고 숨쉬는 모든것에  
그이의 담력이 깃들어있어  
그 어떤 격랑에도 끄떡없어라  
어데 가나 그이의 밝으신 미소  
인민의 행복한 웃음으로 피어나  
천만군민은 더 복된 미래어로  
비약의 억센 날개 한껏 펼쳤나니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  
태양의 그 빛으로  
온 누리에 빛나는 나의 선군조국이여  
그대보다 더 정의롭고  
그대보다 더 강대하고  
그대보다 더 자유롭고 존엄높은  
그런 나라 이 세상 어데 또 있으랴

그대는  
천만대적을 발밑에 눌러딘고  
무적을 펼쳐가는 사회주의성새  
그대는 만민의 매혹과 경탄속에 높이 솟아  
세계에 빛을 뿜는 자주적 등대  
수수만년 갈망하던 인류의 이상이  
봄날처럼 화창하게 솟아 빛나는  
믿음과 사랑 인덕의 별세상

그대 품에 태어나  
그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나는 행복한 그대의 아들  
나의 온몸엔  
그대의 불굴의 넋과 멸적의 용맹이 차넘쳐  
나는 영원히  
승리자의 환호성만 목청껏 터쳐가려니

오, 바치리라  
그대의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위업에  
나는 내 삶을 헌헌히 다 바쳐  
그대만을 길이 빛내여가리라  
우리 장군님의 백승의 기상안고  
룡성번영하는 나의 선군조국이여

## 천벌받은 왜 《천황》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며 신출귀몰의 전법으로 왜놈들을 죽치시자 조선 땅은 물론 장백땅과 멀리 섬나라(일본)까지 그 명성이 퍼져나갔다.

농군들은 밭머리에서, 로동자들은 일터에서, 징용터에서 지어는 왜놈들에게 《학도병》으로 끌려간 병영에서도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대장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면 그놈은 영악없이 죽고만다.

길을 가면 길을 가다 죽게 하시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가 죽게 하시고 잠을 자면 잠자리에다 피를 쏟고 죽게 하신다.》

《어제는 관동군의 한 대장놈이 비밀지하실에서 덜컥 숨졌는데 대장수님의 천벌을 맞아 튼졌다드라. 그놈은 천벌을 피하려고 제집밑에 지하실을 파놓고 머리말엔 꼭 총을 베고 자했는데 총끝에서 물이 슬슬 흐르고 목구멍에서 피가 출출나와서 뼈드라져 죽었다드라.》

그런데 이런 말의 뒤끝에는 항상 왜놈 《천황》에 대한 소리가 뒤따랐다. 그것인즉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아무날 아무시에 왜놈 《천황》이 죽으리라 예고하셨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곧 현해탄을 건너 구중궁궐 깊은 곳에 박혀있는 왜놈 《천황》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천황》놈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게거품을 들고 썩은 통나무처럼 쿵 하고 나자빠졌다. 그리고는련 이틀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갑자기 《천황》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료대신들은 저저마다 궁성으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었다.

온 하루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려니 허리가 끊어지는것 같고 목이 뻣뻣해왔다.

그러나 누구 하나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마치도 무릎꿇림경기에 나온것처럼 돌조각인듯 버티고있었다.

그러면서 남몰래 품어보는 생각들은 《천황》이 정말로 백두산대장수님의 천벌을 받아 숨을 거둔것이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보다는 이제라도 《천황》이 벌떡 깨어나 자기를 룡군대신으로 임명하여 백두산으로 보내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였다.

아닌게 아니라 조정에는 여러해째 룡군대신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나라에는 하루라도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비어서는 안되는 법인데 모두 그

자리에만은 기를 쓰고 안앉겠다는 것이였다.

(하루빨리 이 천황을 보위할 룡군대신을 골라야 한다.)

그리하여 이틀만에 정신을 차린 《천황》놈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을 궁성에 불러들었다.

그러나 들어서는 놈들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였는지 아니면 병신흉내를 내는지 백두산대장수의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하곤 하였다.

《천황》놈은 대신들의 그러한 행동에 화가 나서 또다시 천둥같이 소리를 질러댔다.

《이 밥병신같은 놈들아. 그래, 이 천황폐하가 백두산대장수로부터 천벌을 받게 되었는데 네놈들은 한몫 나서서 싸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멀뚱멀뚱해서 뻔히 쳐다만 보고있느냐? 이 천하에 고약한 놈들같으니라구야. 보기 싫다! 썩 사라지지도 못할가.》

이리하여 궁성에 들어갔던 막료대신들은 우르르 밀려나갔다.

물론 궁성에서 쫓겨나오는 길로 벼슬감투들은 다 빼앗겨버렸다.

다음날부터 권력을 차지하려는 놈들이 궁성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자리는 다 람을 내며 머리를 조아리지만 룡군대신이 되게 해달라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룡군대신이 되면 《천황》놈의 불같은 독촉을 받고 백두산대장수와 싸우러 조선으로 건너가야겠는데 그것은 대신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여벌로 하나쯤 더 주며 가라고 해도 질색할 노릇이였다.

《그래, 이 조정에는 룡군대신이 되여 천황을 받들어줄 충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나?》

《천황》놈이 들어오는 놈마다 한놈한놈 눈자국이 날만큼 쏘아보았으나 선뜻 《예-》 하고 일어서는자가 없었다.

《정말 아무도 없느냐?》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여전히 귀온 보리 짝들처럼 모두 등신같이 앉아있었다.

《좋다. 네놈들도 썩 나가라!》

《천황》놈은 대신들을 잡아먹을듯이 승냥이처럼 으르렁댔다.

그런데 며칠후 궁성앞에 40대초반의 한 장교가 나타나 《천황폐하》께 청을 드릴게 있어 왔다는

것이였다.

《그래, 청이 뭐라더냐?》

《천황》놈은 시답지 않게 물었다.

그런데 시종무관의 말이 대문가에 서있는 장교가 자기를 룡군대신으로 임명하면 《천황폐하》를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청원서를 드리러왔다는 것이였다.

《뭐? 룡군대신을 시켜달라구. 어서,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이윽고 그 장교가 들어왔다. 그러자 《천황》놈은 죽은 제 애비라도 만난듯 벌떡 일어나앉았다.

《경이 스스로 룡군대신이 되기를 자청하였는가?》

《하!》

보매 얼뜨기나 비겁쟁이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이런 햇병아리가 누구나다 마다하는 룡군대신자리를 스스로 넘겨다보며 불나비처럼 날아들었는가? 단순히 권력욕때문인가 아니면 백두산대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들은것인가?

아무튼 그런것들은 상관 없었다.

모두가 자라목처럼 움츠리면서 외면하는 룡군대신자리를 스스로 자청해나선자가 생겼다는 것이 기쁘기 그지없었다.

이리하여 그 사나이가 궁성을 나설 때에는 벌써 그의 어깨우에 룡군대신의 금패견장을 엮어주었고 《천황》이 제손으로 직접 《어주》까지 부여준 것이였다.

《이제 백두산대장수의 천벌을 피하게 되는가부다.》

이날 《천황》은 룡군대신을 임명한 것이 너무도 좋아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여러번 굴리었다.

이어 신임 룡군대신이 대병력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건너갔고 백두산일대에 당도했다는 전보문이 속속 도착하였다.

《황궁이 내도산일대를 수색》

《백두산지구 완전봉쇄》

《백두산대장수의 거처지를 런던 찾고있음》

《천황》놈은 매일같이 책상우에 수북이 쌓이는 전보용지들을 읽어보며 언제면 룡군대신이 백두산대장수와 싸워 이겼다는 소식이 날아오겠는가를 애타게 기다렸다.

(백두산대장수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내 목숨은 끝장이다!)

《천황》은 요즘 웬일인지 잠자리에 들면 이상한 꿈이 나타났고 식은 땀이 등골로 흐르는 악몽이 계속되였다.

그런 밤마다 시종들에게 룡군대신의 《승전보고》가 왔느냐고 물었다.

그러던 어느날 《천황》은 잠간 낮잠에 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였다.

생시인지 꿈인지 알수 없으나 자기가 여름휴양차로 조선의 백두산에 가있는 것이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는가.

자기는 늘 여름휴양은 어느 온천이나 부사산에서 지내곤 하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백두산으로 오게 되었는가.

《게 누구 없느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머리를 내미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이놈들, 천황폐하를 혼자 두고 다들 어디로 갔단 말이나?》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사방을 휘돌러보아도 좌우수림은 눈에 덮여 태고연할뿐 새소리,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조선땅은 이미 오래전에 일본에 《합병》되어 이 산도 분명 《천황》의 땅일텐데 신하도 궁녀들도 없이 홀로 이 백두산에 제물이 와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명 지금의 제물은 백두산아래 와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풀수 없는 의문들이 련속 꼬리를 무는 속에 편뚱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 여긴 백두산대장수가 계시는 곳이 아닌가.

그렇지, 생각난다. 그러니 내가 백두산대장수의 천벌을 받기 위해 잡혀온 모양이다.)

그리고보니 어쩌서 자기 몸이 이 백두산에 와있는지가 짐작되였다.

아, 내 꼴이야!

백두산대장수와 싸우라고 백만관동군과 경찰대, 위만군까지 다 내주었는데 그 알량한 룡군대신놈은 어디로 가고 애매한 내가 그놈대신 이곳에 붙잡혀왔는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억울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 갑자기 백두산에서 천지조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천황》이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지동치듯 바람이 불고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하늘땅이 뒤집힌듯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부짖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자연의 광란을 피하려 해도 어찌된 일인지 도저히 몸을 움직여낼수가 없었다.

《아이쿠. 내가 정말 천벌을 받았구나!》

《천황》은 요즘 이런 꿈을 하루에도 두세번씩

꾸고있었다.

어떤 때는 잠자리에 들면 어제의 꿈이 련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천황》은 룡군대신더러 빨리 《승전보고》를 올려보내라고 독촉을 하곤 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사로잡고 씹죽이고 불태워죽였다는 룡군대신의 《전과》와는 달리 백두산장수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며 도처에서 《황군》을 무찌르고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제는 자기의 운명을 룡군대신에게 맡길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밥통! 머저리! 그 룡군대신인지 뭔지 하는 놈을 당장 파직시키라!》

생각같아서는 당장 이런 말을 하고싶었으나 그나마 그런 놈도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뒤두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제 백두산대장수의 천벌을 피할수 없단 말인가.

도대체 천벌의 그날은 언제인가?》

그때부터 《천황》놈은 아예 바깥출입을 금하고 궁성안은 물론 궁성밖을 철통같이 대부대로 에워싸게 하였다.

하루하루가 불안속에 흘러가던 어느날이었다.

하루는 궁성대문에 놓인 우편통에 이상한 편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시종이 열른 그것을 《천황》에게 가져갔다.

《그래, 무슨 편지냐?》

시종은 눈알을 데룩거리며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폐하, 하도 이상한 편지여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소이다.》

《그게 뭘데 그러느냐?》

시종이 편지를 펼쳐들었다.

《폐하, 이안에 글은 한자도 써여있지 않고 무슨 그림이 그려져있는데 소가 스무마리이고 새가 세쌍 그려져있사옵니다.》

《천황》도 시종의 말에 대꾸가 없었다.

《허... 짐도 쉬이 알수 없는 그림이로구나. 어째서 하필이면 이 짐이 있는 궁성으로 이런 그림을 넣어보냈겠느냐. 필유 곡절이 있을테니 나라안의 무당,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들여 풀이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온 일본땅의 무당, 점쟁이들이 인력거에 실려 궁성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루낮동안을 점괘를 흔들던 한 판수무당이 산통을 내려놓으며 하는 말이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옵니다. 이 그림은 어느 기인이 앞날을 예언하여 그린것인데 이걸 풀이하면 소화 20년에 새 세상이 온다는 뜻이옵니다.》

《뭐라구?》

《천황》은 판수무당의 말을 듣자마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분명 백두산대장수임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이놈들아, 그건... 그건 백두산대장수가 나에게 내릴 천벌날자다.》

《천황》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기절해버렸다.

아닌게 아니라 소화 20년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왜놈을 치고 조국해방을 가져오신 1945년이니 일본 《천황》에게는 천벌이 내린 날자가 틀림없었다.

김종석

## 가사

### 백두산호위장군 김정숙동지

소백수물결우에 이 마음 실으면  
뜨겁게 안겨오네 항일의 녀전사  
사령부 창문가 불빛을 지키시여  
긴긴밤 지새우던 친위전사 그 모습  
아 백두산호위장군 김정숙동지  
충성의 해발 되여 영원히 빛나라

밀림의 이깔숲에 이 마음 세우면  
귀전에 들려오네 결전장의 총소리  
사령부 보위하는 방패가 되시여

불멸의 위훈세운 녀장군의 그 모습  
아 백두산호위장군 김정숙동지  
충성의 해발 되여 영원히 빛나라

전선길 야전차에 이 마음 따라서면  
심장을 불태우네 어머님의 그 당부  
수령의 안녕속에 조국이 빛나고  
인민의 행복도 미래도 있어라  
아 백두산호위장군 김정숙동지  
충성의 해발 되여 영원히 빛나라

김희남



박두일

어수선한 시장안을 한고패 돌았으나 숲은 빛갈도 볼수 없었다.

이른아침 배고개와 소의문박에 모여들었던 장군들이 한낮이 되면 종로로 흘러든다고 하지만 이 란리통에 그럴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풍성하던 동대문박의 냄새나 칠패의 생선장사군 하나 눈에 띄우지 않았다. 그래도 최림은 행여나 하고 돈화문의 신문고가 바라보이는 종로가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향방없이 가는 걸음이다.

어디서든 숲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서긴 하였으나 예순나이에 이르기까지 대학교단에서 읽은 최림은 시장이라고 별로 다녀본 곳이 없었다.

서울은 예로부터 뽕나무가 각박한 고장이다.

태백산에서 나무집들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시내에서 뽕나무는 아무리 험준한 잡관목이라고 하더라도 한때 이름높던 해주의 유매먹이나 위원의 자석버루 못지 않게 시세가 좋았다.

더우기 지난달에 전쟁까지 터져 북으로 《진군》한다던 《국군》이 3일만에 서울에서 쫓겨나면서 아비규환을 이룬 시내에는 피난민까지 겹쳐들어 숲은 고사하고 청계천가의 마른 개버들가지 하나 얼어쓰기 어려웠다.

한가닥 쓸쓸한 바람이 전쟁의 복새통에는 아랑곳없이 6미터높이의 성벽을 두르고 한가로이 잡초만 자래우며 고적을 자아내는 궁성 옛터를 지나며 최림의 백발을 흐트러놓았다.

최림은 한낮이 기울어서야 《만병회춘》이라는 약방 광고가 나붙은 옛 친구의 집에서 숲 한짐을 얻어지고 길거리에 나섰다.

하늘중천에서는 달아오른 태양이 바둑판처럼 생긴 시내를 뜨거운 열로 무섭게 내려지지고있었다.

잎이 후줄근해진 가로수아지에 더위를 피해 앓은 참새 한마리가 부리를 딱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별속을 걸어가는 최림이를 이상하다는듯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바라보고있었다.

최림은 머리 한번 드는 일이 없이 스적스적 발걸음을 옮기었다.

가로세로 줄줄이 건너간 보도블록의 이음짚들이 눈앞에 어룡거리며 눈물이 얼룩진 안해의 가공한 모습이 눈에 삼삼 밝혀와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한생을 애오라지 남편 하나만을 위해주며 살아온 안해, 나라없던 그 세월 최림이가 철창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장집물은 다 버리면서도 책만은 고이 간수해준 안해였다. 그런 안해가 책을 태워 때식을 굶다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다.

최림은 오래전부터 안해가 동네아낙네들과 함께 멀리 마포까지 나가 주어오는 젖은 나무로 끼니를 지어먹고 살아왔다.

나이들어 아들 하나 보긴 하였으나 그 아들도 철이 들면서부터 사상가행세를 하다나니 나무 몇 짐 쳐보지 못하고 자주 류치장신세를 졌다.

최림의 안해 리씨는 평생 강변에서 주어들이 나무를 지붕우에 널어놓아 말리워두었다가 쓰군 하였는데 그나마도 넉넉하지 못하여 날씨가 조금이라도 흐린 날이면 말린 나무가 없어 눈물범벅이를 해가며 죽발을 짓군 하였다.

어제도 찌뿌둥한 날씨를 두고 근심하는 안해의 정상을 보며 최림은 측은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



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 안해가 책을 뜯어 불을 때고있지 않는가.

최림은 아연실색하여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하고 발만 굴러댔다.

그러나 리씨는 조금도 주눅이 든 기색이 없이 대노한 령감의 손목을 푸쩍종게 잡아끌며 헛간안으로 들어갔다.

《보시우. 강가에 내버려진 책들을 주어다놓은 거웨다.》

안해는 마치 허청간에서 쥐굴을 들춰놓았을 때처럼 기세가 등등하였다.

아마 령감이 제살처럼 여기는 력사서적이 아니라는 일종의 위안때문인지도 모른다.

최림은 알지 못할 수학공식들과 잡다한 기계도면들이 가득 실린 출판물들을 한동안 멍청해진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침이 느즈막하여 최림은 조반상을 들고온 안해가 무릎을 꿇고앉아 종지발 뚜껑에 약주를 치는것을 보고서야 오늘이 바로 자기의 태줄 끊어진 날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소박하나마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이었다.

이제는 몇십년을 두고 거친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날만은 한가닥 즐거움이 있었다.

친지들이 찾아오고 마을사람들과 제자들이 가늘게 사는 인생이나마 나무람없이 축복해주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괴롭고 서글프기만 하였다.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이르기를 농사군이 굶어 죽어도 씨앗머리는 베고 죽는다고 하였는데 명색이 학자라고 하는 이놈은 책을 태워 명줄을 잇게 했은즉 내 신세도 다 녹아내린 초불이네그려... 임자도 보았겠지만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민족의 재부일진대 남들이 버렸다고 우리까지 그런다면 이 나라에 남을게 무엇인가.

왜놈이 빼앗아가고 전쟁이 불태우고 때식 한끼 차리면서까지 책을 태워야 하니 차라리 사느니 보다 죽는것이 나을상싶네. 이 몸이 없고보면 이 땅에 책 한권이라도 남을게 아닌가.》

최림은 조반상에서 눈길을 떼고 꺼져내린 어께로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그러지 않아도 심상치 않은 령감의 기상에 잔뜩 가슴을 조이던 리씨는 더는 지탱할 기운이 없었던지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여윈 두어깨를 가냘프게 떨었다.

《망녕이 들었소이다... 망녕이... 내 령감성미를 알고있으면서도 사자밥 차리는줄은 모르고...》

리씨는 마디굵은 손으로 최림의 바지가렁이를 부여잡았다.

긋은일 마른일에 못이 박히고 거칠대로 거칠어진 안해의 손이 발목에 감겨들자 최림의 눈가에 뿌연 물기가 번쩍이었다.

가락지 한번 끼워준 일이 있을뿐인데 이날 여직껏 기쁨 한번 주는 일없이 그 손에 떠받들려 살아온 자신이였다.

이 집의 처마밑에 들어온 첫날부터 안해는 남자손 한번 바라는 일없이 못칠 일이 있으면 스스로 망치를 들고 나섰고 짐 옮길 일이 있으면 제 어깨를 먼저 들이밀었다.

삿바느질과 삿빨래에 손이 트고 찬바람 눈서리에 부대껴 살갓마져 거칠어진 안해, 남편의 고충을 스스로없이 절반 갈라 이고 인생의 갈래많은 오솔길을 말없이 걸어온 안해였다. 그런데 그 안해에게 한생의 짐을 다 없어주고난 오늘에 와서까지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오죽했으면 시집올 때 입고온 첫날옷까지 전당포에 넘기면서 령감의 책을 사오던 안해가 그런짓을 했겠는가.

최림은 안해를 이해해주고싶었다. 아니, 한생을 두고 가장노릇을 하지 못한 자신을 말년에 이르러 빌고싶었다.

오늘만이라도 안해를 기쁘게 해주자. 그래서 한생을 두고 마르고 탄 가슴에 한방울의 즙이라도 부어주자.

하어 최림은 백발에 이르러 처음으로 가정사일로 뜰밖을 나섰던것이다.

생각할수록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최림은 처저내리는 숫마대를 몇번 휘둘리고 나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였다.

깨진 벽돌장들과 종이조각들로 거리는 온통 너저분하였다.

답답하고 메마른 한오리의 바람이 매캐한 연기를 실어왔다.

길건너편에 있는 무너진 2층벽돌집에서 무엇인가 맹렬히 타번지며 검은 연기를 사방에 내뿜고 있으나 그속에서도 풀빛제복을 차려입은 젊은패들은 무엇이 그리좋은지 웃고 떠들며 명동광장쪽으로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어제 저녁 손주녀석이 하는 말이 오늘 명동광장에서 의용군탄원모임이 있다더니 아마 시내의 젊은측들은 다 그리로 가는 모양이었다.

최림은 불쑥 아들 영수생각이 났다

몸쉴 바람이 지독하게 풍기는 냄새를 또다시 실어왔다.

최림은 이마를 찡그리며 걸음을 다그치는데 돌부리가 발끝에 걸리며 몸은 어쩔사이없이 균형을 잃고 허공에 내던져졌다.

마대안의 숫덩이들이 사방으로 뿌리쳐지고 눈

앞의 안경은 포석우에 떨어져 조각이 났다.

최림은 길바닥에 쓰러진채 한동안 일어설념을 하지 못했다. 무릎이 저리고 몹시 아파났다.

마침 패속으로 달리던 풍친 차 한대가 최림의 곁에 이르러 급정거를 하며 멈추어섰다.

머리를 드니 차에서 낫선 군복차림을 한 사람들이 내려서는것이 보였다.

최림은 인민군대라는 생각과 함께 일종의 공포심이 상처의 아픔을 잊게 했다.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

《널려진 솜을 모으시오. 가만, 로인부터 부추겨 차에 태웁시다. 조심... 조심히...》

낫선 사람들은 널려진 솜까지 깨끗이 모아 차에 실어주었다.

최림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고맙기는 하였으나 마음속에 갈마드는 알지 못할 경계심으로 하여 한동안 덤덤히 앉아 그들의 일손만 지켜보았다.

원래 군대는 정치와는 달리 무지막지한데가 있다. 세계전쟁사가 다 그러하듯이 교전상태에 있는 군대치고 횡포무도하지 않은 군대란 있어본적이 없었다. 하물며 제나라 군대라고 하던 《국군》들까지 다 굶어가지고 달아나는판인데 인민군대라고 곱살긋을리 있겠는가. 새로 조직된 서울시 인민위원회에서는 농군들에게 땅을 나누어준다지만 이들은 어디까지 총대를 쥐고있는 군대인것이다. ...군대에게 자비심이 있다니 ...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고있지 않는가.

혹시 늙은이라고 동정하는가? 아니면 백성들에게서 무슨 환심이라도 사자고 하는것인가? 아니, 아니다. 허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실하고 동정이라고 하기에는 말마디들에 사심없는 진정이 깔려있지 않는가...가만 깨진 안경알은 왜 주어모을가?

문득 최림은 서울에 인민군대가 들어오던 날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던 아들이 돌아와 하던 이야기가 생각키웠다.

그때 아들은 인민군대가 폭격에 불타는 리왕직 도서관에서 다 타버릴 운명에 처한 문화재들을 모두 구원했다고 하였다.

그날 나 어린 전사가 기총탄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 전사는 상처를 처치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무일없으니 빨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들을 안전한 곳에 옮겨놔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것이다.

확실히 인민군대는 《국군》들과는 다른 사람들

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모두를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키운 전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은것 같았다.

얼어붙었던 최림의 가슴은 점차 녹아내리기 시작하였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최림은 눈길을 들고 바라보았다.

후리후리한 키, 림름한 체구, 안경이 없는 눈앞은 설핀 안개속 같았으나 그이의 안광에 비낀 미소는 오래동안 쌓인 묵은 잎을 들치고 새싹을 움트게 하는 햇빛과도 같이 따사로웠다.

최림은 버릇처럼 눈가에 손을 가져갔으나 코등에는 안경자리만이 허물처럼 남아있었다.

《운전사동무, 우리는 여기서 내려 <중앙청>에서 일하는 로동자동무들을 만나보겠으니 동무는 먼저 로인을 집까지 모셔다드리오.》

차는 인츰 떠났다.

최림은 미처 인사말 한마디 변변히 올리지 못한것이 죄스러워 황황히 시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그분의 모습은 이미 사람들속에 묻히여 보이지 않았다.

×

해방지역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나오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내의 처참상이 그대로 어려있는 청계천가에 이르시여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쓰러질것 같은 마을, 계딱지같이 들어앉은 형형색색의 오막살이들은 원색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녹슨 양철판들과 가마니, 판자조각들로 무어져 무섭게 내려쬰이는 7월의 열과속에서 무우오가리처럼 말려들고있었다. 하루해도 그이께 이런 모습밖에 보여드릴수 없는것이 부끄러워서인지 별절게 단얼굴을 인왕산너머에 슬그머니 감추고있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해방의 생기가 떠돌고있다.

판자집들이 울망줄망한 골목길에서는 지금 마을조무래기들의 숨박꼭질이 한창이었다.

꽁꽁 숨어라 머리칼이 보인다

...

갑자기 아이 하나가 쏜살같이 **김일성** 동지께로 달려왔다.

《범이 와요. 좀 숨겨주세요.》

아이는 숨이 턱에 닿아 혈떡이면서도 뒤길쪽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이의 어둡던 안색에 한가닥 밝은 빛이 어리

였다.

《그래, 그래. 숨겨주지. 네 이름이 뭐냐?》

《창민이...》

《몇살이지?》

《아홉살.》

《그럼 학교에 다니겠구나.》

《...》

총각애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그이의 품속을 파고들었다.

《학교에는 왜 다니지 않냐?》

《학교가 없어요. 미국놈들이 우리 학교를 빼앗고 선생님을 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침통하신 안색으로 창민이를 꼭 끌어안으시고 터갈라진 사내애의 손등을 아프신 마음으로 조심히 쓸어주시었다.

엄지손가락에 난 상처자리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그이의 손길이 미칠 때마다 간지럽다고 손가락을 움지락거리며 캐득거리며 웃었다.

《허, 그러다 범에게 붙잡히겠다.》

그이의 말쑥에 겁이 났는지 창민은 숨을 딱 멈추고 고개를 까투리처럼 품안에 깊이 틀어박았다.

아닌게아니라 골목어구에 솟검댕이로 코수염까지 그려붙인 아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그이결을 지나 방쪽쪽으로 걸어갔다.

**김일성** 동지께서 미소를 머금으시고 창민에게 범이 갔다고 귀속말로 속삭이시자 죽은듯이 까딱하지 않고있던 총각애가 튕겨난 고무공처럼 뛰쳐나갔다.

《만세! 우리 편이 이겼다!》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의 와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똥이네가 졌으니 나무를 주어라. 우리는 인민군대아저씨들한테 놀러 간다!》

《야!》

한패거리 아이들이 방축길을 따라 새무리처럼 통거나 달려가고 어깨가 처진 여러명의 아이들은 서로 입을 삐죽거리며 청계천가로 널려진 나무가지들을 주으며 내려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이 나무가지를 주어모으는 모습을 처량한 안색으로 바라보시었다.

《여로부터 <남주북병>이라고 서울 남산밑에서는 술을 잘 빚고 북촌에는 맛좋은 떡이 많다고 하여 성구까지 생겼지만 빈민들만 사는 여기 청계천가에서는 가난한 인민들이 밥지을 나무가 없어 어린 아이들까지 생활부담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빨리 학교문을 열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서울시위수경무부에 이야기하여 의용군에 탄원한 교원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동행한 일꾼들은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 운전사의 안내를 받으며 최림의 집을 찾으신것은 마을에 밥짓는 연기가 자욱한 저녁무렵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솟집을 지고 거리에 넘어졌던 로인이 서울대학교 교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시내 교육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 최림의 집을 찾으신것이였다.

그이께서 마당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마주 나오던 리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 다시 방문을 열고 벽에 모신 초상화를 한동안 우려드니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여보,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소!》

리씨의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옷방 미닫이문이 활짝 열리며 마루우에 최림의 꺼꺼부정한 모습이 나타났다.

《장군님!》

최림은 엎어지듯 퇴마루에서 뛰쳐내리며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미처 장군님을 알아뵈지 못한 이 늙은이를 용서하십시오.》

《교수선생, 이리저 마십시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최림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 일으켜주고나시여 허물없이 마루에 앉으시었다.

몽당내가 나는 방안에는 색이 누렇게 바랜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집안 살림살이형편을 둘러보시며 문가 가까이 놓여있는 한문본으로 된 책을 집어드시었다.

《<동국세시기>라... 나도 어렸을 때 <조선광문회>간행본인 이 책을 여러번 보았는데 우리 인민들의 유구한 민족적풍속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된 좋은 책입니다. 참, 운전사동무에게서 들으니 최선생이 이 란리속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안을 쓰고계신다던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계십니다. 그래 교수안집필이 잘 됩니까?》

최림은 주뭇거리며 말쑥드리었다.

《뭐 별로 아는것이 없으나니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인민의 반만년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르쳐주는 사업을 중단없이 하여야 합니다. 교수선생은 벌써 미제침략군이 짓밟으

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장한 일을 하고있습니다. 교수안이 다 되면 나에게도 보여 주십시오.》

최림은 뜻밖에 장군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받게 되자 무안하여 얼굴을 붉히며 애꿎은 코잔등만 쓸어보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초점이 흐려진 최림의 얼굴을 측근한 눈길로 보시며 부관이 가져다놓은 작은 갑에서 안경을 꺼내드시었다.

《우리 동무들이 갑자기 마련했는데 교수선생의 눈에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번 써보십시오.》

최림은 어리둥절하여 한동안 놀라운 눈길로 **김일성** 동지를 우러렸다.

부관이 그러한 최림의 의문을 풀어주려는듯 한 발 나서며 장군님의 손에서 안경을 정히 받아 최림의 손에 쥐여주었다.

《장군님 말씀대로 깨어진 안경알을 가지고 안경방에 갔더니 안경방 주인이 제격 이 안경이 맞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불그스레해진 최림의 눈귀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걱정에 잠겨 안경속에서 눈정기를 빛내는 최림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다가 부엌문결에서서 두손을 모아 잡고있는 리씨에게 눈길을 돌리시었다.

《해방된 생활이 어떻습니까?》

리씨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 황송하여 허리를 조금 굽히며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지금 장군님의 은덕으로 농사꾼들이 땅까지 분여받고 너무 기뻐 온 남조선땅이 들쭉합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동문서답이긴 하지만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이빠진것을 손등으로 가리우느라 불편해하는 리씨를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이때 대문안으로 한줌이 되나마나한 삭정이를 둘러멘 총각아이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나 밥!》

당황해진 리씨가 손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창고 문결에 가더니 검불문은 애의 머리를 악의없이 쥐여박았다.

《이 녀석, 조용하지 못하겠냐?》

그제야 자기집에 손님들이 왔다는것을 눈치챈 아이는 **김일성** 동지에게로 눈길을 돌리었다.

순간 머루같은 눈이 반짝 빛나더니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반갑게 소리쳤다.

《야!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왔네.》

리씨는 그만 아연하여 하 벌어진 입을 가리울 녀도 못하고 섰다가 허둥지둥 손주녀석의 뒤를 쫓아와 엉덩판을 철썩 갈겼다.

《이 녀석아! 아저씨가 뭐냐!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하기로서니 나라님께 이런 번이 어디 있담. 쫓쫓... 어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냐?》

총각애는 할머니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한동안 **김일성** 동지와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오! 창민이로구나. 우리야 벌써 구면이지.》

그제야 창민은 벌쭉 웃으며 꾸벅 인사를 드렸다.

《그래, 오늘 인민군대아저씨들한테 가서 무엇을 했냐?》

그이께서는 창민을 닮은 들어 무릎우에 앉히시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시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쳐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김일성** 동지께서는 까만눈을 깜빡이며 청높이 대답한 창민의 귀염성스러운 두볼을 조용히 다독여주시었다.

《워낙 부모없이 자라다나니 버릇이 없어와서...》

리씨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변명하듯이 애꿎은 저고리고름끝만 매만지었다.

《애 부모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이의 걱정실린 물으심에 리씨는 아무런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 열른 눈가에 손을 가져갔다.

최림은 그러한 안해를 핀잔하듯 민망스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며 고르롭지 못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저... 며늘애는 애녀석을 낳고 병을 만나 시름시름 앓다가 해방전에 잘못되고 애아비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사상운동을 한다고 노상 떠돌아다녔는데 전쟁전에는 리승만단선반대투쟁에 나섰다가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이 해방되는 날 풀려나왔는데 또다시 놈들과 기어코 결산해야겠다며 집을 떠나 여직 소식도 없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늘진 안색으로 말없이 창민의 머리만 쓰다듬어주시었다.

창민은 그이의 심중에는 아랑곳없이 썸썸종계 앓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장난을 치고있었다.

《애아버지의 소식을 빨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제판에는 의용군에 나간다고 펄펄 뛰

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저 어미가 붙잡았지만  
위낙 고집이 하늘소발통 같아와서...》

최림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초지종 말씀드리려고 하였으나 도중에서 말끝을 삼켜버리고말았다.

창민은 아버지제에 대한 말이 시작되자 장난을 멈추고 천진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참견을 하였다.

《거짓부터, 의용군이 아니야! 울아버진 인민군대에 간댔어. 이제 미국놈들을 다 내쫓고 오겠다고 하면서 날보구 할머니를 도와 나무랑 해오라고 했는데 뭐, 씨.》

창민은 작은 가슴을 쑥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래, 창민이가 용쿠나.》

**김일성** 동지께서는 창민이를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장군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싸했습니다.》

《아니, 왜?》

《할머니가 책을 뜯어서 밥했다구요.》

최림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버릇없이 구는 손자에게 엄한 기색을 보이며 연방 헛기침을 했으나 창민이는 그것이 더 재미있는지 발간 허끝을 뽀족 내밀며 캐드득거리었다.

《그저 참, 야단이 났구나.》

**김일성** 동지께서는 할아버지와 손자사이의 정싸움을 바라보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었다.

《교수선생, 서울에 나와보니 시민들의 땔나무 문제가 몹시 긴장한것 같은데 생활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최림은 한동안 놀란 눈만 껌뻑이었다.

전쟁이 한창인 때에 그것도 복더위속에서 땔나무걱정을 하시니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아무래도 땔나무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하겠습니다. 교수선생의 생각에는 나무를 어디서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최림은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할지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것이 한순간 그를 더욱 당황하게 하였다.

《장군님, 이 전쟁통에 땔나무가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근심은 아예 하지 말아주시시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내볼수록 고정한 그의 성품이 마음에 드시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전쟁이기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하는것도 결국은 남반부인민들을

미국놈들의 식민지통치압제에서 해방하여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살게 하자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놈의 학정밑에서 수십년간이나 피눈물을 뿌리며 노예처럼 살아온것만 해도 가슴아픈데 서울이 해방된 오늘에 와서까지 땔나무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애로를 느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땔나무문제는 한갓 생활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서울시인민위원회에 둘러보았는데... 그곳 동무들은 태백산에서 나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수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림은 화끈 달아오르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말을 고르듯 더듬거렸다.

《서울서 가까와 지금까지 그곳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장군님, 그곳이 좋을것 같습니다.》

《태백산이 좋단 말이지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혼자말로 되뇌이시며 창민을 무릎에서 내려놓고 잠시 앞마당을 거니시었다.

《물론 태백산에서 나무를 하면 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무를 하면 지리지 고생많은 해방지역 인민들을 동원시켜야겠는데 공화국 품에 안긴 오늘까지 그들을 고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북반부인민들의 손으로 나무를 해주어야 합니다.》

최림은 가슴이 몽클해지고 코마루가 췌해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토방우에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서울시 주변지형을 일일이 살펴보시다가 양양과 린제사이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많은 설악산에서 나무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설악산은 한강상류와 잇닿아있기때문에 강물을 리용하여 베낸 나무들을 류별하면 서울까지 운반하기도 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참나무는 분한도 있고 불땀이 좋아서 때는 사람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선생!》

《장군님!》

최림은 목이 짹 메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에게 너무도 크나큰 사상이 안겨지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만족하신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이시며 붉은색연필을 드시고 양양과 린제사이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으시었다.

《부관동무! 서울시민들의 땔나무문제는 내각림산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서울은 10월 중순부터 추위가 시작되는데 그전에 나무를 보내주어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겨울을 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래야 서울시민들의 땀나무문제에 대하여 마음을 놓을것 같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내에 어둠이 깃들 때까지 해방지역에서의 교육문제와 생활보장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나서 최림의 집을 나서시었다.

이따금 먼 남쪽에서 쿵쿵 포소리가 울려왔다.

**김일성** 동지께서 타신 군용차는 두줄기의 밝은 빛을 뿌리며 포성이 울부짖는 전선쪽을 향해 살같이 달리었다.

《장군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멀리 어둠속으로 차를 따라 달음박질해간 창민이의 쟁쟁한 목소리가 둔중한 포성을 누르며 메아리쳐갔다.

최림은 군용차가 사라진 남쪽길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 못박힌듯 서있었다.

×

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놈들의 추종국가들을 발동하여 《유엔군》을 조작하고 더 많은 전투사단들과 군사장비들을 조선전선에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도교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유엔군》사령관으로 악명높은 맥아더놈을 앉히였으며 살인장군 위커놈을 미제침략군 8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전선은 멀어지고 군사정세는 시간을 다루며 급변하여졌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 긴박한 군사정치정세를 타개하기 위하여 언제 적기가 달려들지 모를 400여미터의 긴 림진강철교의 침목을 차를 타고 넘으시여 충주남쪽 수안보에 위치하고있는 전선사령부를 찾으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량상 몇배나 우세한 적들과 맞서 나날이 치열한 격전을 계속하고있는 전사들을 고무하여주시고 침략자들에게 보다 호된 징벌을 안길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미제는 최후발악을 다하였으나 조선동남단의 1만평방키로메터의 삼각지점에 더욱더 압축되어 언제 남해로 굴러떨어질지 모를 막다른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경복궁의 석등과 같은 달빛은 반나마 무너진 벽돌집담벽 밑에서 한가로이 즐기고있었다.

어디선가 풀벌레 우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마치 전쟁이 없기라도 하듯이...

**김일성** 동지께서는 포연속을 헤치시고 머나먼

화선천리길을 다녀오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울지로가 한눈에 보이는 서울시내의 어느 자그마한 방에서 최림이가 쓴 력사교재원고를 보고계셨다.

한장, 또 한장... 침묵속에 잠긴 방안에서는 책장넘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최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숨엄해지는 감정에 휩싸여 **김일성** 동지를 우러렸다.

수척해지신 얼굴, 그러나 온몸에 정열이 차넘치시는 모습... 최림은 종시 눈앞이 흐려와 안경을 벗어들었다.

삼천리강토가 일체의 군화밑에서 황폐화되어가던 수난에 찬 세월, 망국의 한을 품고 이 땅의 수많은 충신들이 이름모를 초야와 한적한 지붕밑에서 목숨을 꿋고있을 때 황실내각인 규장각에서 학문연구에 한생을 바쳐온 아버지까지 《한일합병》의 치욕을 참을길 없다며 유서 한장 남기지 않고 사약을 넘기던 울씨년스럽던 그밤이 생각났다.

《아, 분하도다! 이제는 노예로 된 2천만 우리 동포여, 단군이래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를 창조해온 력사국이 하루밤사이에 망해버렸으니 가슴이 터지누나. 거레여! 절통하구나. 동포여!》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몇밤을 한숨속에서 가슴만 쥐어뜯으며 땅을 쳤었다.

그밤에 서린 어혈이 아직도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다.

최림은 아버지의 시신앞에서 비분에 떠는 작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기어이 풍전동화에 놓인 민족의 운명을 건지는데 힘쓰리라 굳게 결심하고 일어섰으나 힘은 미약했고 길은 너무도 암담했다.

그러던 그에게 항일유격대의 보천보전투소식이 새힘을 북돋아주었다.

《간도로 가자!》,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자!》

최림은 몇달동안 거치른 이역땅을 돌아치며 신문에 글도 써내고 주먹을 들고 피가 나게 연설도 하였으며 무서리맞은 아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주며 야학을 열고 력사도 가르쳤지만 그에게 차례진것은 맹수같은 일제의 차디찬 쇠교랑뿐이었다.

최림은 허탈상태에 빠져 신음하며 방황했다.

그러나 8.15는 스러져가던 민족의 기운을 다시금 양양히 부활시켰다.

인민위원회가 서고 승래문의 깨여진 기와장들이 새로 엮어졌다.

그 나날 최림은 오래동안 기를 펴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한 몸이었으나 흥안의 시절을 다시 맞

은듯이 밤낮을 모르고 뛰어다니었다

꿈은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들쭉핀 언덕길로 제자들과 함께 손목을 잡고나서 옛성터의 자취들을 돌아보기도 하였고 독립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부와 세종로가 한눈에 안겨오는 덕수궁쪽 등판에서 해저무는줄 모르고 민족사의 복건을 론하기도 하였다.

최림은 가슴아픈 망국사가 아니라 민족의 부흥사를 쓰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한낮의 봄꿈에 지나지 않았다.

38도선이 생기고 미군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쪽땅에 기여들었다.

인민위원회의 간판이 떨어져나가고 친일파들과 매국노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었으며 수많은 애국자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백주에 창덕궁과 경복궁이 도난을 당하고 미군정청이 남녘의 모든 실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해방열에 들뜬 엉터리시인들은 제탄에 혁명투사가 된것 같이 정치를 웨치며 《미군의 영광을 받아 환해진 달밤》의 조선을 목이 터지게 찬미했다.

신문과 잡지들은 과거 40년의 조선력사를 하수도과 같은 력사, 헌신짝같이 더러운것이 겉으로 떠올라날치던 시궁창같은 력사라고 하면서 이 더럽던 물이 이제 겨우 찌꺼기들을 가라앉히고 흐르기 시작하였으니 어찌 일조일석에 맑은 강물을 바랄수 있겠느냐고 하며 대중을 기만했다.

그래 미국의 압력에 의해 또다시 밀려나는 이 나라의 눈물겨운 력사를 보며 맑은 강물을 바라단 말인가? 미군이 가져온 《해방》의 흥분은 남조선땅에 수많은 약물부작용환자들을 만들어놓았다.

6.25전쟁이 터졌다.

당국에서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최림을 보호해 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최림은 오히려 반발심이 북받쳐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들어온 **김일성** 장군님께서 평양에 계신다는 한가닥 희망만을 안고 살아왔다.

최림의 이런 기대는 헛된것이 아니었다.

최림은 뜨거운 눈길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우러렀다.

등피에서는 호박씨만 한 불꽃이 방안에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원고의 마지막장까지 다 넘기고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력사는 흘러간 지난날의 옛이야기가 아니라 후대들이 미래를 내다보게 하고 인민대중이 주인된 새사회를 건설할수 있게 하는 나라의 주춧돌이 되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에서 력사에 충실하다는것은 맹목적인 옛자료의 복기를 의미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설같은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전에 내가 강원도의 여러 지방에 나가본 일이 있는데 그때 한 로인이 나에게 들려준 설악산의 대승폭포 유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다가 최림이 앉아있는 책상가까이 다가오시였다.

《옛날 큰 나라를 섬기는데 이골이 난 사대주의자들이 폭포에 대해서도 좋으나 나쁘나 다른 나라의것을 첫 손가락에 꼽았는데 하루는 설악산에 단풍구경을 왔다가 그만 대승폭포의 장쾌함에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대주의분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 나라 폭포의 성가를 올렸다고 하여 <대승폭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사대주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런 전설까지 생겼겠습니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것도 사대주의때문이었습니까.》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대주의에 대한 원한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들의 골수에 사무쳤습니까.

인민대중의 이러한 사상감정에 력사가들은 마땅히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를 보니 선녀가 지네라는 벌레와 싸워 못된 벌레를 크게 이겼기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승폭포> 라고 불렀다는 허황한 옛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았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할수 없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였다.

최림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머리를 들수 없었으나 번개같은 섬광이 암흑의 장막안으로 비쳐드는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력사는 인민이 창조합니다. 때문에 인민보다 현명한 스승은 없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우리 동무들에게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우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어 머리도 쉼겸 설악산에 가서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최림은 나이를 잊고 젊은 시절처럼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장군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래동안 곰팡이졌던 눈에 이제야 밝은 빛이 스며드는것 같습니다. 래일이라도 당장 설악산으로 떠나겠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안팎에 미소를 담으시고 흥분에 들며 어쩔줄을 모르는 최림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앉혀주시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더위가 수그러진 다음에 떠나시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떠나실 때차를 보내겠으니 창민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지금 영수동무가 설악산에 가있습니다. 창민이가 아버지를 만나면 몹시 좋아할겁니다.》

《예?...》

최림은 어안이 빙빙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커다란 두눈만 껌벅이었다.

《이번에 전선사령부에 나가 알아보니 서울에서 입대한 동무들이 큰 작전을 앞두고 훈련중에 있다고 하기에 지휘관동무들에게 전투가 좀 힘들더라도 그들을 모두 떼내어 서울시민들에게 보내줄 땔나무하는데 돌리자고 하였습니다.》

최림은 코마루가 쩡해오고 눈곱이 화끈 달아올랐다.

《장군님! 이 큰 전쟁에서 서울시민들의 생활이 뭐가 중하여 전쟁의 승패를 다투는 군대까지 떼내어 땔나무를 시킨단 말입니까?》

최림의 온몸은 끓어오르는 걱정으로 떨리고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러한 최림의 두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친근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땔나무문제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하나의 전투입니다. 전선이 긴장해지고 싸움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인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서울해방전투도 인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밤이 아니라 낮에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본분이기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입대한 동무들이 자기 집에 땔나무까지 해서 보내주거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인민의 지지를 받는 군대를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림은 안경에 물김이 서린것처럼 눈앞이 뿌옇졌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창가로 천천히 다가가시어 달빛안개속에 잠겨있는 무학고개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달이 밝구만. 이런 때면 자연히 생각이 깊어 집니다.

백두산에서 싸울 때에도 이런 밤이면 동무들과 함께 우등불곁에 모여앉아 <사향가>를 부르며 조국을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강산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땅이 비단에 수를 놓은것 같다고 하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대에 와서 왜놈들에게 짓밟히고 미군에 의해 불타고있습니다.》

최림은 지금 자기의 눈귀에 물기가 젖어들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짜르릉, 창유리를 흔드는 소음과 함께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화광이 치솟고 그 불길속을 헤치며 위장망을 친 자동차수송대가 혜화동 로타리를 지나 돈암동방향으로 거침없이 내달리고있었다.

미구하여 **김일성** 동지께서 사색에 잠겨 바라보시는 거뭇거뭇한 산릉선들이 푸룻이 밝아오고있었다.

×

한로를 가까이 한 계절이라 설악산기슭에는 흰빛, 보라빛국화가 한창이었다.

소양강기슭과 내린천계곡 그 어디를 보아도 청산이였는데 9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골과 봉우리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황홀경을 펼치었다.

계절로 미루어보면 낮과 밤이 같은 시기이지만 게으른 산간벽지의 하루해는 시계바늘이 정오를 벗어나기바쁘게 산봉우리위에 걸터앉아 벌써부터 철차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산기슭에 자리잡은 마을어귀에는 장난에 미친 아이들이 풍지가 빨간 고추잡자리잡이에 여념이 없었다.

최림은 가릴처절한 전쟁이라는것도 잊고 수려한 경치가 그대로 펼쳐진 설악산풍치에 매혹되어 마치 단풍의 명소를 찾아 흘러든 등산객처럼 마음이 끝없이 즐거웠다.

래일은 서울을 향하여 첫 통나무떼가 물동을 헤치고 흘러간다.

생각할수록 장군님의 은덕이 고마왔다.

최림은 기슭이 넘쳐나게 쌓아올린 나무무지개를 흐뭇한 눈길로 둘러보며 이 사랑을 눈물겹게 받아안을 서울시민들의 환희에 넘친 얼굴들을 그려보았다.

얼마나 고생많던이들인가.

찬바람부는 겨울이 되면 남촌북촌이 다 땔나무



가 없어 한지에서 떨군 하였다.

그럴 때면 집집의 아궁은 크지 않아도 못들어 가는것이 없었다.

책상이 들어가고 밥상이 들어가고 장농이 부서져 들어가는가 하면 첫날 색시가 가지고온 레물함도 들어갔다.

오죽 고생스러웠으면 사람들이 자기집 아궁을 가리켜 《가산먹는 귀신》이라고 저주했겠는가.

최림도 간해 겨울에 그 《아궁귀신》에게 서가를 털어버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긋지긋하던 겨울이 사라지게 된것이다.

최림은 온갖 시름을 잊고 무저놓은 통나무우에 팔배개를 하고 누웠다.

파랗게 트인 하늘에서는 수리개가 날고있었다.

최림은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 설악산에 들어와 지낸 며칠간의 일들을 곰곰히 돌이켜보았다.

영수를 만나던 일이며 유적들을 찾아 산길을 걷던 일, 300척 높이를 가진 대승폭포의 절경도 장관이었지만 한적한 산중에 자리잡은 신흥사와 백담사 그리고 기묘하게 석축한 한계산성의 옛 성곽들은 력사는 인민이 창조한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 진수를 새로운 깊이에서 심오하게 되새겨 보게 하였다.

어디선가 경쾌한 하모니카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폐무이장쪽에서 의용군 병사들이 오락회를 열고 흥을 돋구고있었다.

설악산에 와보니 영수가 그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명장말에 약줄이 없다고 장군님군대에 입대한지 몇날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품이 자기보다 훨씬 돋보였다.

최림은 의용군병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락에 맞추어 흥얼흥얼 따라부르기 시작하였다.

...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참으로 뜻이 깊은 노래이다.

이때였다.

풀어놓은 땅크의 무한궤도와 같은 때목들이 굽이쳐간 물동기슭에서 가느다란 발동기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어 좁은 비탈길우에 모터찌클 한대가 불쑥 나타났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모터찌클은 길들지 않은 가라말처럼 험한 발구길우에 한길씩 뒤편으로 끌짜기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최림은 긴장해지는 눈길로 지휘부쪽을 살피었

다.

지휘부천막문이 휘짝 열리고닫기고하더니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뛰쳐나와 사방으로 흩어져갔다. 뒤미처 평화롭던 정적을 깨치며 비상소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온 채벌장구역에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가?)

여기저기에서 숨이 턱에 닿아 달려가는 발자국소리와 함께 대렬을 정돈시키는 지휘관들의 구령소리들이 들려왔다.

최림은 불길한 예감으로 하여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겨짚으며 주먹을 쥐고 지휘부쪽으로 달려가는데 앞에서 《후퇴》라고 웨쳐대는 청천벽력과 같은 목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하였다.

채벌장구역은 쭈서놓은 벌둥지같았다.

...

미제는 서산략일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태평양방면에 배치했던 록해공군 전체병력과 지중해함대의 일부, 미국본토의 병력과 미제침략군 제5공군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제놈들의 15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다 굽어모아 조선전선에 총동원하였다.

우리 조국앞에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급변해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락동강계선까지 진출하였던 인민군주력부대들이 대담하게 적들을 기습소탕하면서 험산준령을 타고 재빨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할데 대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적들의 포성은 가까와지고 후퇴를 서두르던 큰길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뜸해졌다.

최림이 소양강과 내린천의 합수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쪽에서 사람들이 때목을 해체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끌어들인 통나무들을 강기슭에 되는데로 쌓아놓는다. 여기저기로 뛰여다니는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한, 매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였다.

한 의용군병사가 석유초롱을 자갈밭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뒤에 대고 무어라고 소리친다.

(아니, 저 애가?)

최림은 영수를 알아보고 급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애, 어찌자고 그러냐?》

아들은 아버지의 물음에 통나무무지를 가리켰다.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아버지도 잘 아시지않나요. **김일성** 장군님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나무를 미국놈들이 좋아하라고 그냥  
떠내려보내겠습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못합니  
다.》

《그러니까 불태워버리자구?》

《예, 우리 의용군병사들이 전제 서울시 인민의  
이름으로 지휘부에 제기하였구 그렇게 결정되었  
어요.》

《음... 그래야지.》

최림은 이 땅에 준엄한 시각이 다가왔음을 온  
몸으로 절감하였다.

돌연 휘몰아치는 삭풍에 로교수의 백발이 흩날  
리었다. 바람을 맞은 강물은 출렁이며 기슭을 때  
렸다.

한편 전선길에서 설악산의 실태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쥐신채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수화구에서는  
그곳 채별장지휘일군의 초조한 숨소리만 가늘게  
들려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청계천가의 빈민촌이 생각나셨다.  
눈앞에는 또다시 엄동설한에 오돌오돌 떨게 될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 모든것을 부정하시듯 눈  
을 지그시 감으시고 조용히 머리를 가로 저으시  
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바투 가져다  
대고 끊어졌던 말씀을 이으신다.

《거기에 최림교수가 있겠는데...》

《예, 방금 지휘부에 들어섰습니다.》

《좀 바꾸어주시오.》

잠시후 걱정으로 떨리는 최림교수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장군님, 그사이 옥체만강하십니까?》

《교수선생, 난 일없습니다. 오히려 난 번덕스리  
운 요즘 날씨에 선생의 건강상태가 걱정됩니다.》

순간 혁-하고 흐느낌을 삼키는 목소리가 수화  
구의 진동판을 두드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어 영수와 손자애의 안부  
까지 일일이 묻고나서 신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  
였다.

《이자 들으니 나무들을 불태우겠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답답하신듯 목단추를 벗기며 한손  
으로는 송수화기를 바꿔쥐시었다.

《불태워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들  
마련한 나무인데 그렇게 쉽게 버린단 말입니까?

서울에서 오랜 세월 화목부족으로 고생스럽게  
살아온 교수선생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최림은 목이 꺾 메여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꼭  
틀어잡은채 입술만 실룩거리었다.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이 시각, 위협  
한 전선길에서 그이를 기다리는 중대사가 얼마나  
많겠는가?

장군님께 더 이상 서울시의 땔나무문제로 시간  
을 지체시켜드려서는 안된다.)

최림은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너무 근심마십시오. 지난날에는 땔나  
무가 없이도 살아왔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  
까.

서울시민들은 장군님께서 넘려해주신 은총만  
안고서도 이해 겨울을 무난히 날수 있습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장군님! 정세가 긴장한데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주십시오.

통나무는 절대로 미국놈들이 기여드는 서울로  
보내서는 안될줄로 아웁니다.》

최림은 마지막말마디에 힘을 넣었으나 어쩔지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리는것 같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저으기 실망하신듯 잠시 아  
무말씀도 없으시었다. 이어 자신을 다잡으신듯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위해주는것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을 떠난 애국자란 있을수  
없습니다. 거기에 모인 의용군병사들도 슬기로  
운 우리 인민의 아들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세가 엄혹해졌다고 인민을 외면한다  
면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가 어려워진것은 사실입  
니다. 하지만 전쟁의 운명이 달라진것은 아닙니  
다.

인민군대는 인차 돌아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잠시나마 적구에 남아있게 될 인민들을 생각하  
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들을 모두 불태우고 떠난다면 서울  
시민들이 이해 겨울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내 이제 그곳의 책임자에게도 따로 말해주겠는  
데 나무를 불태워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나무를 모두 토막쳐서 서울시민들에게 보내주  
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공화국폭에  
안겼던 이해 겨울을 따뜻이 지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최림은 목안에서 불덩이같이 뜨거운것이 불끈  
치밀어올랐다. 심장의 박동은 후드득하고 세차지  
고 온몸은 그대로 활화산처럼 달아올랐다. 뿌잇  
한 안개가 삼시에 눈앞을 가리우며 전류가 흐르  
는 소리만이 뽕뽕 귀전을 울려 더 이상 아무것도  
가려볼수가 없었다.

(세계 어느 전쟁사에도 있어본적 없는 일이다. 우리 장군님은 고급에 류례없는 불세출의 위대한 인간이시다!

력대로 왕들은 인민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을 신비화하고 나라에 재난이 닥쳐왔을 때는 민족의 리익을 팔아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나라의 역사를 어지럽혔다.

근세에 와서도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왕을 황제라고 부르며 민족시조가 세운 나라이름도 고쳐보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위신은 높아진것이 아니라 섬오랑캐들에게 짓밟히고 겨레는 피눈물을 뿌리며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력사가 그토록 일일천추 고대하며 갈망해온 위대한 인간, 인민의 아버지를 드디어 민족의 령수로 모시게 되었으니 아, 이는 불피코 강성부흥의 려명을 알리는 새 세기의 시작이다. 장군님의 역사를 쓰자. 은혜로운 사랑속에 대대손손 복락하게 될 우리 인민의 새 민족사를 쓰자.)

쉽없이 흐르는 눈물은 두볼을 적시며 방울방울 떨어졌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시 전화로 전선사령부를 찾으신 다음 철수하는 일부 부대들을 이곳으로 돌릴데 대한 문제와 적의 인천상륙을 지연시킬데 대한 문제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제때에 통나무토막들을 가져가도록 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다음 전선길을 이어가시었다.

그이께서 타신 군용차가 사라진 하늘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며칠간 채벌장은 전선을 방불케 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우등불이 타오르고 대낮처럼 밝은 강기슭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림은 집에서 떠나올 때 도끼라도 하나 차고 오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며 강기슭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강가에서는 남녀로소가 한데 어울려 승벽내기를 하며 잘라낸 통나무토막들을 강물속에 굴러넣고있었다.

마침 애녀석 하나가 돌부리에 걸린 나무토막을 안고 안간힘을 쓰고있었다.

가까이 다가서보니 창민이었다.

최림이 기특한 눈길로 손자애를 보고나서 나무통을 닝큼 들어 넘겨주었다.

《이건 내거야 씨. 할아버진 다른거 가져오라.》

최림은 일감을 빼앗길가봐 겁먹은 눈을 하고있

는 손자가 대견스러워 빙그레 웃음을 지었으나 가슴은 말못할 격정으로 몽클 젖어들고 희숙한 눈섭은 가늘게 떨리었다.

어둠에 묻힌 행길쪽에서 청높은 소리가 들려왔다.

《지휘부가 어디 있소?》

《어디서 오는 부대요?》

《전선에서 들어오는 부대입니다.》

설악산의 밤은 바닥없이 깊어갔다.

그러나 불야경을 이룬 골짜기는 날이 밝도록 톱질과 도끼질소리, 웃음소리로 잠들줄 몰랐다.

×

물동이 터졌다.

토막친 나무들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렸다.

부딪치고 곤두박치며 나무토막들은 한동안 죽가마끓듯 하였으나 점차 물끓을 따라 정연한 때를 이루며 흘러내렸다.

《만세!》

력사적인 순간이었다.

갑자기 침묵이 깃들었다.··· 그다음은 산봉우리들과 사람들이 물속에 잠긴것처럼 흐느적거리며 보이지않았다. 평긋, 눈앞이 트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모습이 안겨왔다.

때가 흐른다. 아니,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이 결정체를 이루고 불비속을 헤치며 서울을 향하여 도도히 굽이쳐가고있었다.

《아버지!》

최림은 가슴팍에 와락 안겨든 아들의 어깨를 어린애처럼 쓸어주었다.

《영수야! 어서 떠나거라. 장군님을 따라 가거라.》

최림은 가슴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함을 마디마디에 담았다.

아들은 입술을 옥물고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변치않을 신념의 맹세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창민이가 최림의 손을 잡아끌었다.

《할아버지, 나두 장군님 따라 갈테야...》

《그래그래, 너도나도, 할머니도, 아니, 온 남녘의 민중과 함께 장군님을 따라가자꾸나.》

대오가 흘러간다.

바다로 흘러가는 크고작은 물줄기와도 같이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수천수만의 대오가 끝없이 끝없이 흘러가고있었다.

## 빛나는 조국, 슬기로운 인민의 노래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3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길이 받드세  
...

부르고 부를수록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푸는 《애국가》. 반만년 오랜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영광과 행복, 끝없는 자량이 넘쳐흐르는 이 노래.

이 노래를 무심히 들을수 없는것처럼 이 노래에 깃든 사연 역시 무심히 들을수 없다.

해방된 이 땅우에 새 조국건설의 마치소리 드높던 주체35(1946)년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애국가의 창작을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고 9월 어느날에는 창작가들을 부르시여 애국가와 인민군행진곡을 창작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애국가가 나오기를 열망하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노래의 창작방향과 창작실천상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방도들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애국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우리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다. ...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창작가들은 밤을 새워가며 창작전투를 벌리였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사를 적어나갔고 그 정신으로 곡을 지었다.

긴장한 전투가 벌어져 드디어 두편의 노래가 애국가의 후보작품으로 등록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6월 어느날 친히 시청회를 마련해 주시고 몸소 시청회장소에 나오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시청회에 참석하신다고 생각하니 감격은 더없이 컸다.

드디어 새로 창작된 두편의 《애국가》 후보작품들이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참가자들모두는 장엄한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설레이는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노래들을 반복하여 주의깊게 들으시면서 가끔 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넣으시더니 두곡이 다 좋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먼저 들으신 노래를 《애국가》로 정하고 후에 들으신 노래는 제목만 고쳐서 그대로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드디어 《애국가》는 탄생에 세상에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오늘에야 《애국가》가 나왔다고, 인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솟구쳐 오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창작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노래의 뒤부분을 반복하여 부르는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참으로 창작가들모두는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문제였기때문이었다.

실로 하나의 가사, 하나의 선율을 놓고도 이처럼 넓은 식견과 비범한 예지로 훌륭하게 완성시켜주시니 노래는 한결 더 장중해지면서 듣는 사람의 심장을 그러잡았고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더 한층 솟구쳐올랐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밑에 이 나라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동자, 농민이 주권을 쥔 나라의 국가인 《애국가》가 세상에 태어났던것이다.

## 《조선아 너를 빛내리》

주체49(1960)년 9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이 자리  
잡고있는 룡남산의 언덕길을 오르시였다.

평양남산고급중학교(당시)를 졸업하시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하신 장군님께서 첫 등교길에 오르  
신것이였다.

룡남산에로의 길, 이것은 장군님께 있어서 참  
으로 사연많은 길이였다.

평양시의 북동쪽에 자리잡고있는 룡남산은 금  
수산의 한 봉우리로서 지난날에는 지도에도 오르  
지 못했던 나지막한 야산이였다.

그런데 조국이 해방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나라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농민들의 애국미로 이곳 룡남산  
언덕에 첫 대학인 종합대학을 일떠세우게 하시  
였다.

복과 남,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종합대학건  
설장으로 쏠리면서 지난 세월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던 룡남산은 전국, 전민의 기대와 이목이 집  
중된 명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로 이무렵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  
께서 어리신 자체분의 손목을 잡으시고 종합대학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찬 이슬을  
밟으시며 어머니께서는 지난날 산에서 싸울 때  
꿈처럼 그려보던 인민의 대학이 오늘 여기에 건  
설된다고 몹시 기뻐하시면서 너도 어서 커서 이  
대학에서 공부하여 아버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장군님께 당부하시였다.

그날부터 장군의 가슴속에는 어머니의 말씀  
과 함께 룡남산이 뿌리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장군님께서 그후 시련많은 우리 조국의 력사  
와 함께 온갖 고난과 투쟁속에서 성장의 길을 걸  
으셨는데 룡남산은 언제나 그이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푸른 꿈의 동산이였다.

세월이 흘러 장군님께서 고급중학교졸업을 앞  
두시였을 때 주변에서는 그이의 상급학교진학과  
전공문제를 두고 제 나름의 추측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무렵에 사람들은 하나의 놀라운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그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급중학교졸  
업을 앞두시고 이전 쏘련을 방문하신적이 있었  
다.

그때 모스크바에 며칠간 묵으시며 여러 문화기  
관들을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 어느날 모스크  
바종합대학을 참관하시였다.

그 대학으로 말하면 2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고 또 교육설비로 보나 교수진영으로 보나 명  
인들을 배출한 실적으로 보나 영국옥스포드나 캠  
프리지, 프랑스의 소르본느와 같은 대학들과 어  
께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대학이였다.

참관을 마치자 안내하던 일군은 장군님께 말씀  
드렸다.

《이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시면 꼭 이곳으로  
류학을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외교

적인 권고가 아니라 인류의 진보를 위해 천재들  
을 아껴온 이 대학자체의 소망입니다.》

그의 권고는 진심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을 위해주는 그 권  
고가 고마웠지만 겸손하게 거절하시며 이런 내용  
으로 말씀하시였다.

권고는 매우 감사합니다만 우리 평양에도 훌륭  
한 대학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무들과 함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외의 이름있는 대학에  
가야만 선진과학을 배울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던  
그때 장군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뜻밖의  
것이였다.

장군님께서 해외에로가 아니라 룡남산으로 향  
하신것은 바로 그것이 조선혁명의 요구이기때문  
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이 해방된 직후부터 혁  
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  
면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야만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  
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정통하며 그것을  
생활과 투쟁에 철저히 구현할것을 절박하게 요  
구하였다.

바로 이 요구를 사무치게 통감하신 장군님께서  
는 크나큰 포부를 안으시고 마침내 룡남산에 오  
르시였던것이다.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룡남산마  
루에 서시어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애  
길이 빛내이자, 이것은 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라고 하시며 자신의 맹세를 《조선  
아 너를 빛내리》라는 한편의 시가에 담으시였다.

해썬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의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이것은 피끓는 청춘의 가슴에 조선을 안으시고  
시대와 력사, 인민앞에 다지시는 경애하는 장군  
님의 신념의 맹세였다.



# 제1의 생명

한웅빈

## 1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이신 **김일성** 동지의 특별임무를 받고 때 이른 강설에 덮인 몽강고원을 지나 동패자밀영에 도착하신것은 1939년 10월이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 받으신 특별임무에 대하여 1997년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행한 《김정숙동지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부대선회작전준비를 위하여 동패자밀영으로 간간 참모장 림수산에 대하여 깊은 의혹을 느끼고계시었다....

지난 시기 패배주의적경향도 자주 나타났고 전해 봄에는 졸렬한 전투조직과 비집성으로 하여 6도구 경시습격전투에서 실패하였고 쌍산자전투시에도 철수를 주장하여 (우리에게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라는 화폭으로 잘 알려진 전투이다.) 일부 대원들속에 나쁜 영향을 준 림수산이었다. 또한 그는 규률생활도 싫어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것으로 하여 비판도 여러차례 받았었다....

통신을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동패자밀영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의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것을 결심하시였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야 할것인가. 림수산은 참모장이였다. 그 과업은 예리한 통찰력과 계급적원칙성,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수행할수 있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나으린 경위대원 리두성을 데리고 동패자밀영에 도착하시였을 때 대부대선회작전준비로 들끓고있어야 할 밀영은 귀틀집도 변변히 없었고 침침한 분위기에 짓눌려있었다.

림수산은 걱정이 삼엄하다는데로부터 (《노조에 토벌사령부》관하의 20만 대군이 산야를 뒤덮고있었다.) 지방조직과 련계를 취할 대신 누구도 밀영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대부대선회작전을 위한 식량저축은 고사하고 소부대성원들의 겨울나이식량조차 마련하지않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도착하신지 며칠이 지나서부터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해 겨울의 본격적인 눈이었다. 마가을바람에도 용케 떨어지지 않고 나무가지에 매달려있던 마른 나무잎들은 눈의 무게에 실려 떨어졌고 눈

은 또 그것을 덮으며 그냥 내렸다.

이제 눈이 멎으면 강풍이 터질것이고 뒤이어 몽강고원의 유명한 눈보라가 시작될것이였다....

경위대원 리두성은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귀틀집으로 달리다싶이 걸었다.

임무대로 하면 김정숙동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그였으나 어찌할수가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밀영의 통로들을 하루에도 몇차례씩 돌아보도록 리두성을 내보내군 하시였다.

밀영은 눈에 덮이고 뽕얀 눈발속에 묻혀있었으나 두성은 여기저기 따람따람 자리잡고있는 귀틀집들을 푹푹히 가려볼수 있었다. 그 집들은 모두 김정숙동지께서 도착하신 후에 지은것이였다.

며칠사이에 밀영은 자기 체모를 갖추었다.

(이제 곧 지방공작을 시작하실것이다.)

두성은 생각했다. 밀영건설을 끝냈으니 이제는 지방조직들과 련계를 가지고 조직을 확대하며 부대에 필요한 식량공작을 진행할것이다. 두성이라도 식량공작과정이 대체로 그렇게 진행된다는것쯤은 알고있었다.

처음 밀영에 도착하였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지체없이 밀영건설과 겨울나이준비를 시작할것을 림수산에게 권고하시였다. 림수산은 천정만 한 동안 쳐다보다가 중얼거리듯이 대답했다.

《밀영건설?... 하기가 해야지.》

다음날부터 밀영건설이 시작되였다. 밀영에는 영양실조와 추위로 인한 《졸라병》이 돌고있어 일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되지 않았다. 밀영이 아니라 병동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때로는 김정숙동지께서 두성과 둘이서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시는 날도 있었다. 그 도끼질소리와 톱질소리가 누워있던 대원들을 하나둘 불러냈고 귀틀집이 한채두채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침울하던 밀영성원들의 얼굴에는 점차 화색이 어리기 시작했고 활기도 살아났다.

그런데 웬일인지 기뻐하셔야 할 김정숙동지의 안색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듯 했다. 두성은 그것을 분명히 느꼈다.

왜서일가, 물론 여기 동패자밀영에서 모든 일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것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두성은 알고있었다.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그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려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제껏 그 어떤 일이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물러서거나 중도반단한적이란 것은 없었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이해 여름에만 해도 오도양차의 밀림속에서 열병에 걸려 사경에 처한 녀대원을 단신으로 한달이나 간호하여 완치시켰고 가을에는 한대밖에 없는 채봉기로 몇명의 채봉대원들과 함께 대부대선회작전에 필요한 600벌의 군복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지어내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앞에는 넘지 못할 《난공불락》이란 없었던것이였다.

그런데 분명 그이의 안색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고있었다. 이제껏 언제 한번 그런 어두운 기색을 보인적 없는 김정숙동지이시였다.

마안산에서 《민생단》련루자로 몰려 굶고 떨고 있는 어린 두성이네를 돌볼 때도 언제 한번 그들을 보이신적이 없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있었다. 그러나 눈발이 조금씩 성글어지며 부근부근하던 함박눈송이가 모래알같은 싸락눈으로 변하고있었다. 이것은 바람이 터질 징조였다.

두성은 옷에 덮인 눈을 털고 신발을 탁탁 구른 다음 귀틀집문을 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피창앞에 서계시였다. 방안은 어둡시그레했으나(저녁이였다.) 등잔불은 켜지 않았다.

흰눈으로 아직 밝아보이는 밖에서 비쳐드는 빛에 김정숙동지의 얼굴은 무척 수척하고 창백해보였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그이의 심신에는 한해의 피로가 모두 겹쌓여 무겁게 실린듯 했다.

병색이 짙어진 얼굴을 두성은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천리길을 헤쳐 이곳에 도착한 때부터 잠시도 휴식을 모르신 그이이시였다.

《저- 남쪽방향 통로에 밀영밖으로 나간 발자국 자리가 있습니다.》

두성은 이 소식이 김정숙동지의 무거운 마음을 다소 덜어드릴것이라고 생각했다.

《밀영에서 지방공작을 나간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그제야 돌아서시였다. 그러자 두성은 병색질은 지친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와 같이 류다른 빛을 뿜는 그이의 두눈을 보았다.

《확인했어요?》

《예, 돌아온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문가로 향하시였다.

《가보지요.》

두성은 놀랐다.

《지금 말입니까? 눈에 묻혀서 이제...》

《가보지요.》

그이께서는 문을 나서시였다.

두성은 다급히 뒤를 따라섰다.

차가운 싸락눈이 모래알처럼 얼굴에 부딪쳤다. 벌써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있었다. 싸락눈송이들은 바람에 휘몰려 공간을 가로세로 썰며 찌르르 찌르르 소리를 냈다.

《여깁니다.》

발자국자리는 이미 눈에 덮여 찾을수 없었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밀에 묻혀버린 발자국자리를 찾아보시는듯 그냥 걸음을 옮기시였다

마침내 나무밑에서 눈에 덮이지 않은 발자국자리를 찾아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발자국자리를 앉은 자세로 유심히 들여다보시였다. 틀림없는 밀영성원들이 신고다니는 신발자리였다.

《어디까지 봤어요?》

《5리쯤... 망원초가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발자국자리는 망원초앞을 지나갔습니다. 틀림없이...》

그이께서는 마침내 일어서시였다.

《참모장에게 가보지요.》

참모장은 털외투로 몸을 감싸고 나무침상에 반쯤 누운 자세로 앉아있었다. 등잔불이 뽕얇게 연기서린 방안을 어슴푸레하게 비치고있었다. 등잔연기에 담배연기가 섞인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탁했다.

《무슨 일이요?》

참모장은 제대로 앉았다. 등잔불빛에 그의 얼굴은 누렇게 뜬것처럼 보였다. 부석부석해보이기도 했다.

《참모장동지, 이제는 지방공작을 빨리 진행하여 식량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부대의 임무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위한 식량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모장은 하품을 했다. 그의 큰 하품에 방안에 서린 뽕얀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또 그 소리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요. 노조예의 20만 대군이 사냥개처럼 우리의 흔적만 찾고있단 말이요. 쥐를 잡으려다가 독을 깨뜨리는것이 될수 있소.》

참모장은 이런 부류의 속담을 많이 알고있었고 말할 때면 적절하게 끼워넣는 류창한 언변을 가지고있었다.

두성은 전에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 류창함과 박식에 감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때는 그 말재간에 감탄이 아니라 의혹을 느꼈다.

아니, 두성은 방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의혹속에 빠져 들어있었다.

방안의 공기가 이상스레 의혹을 자아냈고(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었다.) 다음은 지방공작을 나간 발자국자리를 확인한 김정숙동지께서 발자국의 임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방공작을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고 물으실 때 어리둥절했고 참모장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할 때 또한 심한 의혹을 느꼈다.

두성은 밀영에서 나간 발자국에 대하여 입밖에 내어 말할번 했다. 그처럼 의혹이 컸던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를 얼핏 돌아보시는 김정숙동지의 시선이 그를 침묵하게 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돼요!》 하고 말씀하시는듯 했던것이다. 이것은 더욱 큰 의혹이였다. 왜? 무엇때문...

참모장은 습관처럼 천정을 쳐다보고있었다. 마치 천정에 그가 할 말이 썩여있기라도 한듯 했다.

《나도 안타깝소. 잠이 오지 않는단 말이요.》

《...》

김정숙동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시었다. 그러나 참모장을 보시는 두눈에는 미소가 그림자도 없었다.

그이께서 이런 미소를 지으시는것을 두성은 여직껏 본적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더 말없이 일어나시었다.

《그럼 편히 주무십시오.》

밖에서는 그냥 짙은 바람에 몰려 사선을 그리며 내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걸음을 옮기고계시었다. 두성이라도 잠자코 뒤에서 따라갔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여러 갈래의 의혹이 삼거울처럼 뒤엉키고있었다. 도대체 이 모든 이상한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두성동무.》

《?!》

이제껏 김정숙동지와 함께 있을 때면 두성은 마안산아동단시절처럼 《누님》이라고 불렀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두성이》라고 불러주시는 때가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두성동무》하고 무겁게 그루를 박아 부르시는것이다.

어둠과 차거운 흰눈의 반사광으로 하여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보였다. 너무도 병색이 짙었다.

두성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들어 머리를 푹 숙였다.

《우리는 래일 사령부로 돌아가야겠어요.》

《예?!》

다른 때였다면 두성은 환성을 올렸을것이다. 사령부를 떠날 때부터 사령부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그였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도 상상밖이어서 놀라기부터 했다. 어데 가서든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잡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가. … 그는 자신없이 떠들떠들 되물었다.

《래일… 래일 말입니까?》

《그래요, 래일이예요. 준비를 해두세요.》

두성은 잠시후에야 기계적으로 대답올렸다.

《예.》

썩락나가루들이 모래알처럼 얼굴을 두드려댔다. …

## 2

밖은 이미 아침이었으나 방안에는 전날 저녁과 다름없는 탁하고 뻘악 공기가 서려있었다.

김정숙동지를 따라 방안에 들어선 순간 두성은 자기가 전날 저녁으로 다시 돌아간듯 한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 방안에서만은 시간이 그냥 전날 저녁에 머물러 있는듯 했다.

《참모장동지, 우리는 이제 사령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김정숙동지께서 말씀하시었다.

참모장의 얼굴은 여전히 부석부석했고 누렇게 뜬듯이 보였다. 자세도 그대로였다.

《돌아가겠대구?》

《예.》

참모장이 몸을 일으켰다. 조는듯 느리게 늘어져있던 눈시울도 쳐들렸다.

돌아가겠다고 하면 참모장이 기뻐하리라는것을 두성은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참모장이 김정숙동지의 도착에 얼마나 당황해했고 불편스레 여겼던가. 될수록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밀영성원들이 김정숙동지를 만나는것을 얼마나 경계했던가.

《돌아가겠대?》

참모장은 다시 한번 되뇌이더니 움쭉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무침상이 한숨을 쉬는듯 찌그덕 소리를 냈다.

《왜… 벌써 돌아가겠대는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짙막하게 대답하시었다.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대?》

참모장은 넓지도 않은 방안을 이쪽저쪽으로 오가더니 문가에 가서 멎어섰다. 털외투자락이 펄럭거리며 방안의 공기를 더 탁하게 만들었다.

두성에게는 까닭없이 참모장이 그들이 나가는것을 막으려고 출입문가에 가서 선것이라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들의 출발을 반가와하지 않는 기색이 너무도 뚜렷했다. 왜서일가. …

참모장은 잠시후에야 뜨직뜨직 말하였다.

《머칠… 더 있다가 떠나는게… 어떻소?》

그러자 그는 자기의 그 말에 스스로 갑작스런 활력을 얻은듯 말씨가 빨라지고 류창해지기까지 했다.

《그렇게 하시오. 지방조직들과 련계를 취하러 머칠전에 련락원을 보냈으니 그 결과를 알아보고 떠나는게 좋을것 같소.》

(머칠전? 어제 저녁에 떠났는데?)

《식량은 인차 해결될거요. 련락원을 만나봐야 결과를 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릴수 있을게 아니요?》

김정숙동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시었다. 두성에게는 그 미소가 조소처럼 느껴졌다.

《식량은 수백명 대부대에 필요한것인데 한번의 공작으로 그것을 마련할수 있을거요?》

《하-》

참모장은 입을 크게 벌렸으나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다.

《걱정마오. 이미 련계가 맺어져있으니까 하루이틀내로 련락원이 돌아올거요.》

《아마…》

하고 김정숙동지께서 참모장을 유심히 건너다 보며 말씀하시었다.

《적기관에 조직성원이 있는 모양이지요?》

참모장의 얼굴에 일순 긴장한 표정이 나타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었다. 두성은 불시에 조용조용 주고받는 말소리만 울리고있는 방안에 다치면 툭- 끊어질듯이 팽팽한 긴장이 서려있음을 느꼈다.

참모장의 시선이 다시 천정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보니 그에게는 자주 천정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던것 같았다.



《나는 적기관도 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역리용이지. 병불염사라고 싸움에서는 꺼릴것이 없다는 말이 있소. 역리용이지. 적들을 역리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을 단번에 해결한다면 얼마나 통쾌한 일이요? 대담한 작전이 필요하오. 강냉이 몇이삭씩이나 구해들여서야 대부대선회작전에 필요한 식량을 언제 해결하겠소? 그런 수공업적방법으로는…》

참모장은 손을 책 내저었다.

《…》

두성은 다시 심한 의혹을 느꼈다. 이것은 참모장이 늘쌍 말하던 적정이 삼엄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게 극력 조심해야 한다면 이제까지의 견해와는 정반대되는 《작전》이었다. 그의 견해가 어떻게 하루밤사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두성은 이제 김정숙동지께서 참모장의 말을 지체없이 반박하시리라고 생각했다. 두성이 알기에도 적기관의 역리용이란 많은 경우 거짓으로라도 《구순》이나 《투항》이라는 말을 앞세워야 하는것인데 그런 말은 위장이라 해도 혁명대오에서는 허용될수 없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그것을 용납하실리 만무했다.

그런데 의외에도 그이께서는 아무 반박도 없이 잠자코 듣고만 계시였다.

참모장은 더 활기를 띠었다. 그에게는 공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자기 말에 스스로 흥분하고 열이 오르는 기질이 있었다.

《그러니 조금해하지 말고 꼭 쉬면서 기다리시오. 참모장이 계획도 없이 밀영에 이렇게 앉아있겠소? 모든것이 잘될거요. 이런걸 두고 옛 병법에서는 <편안한것으로 수고로운것을 이긴다>고 했소.》

《…》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참모장이 아니라 발끝을 내려다보고계시였다.

두성이라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흙바닥위에 널린 짚검불과 마른 나무잎, 담배꽂초들, 그우에 가로세로 오간 발자국자리들이 찍혀있었다. 그 발자국들은 나무잎과 짚검불 있는데서는 절반씩 끊어져 그 어떤 알지 못할 짐승의 발자국처럼 보였다.

《머칠 있다가 떠나는것이 좋을것 같소.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참모장은 그냥 문가에 서있었다. 그것은 이미 권고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다.

두성은 가슴이 바짝 죄여들었다. 이제 일은 어떻게 될것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다는 론박을 들이대실것이다. 사령부로 돌아가는 시각을 언제 한번 흥정해본적이 없는 그이이시였다. 그러면?…

그런데 뜻밖에도 김정숙동지께서 눈길을 드시며 간단히 대답하시는것이였다.

《알겠습니다.》

참모장은 문가에서 물러나 침상으로 걸어갔다. 그자신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는듯했다. 그것이 두성은 더욱 불만스러웠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참모장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꼭 쉬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시오.》

김정숙동지께서 문가에 이르시었을 때 그가 불쑥 물었다.

《사령부는 그냥 화라즈밀영에 있소?》

두성은 자기들이 가는 곳이 화라즈밀영이 아니라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지난밤 김정숙동지께서는 화라즈가 아닌 북쪽방향으로 천리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해주시였던것이다.

그것은 사령부가 화라즈밀영을 떠났음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참모장을 돌아보시더니 차그마한 망설임의 기색도 없이 대답하시여 두성을 또한번 깜짝 놀라게 했다.

《예,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두성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김정숙동지를 따라 문을 나섰다.

눈가루를 머금은 바람이 얼굴을 후려갈겼다. 후덥지근하고 탁한 공기속에서 갑자기 찬바람속으로 나서니 머리가 쩡-하고 아파오며 숨이 탁 막히는듯 했다....

잠시 지나자 숨쉬기가 편해졌다. 그리고 가슴이 열렸다.

《저-》

두성은 의혹을 풀수 없어 뒤에서 따라가며 조심히 입을 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차 응대가 없으시더니 잠시후에야 무슨 말씀인가 하시였다. 세찬 바람소리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두성은 김정숙동지의 곁으로 가까이 따라섰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 되뇌이시는 말씀이 그의 귀전에 푹푹히 울려왔다.

《더러운 놈!》

두성은 깜짝 놀래였다.

《누구 말입니까?》

《참모장 말이에요!》

《예?!》

두성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뽀얀 눈가루만이 사면팔방의 눈우를 구름처럼 물려다니고있었다.

《두성동무 보기엔 참모장이 어떻게 보여요?》

두성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바람에 잠시후에야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저- 달라진것...》

눈가루가 물려와 입을 막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야 두성은 가까스로 말을 뱉었다.

《좀... 변질된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변질이 아니예요!》

음성은 차거운 눈바람보다 더 맵찔다.

《변절이에요!》

《?!》

얼음보다 더 차거운 눈가루가 목덜미에 끼여어지며 등골로 오한이 전류처럼 줄달음쳤다.

《생각해봐요. 그는 장군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있어요. 고의적으로 태공하고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눈발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참모장의 귀틀집쪽을 불꽃이 튀는 시선으로

쏘아보시었다.

《그는 어제 저녁까지도 밀영밖으로 사람을 보냈다는것을 숨겼어요. 오늘은 또 며칠전에 보냈다고 하고... 여기에는 껌껌한것이 숨어있어요. 적기관을 역리용하겠다는것은 한날 궤변이예요. 이곳의 지방조직에는 적통치기관에 침투한 조직원이 아직 없어요. 조직도 아직 미약하고...》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었다가 계속하시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예요. 두성동무도 그 방의 이상한 공기를 느꼈지요? 여기 밀영에 있는 남동무들은 누구나 담배가 떨어져 가랑이를 말아 피우고있어요. 그런데 그의 방안에서는 가랑이를 섞지 않은 담배연기가 차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왜놈들의 담배꽂초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

두성은 그제야 전날 저녁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왈각 물러들었던 의혹이 무엇때문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곳에 서려있는 연기는 대원들의 귀틀집에서 익숙해진 가랑일섞인 담배연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값비싼 권연연기도 섞여있었던것이다.

《그는 줄곧 거짓말을 하고있어요. 며칠 기다리라라는것은 우리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거예요. 밀영의 실패가 사령관동지께 보고될가봐 두려워서 우리를 잡아두자는거예요.》

《...》

두성은 출입문가에서 떠나지 않던 참모장을 살피었다. 다시금 몸으로 오한같은것이 쭉- 흘러갔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곳을 떠나야 해요.》

《예?》

참모장은 며칠후에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명령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난다는것인가. 순간 김정숙동지의 침착하고 또렷한 음성이 그의 고막을 쩍- 하고 두드렸다.

《우린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예?!》

《빨리 가서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누구도 모르게!》

《예?... 예!》

두성은 자기가 들어있는 귀틀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머리속은 혼란되어있었다. 참모장, 밀영책임자의 명령을 어기고 은밀히 빠져나가는것,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김정숙동지를 따르는데 습관되어있었다. 마안산에서 《민생단》련루자의 혐의를 받고 불행한 아동단원으로 있을 때부터, 소년유격대원으로 입대하였을 때부터 그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이라면 사소한 의혹도 없이 따랐다.

이때도 그는 김정숙동지의 결심에 의혹을 가진것이 아니었다. 다만 유격대원인 자기들이 유격대밀영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꿈에도 상상할수 없었던 정황에 크게 혼란되었을뿐이었다. 왜 이렇게 서둘러 떠나시려는것인가. 여느때라면 그런 현상과 맞서서 타협없이 투쟁하시었을 그이이시었다. 청봉밀영에서도 그러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 내리신 결심이니 달리

는 할수 없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것이였다.

하여 그는 지체없이 행동을 하였다. 마침 귀틀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른 귀틀집으로들 간것 같았다. 참모장이 그들을 다 불러갔을수도 있었다. 두성은 어제밤에 남모르게 꾸러놓았던 배낭을 끄집어냈고 끄집어 낸 흔적이 없이 해놓는것도 잊지 않았다. 문이 덜컥 소리를 냈을 때는 화탁탁 놀래여 배낭을 감추기까지 했다. 세찬 바람때문임을 알고야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무섭게 두근거렸다. 입대이래 이런 비상한 정황에 처해본적은 아직 없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빠져나와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야 안도의 숨이 나왔다.

그사이 바람은 갑절로 세차졌다. 뽕-뽕- 태질하는 바람에 주위의 수림이 쓰러질듯이 비명을 지르고 뽕안 눈발이 지척을 분간할수 없게 하고 있었다...

귀틀집안으로 들어선 두성은 온몸의 피가 얼어 드는듯 했다.

김정숙동지께서 침상에 쓰러져계시었던것이였다.

문소리에 그이께서는 힘들게 몸을 일으키시었다. 창백하고 무섭게 수척해지신 얼굴, 피로와 병마는 너무도 심했다.

《저- 떠나더라도 몸조리를 좀 하고 떠납시다. 예?》

《안돼요!》

《지금은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한발자국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놀랍게도 김정숙동지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건 참 좋구만요!》

《예?》

《누구도 모르게 빠져나갈수 있을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설혹 우리가 떠난걸 안다고 해도 우리의 자취를 찾지 못하게 해줄거예요.》

병색과 피로가 무섭게 실린 창백한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두성의 가슴을 저미는듯 아프게 했다. 무엇이, 누가 김정숙동지를 이런 몸으로 이런 눈보라 천리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였는가. 참아야만 하는 분노가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어서 떠나자요.》

문가를 향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 비칠거리시었다.

두성은 황급히 앞을 막아섰다.

《지금은 못떠납니다. 그 몸으론 안됩니다. 떠나도 하루이틀 지나서...》

김정숙동지께서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시었다.

《두성이, 우린 떠나야 해, 오늘 그것도 지금 즉시! 래일은 늦고 한시간후도 늦을수 있어.》

출입문에 물러와 부딪치는 눈가루의 사태가 사나운 파도소리처럼 쑥- 하고 들렸다.

《저 소리를 들어봐. 두성이, 저건 우리더러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 소리야. 눈보라는 항상 우리의 편이였어. 지난해 남파자에서 몽강으로 나

을 때 부후물등판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 안나? 왜놈들은 우리를 눈속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게 하려고 발악하지만 진짜 눈속에서 혼이 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왜놈들이라던...》

두성은 머리를 들었다.

《난 눈보라가 무섭지 않아요. 그저 난-》

《장해, 두성이. 우리야 이런 눈보라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 처창즈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떠날 때도 눈이 내렸잖어. 그때 그 눈이 왜 그리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던지...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이게 우리의 노래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총을 메면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걱정말어. 이 김정숙인 사령부에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문을 나서자 구름처럼 물려온 눈보라가 기다렸던듯 그들을 휘감았다...

### 3

세상은 온통 유사이전의 혼돈속에 빠져버린듯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바다위를 눈보라의 구름이 수백수천의 말무리처럼 가로세로 질주하고있었다.

눈구름에 휩싸일 때면 모든것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곤 했다. 수림의 거뿔거뿔한 나무줄기들도 눈우에 옷초리만 내밀고 바람에 아우성치던 잡관목들도 때늦게 떨어져 눈속에 묻히지 못하고 눈우로 굴러다니던 락엽들도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곤 했다. 눈앞에는 오직 광란하는 눈의 장막뿐, 그때에는 눈도 검은색으로 변하곤했다.

그 검은 눈보라가 몇으면 바람이 휘몰아다 쌓은 눈의 파도가 험준한 산악처럼 눈앞을 짝 채운다.

《뒤를 잘 살피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한두번이 아니게 말씀하시였다.

이 길은 참으로 두성이 이제껏 걸어본적 없는, 앞으로도 걸어볼수 없을 그런 길이었다.

앞에서는 어느 구석에서 언제 왜놈 《토벌》대의 총구가 나타날지 몰랐고 뒤에서는 언제 참모장이 그들을 잡으라고 보낸 추격자들이 나타날지 몰랐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죽음이 조여들고있는 길이었다.

《우리는 왜놈 <토벌>대와 만나도 안되고 참모장의 추격대와 만나도 안돼요. 빨리, 한시라도 더 빨리 앞으로만 가야 해요.》

두성은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서두르시는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언제 보나 침착하시고 서두르거나 당황해하는적이 없으시였다. 공포나 불안과는 인연이 없으시였다. 두성에게는 그이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초인간적인 존재로 느껴지기도 했었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을 두성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소부대는 며칠째 식량난을 겪으며 적 《토벌》

대의 검질긴 추격과 싸우고있었다.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

산속에서 만난 주인없는 빈집이 소부대성원들에게는 하나의 등대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집의 부엌밑 움에는 쌀자루까지 있었다. 격통치구역으로 끌려가면서 집주인이 유격대를 위해 남겨놓은 것인듯 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 전례대로 빈 쌀자루에는 돈을 넣어 도로 움에 넣었다.

모두들 방안에 들어가 쓰러지듯이 누웠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좀 쉬세요. 쌀이 생겼는데 오늘은 제가 떡을 해드리겠어요.》

모두들 오래간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하게 된다는 룡담으로 들었다. 두성이라도 그렇게 알았다.

그런데 얼마후 식사를 하라고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일어나 앉은 그들은 깜짝 놀라고말았다. 진짜로 기름기 찰찰 도는 떡그릇이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것이 아닌가.

김정숙동지께서 어떻게 떡을 하셨는지는 도무지 알수 없었다. 모두들 환성을 울리며 떡그릇을 받아놓았을 때 적 《토벌》대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집안으로 총탄이 마구 날아들었다. 담벽이 총탄에 맞아 푸실푸실 떨어졌고 문살이 지끈지끈 부서져나갔다.

《뒤문으로 빠지라!-》

두성은 어떻게 뒤문으로 빠져 산에 올랐는지를 몰랐다. 소부대성원들은 다 무사했다.

그런데 인원을 점검해보느라니 뜻밖에도 김정숙동지께서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당황했다. 있을수 없는 일이었던것이다. 행군에서나 전투행동에서나 언제나 뒤지는적 없고 앞장에서 달리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혹시?)

두성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적 《토벌》대의 총성은 아직도 울리고있었다. 모두들 도로 산비탈을 내렸으나 소리쳐 찾을수도 없었고 마음만 더욱 당황해졌다.

그때 늙은쿨을 헤치며 내려가던 두성은 《동무들! 동무들!》

하는 나지막한 소리를 들었다. 겨우 들릴만큼 낮은 목소리였으나 두성은 김정숙동지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무사하셨구나!)

그는 허둥지둥 그 소리를 찾아 달려내려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을 지신데다 앞에는 작식도구를 두손으로 부둥켜 안고계시였다.

《에익, 이게 뭐라고...》

하고 작식도구를 받아안았던 두성은 그만 목이 짹 메여버렸다. 버치안에는 그들이 먹지 못한채 내쳐두고왔던 떡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던것이다.

《아니?! 정숙동문 언제 이걸 다...》

모두들 너무도 놀라와 눈이 휘둥그래지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였다.

《가져와야지. 이렇게 맛있는 떡을 왜놈들에게 한개라도 넘겨줘서야 되겠어요?》

그때 두성은 몇년전 유격근거지 방어전투에서

죽가마가 한창 쪼을 때 적 《토벌》대가 달려들자 그이께서 쪼는 죽가마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달리시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상기했었다. 그때 죽가마를 받아들던 대원들은 손을 댔다고까지 했다.

대원들은 김정숙동지를 두고 이렇게 감탄했다.

《정말 정숙동문 온몸이 그대로 답이요!》

그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한번 두려움이 나 당황, 불안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이의 표정과 눈길, 어조에는 불안과 초조가 짙게 어려있었다. 두성이가 따라가기 어려워 헐떡거리는것을 보시고서야 걸음을 잠깐 멈추시었다.

《잠깐 숨을 돌리자요.》

두성은 털썩 눈우에 주저앉았다. 눈보라는 그를 당장 날려버리거나 눈덩어리로 만들어버릴 듯 휘몰아쳐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건넌 자세 그대로 서계시었다.

뽀얀 눈발속으로 이미 지나온 뒤쪽을 예리하게 살피시었고 다음은 가야 할 앞을 보시었다. 그이의 이런 모습은 너무도 눈에 설은것이어서 두성은 저도모르게 불쑥 물었다.

《누님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

그이께서는 두성에게 돌아서시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그의 머리너머 앞을 살피고계시었다.

《있지. 무서울 때가... 지금같은 때...》

《예?》

두성은 곧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적 《토벌》대와 맞다들려도 그것은 죽음이었으며 참모장이 보낸 추격자들과 맞다들린다 해도 그것 역시 죽음이었다.

두 총구의 사이에 있는 자기들의 처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은 두성은 온몸이 떨려왔다. 누가 이런 역경에 처해보았을가.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죽을수도 있다는것때문에 무서운게 아니야. 우리가 사령부에 가닿기전에 죽을수도 있다는것때문에 무서운거야.》

《...》

《두성이도 참모장이 묻던 말을 들었지? 사령부가 그냥 그곳에 있는가고 하던... 그는 지금 적들과 그 어떤련계를 가지고있는것이 틀림없어. 식량공작이라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자가 갈 길은 명백해. 그러면 왜놈들은 그자를 통해 우리 사령부에 달려들거야. 우린 이 사태를 빨리 장군님께 보고드려야 해. 장군님께 이 사태를 보고드리기 전에는 우린 쓰러져도 안되고 죽어도 안돼.》

그이께서는 문득 말씀을 끊으시었다. 눈발속을 노려보시는 눈에서 번개섬광같은 불꽃이 번갯했다.

《이제는 알만 해요! 그자가 시간을 끌고있는것은 변절할것인가. 변절하지 말것인가 하는 망설임때문이 아니예요. 변절은 이미 결정된거예요.》

두성은 김정숙동지께서 이제까지 앞길에 있을 수 있는 위험보다 참모장이 왜 변절의 시각을 끌고있을가 하는 생각을 더 하고계셨음을 깨달았다.

《그놈은 어느때, 어디서, 누구에게 투항해야 더 큰것을 얻을수 있겠는가를 타산해보고있는거예요. 결정하지 못한것은... 그자는 <토벌>대 장교나 경찰나부랑이에게 투항하고싶지는 않을거예요. 변절을 해도 크게 하려는거예요!》

눈은 무릎을 쳤다. 때로는 세찬 바람에 눈이 몽땅 날려가버린 등성이가 있는가 하면 눈이 휘몰려있어 허리를 치는 곳도 있었다. 뽀얀 눈보라는 하늘과 땅을 꼭 메우고있었다.

김정숙동지가 아니었으면 두성은 방향을 잃은 지 오래였을것이다.

《두성인 설마 참모장이 그렇게까지 될것인가 하고 생각할수도 있어. 그러나 사령부의 안전, 장군님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설마란 있을 수가 없어. 장군님은 곧 조선혁명이기때문이야.》

두성은 왜 밀영에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이의 안색이 더 어두워지셨는지를 깨달았다.

눈은 갑자기 허리를 쳤다. 가슴노리까지 눈속에 빠져들어갔다. 허우적거리며 헤쳐나가던 두성은 다리에 웬 살아있는 물체가 부딪치는 바람에 와들 놀랐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었다. 온기를 가진 살아움직이는 존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총을 벗겨들었다.

눈속에서 불쑥 노루의 머리가 솟아올랐다.

그놈은 사람들을 보고는 화닥닥 뛰어오르더니 도망치려고 헤뎠었다. 그러나 눈속에서 허우적대기만 할뿐 얼마를 못가 눈보라가 과도처럼 몰려들자 눈속에 도로 머리를 박고말았다. 그리고는 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저거 노루가 죽은게 아닐가요?》

두성의 물음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동패자밀영에 이른 때부터 처음으로 들어 보는 웃음소리였다.

《저건 사람보다 눈보라가 더 무섭기때문에 저러는거야. 주위를 둘러봐. 눈보라밖에는 움직이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거뭇거뭇한 형상으로 밀려오고 밀려가는 눈보라, 온갖 거칠고 험악한것은 모두 휩쓸어가는듯 하였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웃고계시었다.

《이런 눈보라속으로는 <토벌>대도 추격자들도 노루처럼 움직이지 못해. 모두 굴속이나 눈속에 박혀있어.》

앞에서 사나운 맹수의 포성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두성은 멈칫했다.

《앞에 무슨 짐승이...》

《일없어. 이 세상에 왜놈보다 더 악착한 짐승은 없어. 그리고 저건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야 눈보라소리, 바람소리야 짐승들은 모두 눈속에 숨었어. 《토벌》대도 추격자들도 얼씬 못해. 두성이, 여긴 우리의 활무대야.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무대야. 노래를 불러도 되고 춤을 추어도 돼!》

두성은 불현듯 눈보라가 질겁할만큼 높이높이 소리를 질러보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자신이 그런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로 느껴졌다.

《정숙동지, 우리 노래를 부르지요! …》

《그래, 노래를 부르자. <혁명군의 노래>를!》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

눈속에서 노루의 머리가 다시 솟아올랐다. 눈보라소리가 아닌 피가 툭툭 튀고 생이 약동하는 소리가 그놈을 놀라게 했던 모양이었다.

노루는 멍-하니 머리를 든채 멀어져가는 두모습을 보며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또 한차례의 눈보라가 밀려오자 눈속으로 숨어버렸다.

눈보라가 휩쓸어간 눈우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 4

하루, 이틀, 사흘... 가도가도 끝없는 밀림과 눈의 바다. 수해천리, 설해천리였다.

사흘째 되는 날 두성은 앞에 서서 눈길을 헤쳐 나가고있었다.

《방향만 가르쳐달라요. 난 남자란 말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남자라는 사실에 짐짓 놀래신듯 눈여겨보고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래, 두성인 남자지. 사내대장부야, 끝끝한...》

그런데 마지막말은 왜서인지 멀어지며 들리었다. 두성은 돌아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 나무에 의지하여 한자리에 그냥 서계시었다.

그는 달려갔다.

《웬일이예요.예?》

《일없어, 두성이. 가자구.》

그러면서도 그이께서는 그대로 서계시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게 질린 얼굴, 쥐가 인듯 떨리며 나무아지를 틀어쥐는 두손.

《아!-》

두성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콜라병! 영양실조와 추위로 인한 죽음의 병! 이 병에 걸리면 손발이 까드라들며 온몸이 강직되고 마침내는 운명하게 된다.

김정숙동지는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신 몸이었다. 게다가 병에 시달리고있었다. 이제껏 걸어온 것만도 기적이였다. 두성은 이제야 자기가 여태껏 김정숙동지를 그 무엇도 쓰러뜨릴수 없는 불사신처럼 여겨왔고 믿어왔음을 깨달았다.

《정숙동지!》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무밑의 눈우에 쓰러지시었다. 손발은 점점 더 까드라들고있었다.

《누님.》

두성은 그이의 까드라드는 손을 주물러드려 펴려고 애썼다. 얼음보다도 더 차갑고 경직되어버린 손.

두성은 어쩔바를 몰랐다. 그가 알고있는것이란 이럴 때는 불을 피워 온기를 주고 뜨거운 물이나 미음이 필요하다는 두가지뿐이였다. 그는 허둥지둥 돌아쳤다. 눈속에서 다른 삭정이를 파헤쳐 끄집어냈다. 손이 굵히고 얼굴이 핏붉었으나 아픈줄을 몰랐다.

《누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그는 줄곧 중얼거렸다.

《조금만... 조금만...》

눈속에서 겨우 끄집어낸 삭정이들을 모아놓고 성냥을 찾았다. 성냥을 꺼내들고 켜려고 하니 나무들이 온데간데 없었다.

눈구름속에 나무가지들이 휘말려 날아가고있었다.

그의 두눈으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눈물은 두볼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시 나무삭정이들을 굵어모았다. 가까스로 나무 한아름을 모아들고 김정숙동지께로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그대로 나무밑에 쓰러져계시었다.

두성은 왈칵 겁에 질렸다.

《누님! 누님!》

김정숙동지의 손발은 완전히 경직되어있었다. 그러나 두성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며 말씀하시었다.

《일없어. 두성이. 가자구. 나를 일으켜주렴.》

《조금만... 조금만...》

그는 나무를 쌓아놓고 성냥을 켰다. 그러나 눈보라는 불꽃이 일기 바쁘게 기다렸던듯 확- 하고 날려가버렸다. 다시 켰다. 두번, 세번... 불꽃은 그냥 날려가버렸다. 불꽃이 날려가버릴 때마다 눈앞은 천길나락속에 떨어진듯 캄캄해진다. 목놓아 울고싶었다.

그는 눈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안에서는 얼마간 바람을 피할수 있을것이였다.

얼고 바람에 다져진 눈은 얼음처럼 굳었고 날카로웠다. 장갑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조금만... 조금만...》 하고 줄곧 중얼대며 눈을 파헤쳤다. 드디어 몸 하나가 들어갈만 한 눈구덩이가 파졌다.

그때 그는 머리우에서 울리는 또렷한 음성을 들었다.

《두성동무!》

머리를 든 그는 기절할 지경으로 놀랐다.

김정숙동지께서 눈구덩이옆에 우뚝 서서 내려다보시는것이 아닌가! 푸른빛이 도는 얼굴, 끈게 퍼지 못한채로 구부정한 팔.

두성은 휘둥그래진 눈으로 그이께서 쓰러져계시던 나무밑을 돌아보았다.

그리고서야 벌떡 뛰어 일어섰다.

《정숙동지! 누님!-》

그는 목놓아 울었다.

《울기는? 난 죽지 않아. 가자요, 어서.》

어떻게 일어나실수 있었을가. 콜라병에 걸리면 모든 운동기능이 상실되고 사고능력도 정지된다. 그런데... 그런데...

《자- 어서!》

그이께서 한걸음 떼시었다. 부지직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얼어버린 군복에서 살얼음 부스러지

는 소리, 그러나 두성에게는 그것이 그이의 경직 되었던 몸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가자, 두성이. 저기 보이는 저 별이 북두칠성이야. 저 별빛아래서 장군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계셔.》

눈보라가 휘몰려갈 때는 뽀얀 장막에 사라졌다가도 다시 더 명롱히 반짝이는 북두칠성.

《우리는 순간도 지체하면 안돼요. 그자가 적들에게 투항변절하고 사령부의 비밀을 적들에게 볼기 전에 우리는 사령부에 가닿아야 해요.》

두성은 김정숙동지를 부축하고 한걸음한걸음 내디디었다. 눈보라가 장막처럼 막아서는 길.

김정숙동지의 얼굴에서는 식은 땀이 흐르고있었다. 두손은 제대로 펴지지 않은채였다. 그러면서도 줄곧 되뇌이고계시었다.

《가자요. 그냥... 그냥...》

《누님!》

그 어떤 의지가 일어서시게 한것인가. 그리고 한걸음 또 한걸음 내짚으시게 하는것인가.

김정숙동지를 부축하고 걷는 두성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산산이 찢기는 듯 아팠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김정숙동지를 부축해드리고있다는 의식이 아니었으면 그는 열번도 더 쓰러지고말았을것이다.

그는 이 의지의 힘으로 내짚는 걸음이 얼마 가지 못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경직과 경련이 점점 더 강렬하게 온몸을 휘감아버리리라는것도. 그때에는...

그 순간은 피할수 없을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계실것이였다. 그이께서 이제까지 간호한 폴라병환자들이 얼마였던가.

그러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한걸음 또 한걸음 그냥 내짚고계시었다. 그이의 손이 점점 더 굳어지며 떨리고있음을 두성은 느꼈다.

《정숙동지!》

《어서!... 우리는 꼭 가야 해. 기어이...》

한걸음 또 한걸음 걷는다. 가장 가슴아픈 절망의 순간이 세걸음앞에 있을지 네걸음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며 두성은 걷는다. 이제는 눈보라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점점 가빠지시는 그이의 숨소리만 공간속에 가득했다.

《두성이 아버지... 참 훌륭한분이였지 ... 근거지 인민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지.》

《...》

두성의 아버지는 근거지 식량부장이였다. 그러나 마지막 강녕이알까지 근거지인민들을 위해 내놓고 자신은 굶어서 돌아갔다.

《그런데 나쁜 놈들은... 두성이 아버지를 <민생단>이라고... 두성인 <민생단>련무자라고...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한걸음 또 한걸음, 아, 날개라도 있다면 훨훨 날아가련만! 그러면 김정숙동지도 구원할수 있고 장군님께 모든 사연을 눈물속에 말씀드리련만...

무릎을 치며 매달리는 눈, 앞길만이 아니라 숨길조차 막으려고 날치는 눈보라...

《나도 갈아요.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두만강변의 회령에서 태어났어요. 오

산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랐어요...》

말씀은 토막토막 끊기며 들려왔다. 그사이로 요동치듯 스며드는 눈보라소리. 말씀은 금시 푹 끊어져버리고 눈보라소리만이 주위의 공간을 채워버릴것 같았다. 그러나 말씀은 토막토막 끊기면서도 완강하게 그냥 계속되였다.

《두만강을 건너 이국땅으로 갔어요... 왜놈들때문에... 지주놈들때문에... 눈물속에 고향을 떠났어요...》

《...》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것인가. 마치 막시각이 왔음을 그이께서도 느끼신때문인가. 두성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듯 한데 그이의 음성은 토막토막 끊기면서도 완강하게 이어지고있었다.

《이 국땅에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왜놈들때문에... 언니는 지주놈의 집에 빚값으로 끌려가고...

오빠는 그놈들의 행패로 불구가 되고... 어머니와 성님은 왜놈들의 <토벌>에 희생됐어요... 조카의 행방은 모르게 되고... 다음은... 동생을 잃었어요... 오빠도 잃었어요. ... 모두 왜놈들에게...》

《정숙동지.》

두성은 그 한마디한마디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극력 하는적 없으시던 김정숙동지, 언제나 미소를 짓고 지칠줄 모르시는 활기에 넘친 그이께 이런 참혹한 인생사가 있을줄을 상상이나 했던가. 한마디한마디가 그대로 피눈물을 토하는듯 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내가 사랑하고싶었던 사람들은 모두 빼앗겼어요. ... 왜놈들에 대한 증오밖에는 남은것이 없었어요... 부모형제들의 원수를 백배로, 천배로 갚기 위해 살았어요. 복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총, 총을 이 손에 잡았을 때는... 맹세했어요... 총알 한알을 백발, 천발로 알고 왜놈들을 쏘고 또 쏘겠다고... 복수가 나의 생명이었어요...》

두성은 바람소리도 눈보라소리도 듣지 못했다. 들리지 않았다. 다만 금시 푹 끊겨버릴듯 더욱더 가빠지는 숨소리,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고 그랬다가는 다시 흐려지는 말소리만이 들렸다.

《제발, 제발 그만 하십시오!》

하고 소리치고싶었다. 너무도, 너무도 가혹한 이야기였다. 두성이라도 가슴아픈 사연을 안고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끝없는 불행의련속은 아니었다.

《정숙동지!》

문득 두성은 그이께서 자기에게가 아니라 그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계심을 깨달았다. 그이께서는 자신과 이야기하고계시었다. 끝없는 수난과 불행, 고통에 찬 생을 자신에게 더듬어보이고계시었다.

《나는 그때 내 한평생을, 이 한몸을 오직 원수들과의 싸움에 바치리라 결심했어요... 복수로만, 오직 복수로만 살려고 결심했어요... 내 가슴속엔 남은것이란 복수밖에 없었어요...》

한걸음 또 한걸음. 이제는 눈의 차가움도, 바람의 칼날같은 예리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두성은 걷고있는것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인듯했다. 이제 몇걸음이나 더 걸을수 있을까.

김정숙동지께서 쓰러지시면 자기도 쓰러져버릴 것이며 더는 일어서지 못하리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이의 음성은 각일각 낮아져가고있었다. 알아들을수 없을 정도로 흐려지고있었다. 이제 몇발자국을 더 걸으실수 있을까...

《그해 봄 만강에서였어요.》

그이의 음성이 다시 또렷해지시였다.

《만강의 봄, 그해 봄은 잊을수 없는 봄이었어요. 영원히 잊을수 없는...》

그날 나는 만강의 시내가에서 빨래를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뒤에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렸어요.

<고향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만. 노래를 부르는 걸보니.>

나는 돌아보았어요. 그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어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계셨어요.

나는 그때야 내가 빨래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유년시절이 없는 내가...

나에게는 유년시절이 없었어요. 무슨 노래다운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러나 그이께서는 나의 노래를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아름다운 노래로 들어주시었어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었어요.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지...>

그이께서는 꽃속에 묻혀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고향 만경대의 봄에 대하여 말씀하시었어요.

그때 나는 장군님께 장군님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해달라고 하였어요. ... 아... 그때 왜 그랬던지... 이국땅에서 부모님들을 다 잃고 동생도 잃고... 나는 장군님께서 그런 너무도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신줄은 몰랐어요. 언제나 밝고 환한 미소로 대원들과 인민들을 대해주시는 장군님께서 그런 아픔을 안고계신줄은 몰랐어요. 더우기 어머니와의 마지막리별은... 장군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한가슴에 안고계시는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미소를 짓고계시는 장군님, 장군님의 것처럼 밝고 환하신 미소, 그것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는 곳에 있어요. 그때, 아 그때!...》

한걸음, 또 한걸음... 만강, 5월의 만강, 두성이 장군님께서 주신 군복을 입고 늘 장군님을 모시고 다니며 장군님의 말씀을 들던 그 봄날, 그날의 봄빛은 옅고 떨고 굵주려온 두성의 어린 뺨이 처음으로 맞이한 자애의 햇빛이었다. 그날의 한없는 따뜻함, 행복감이 다시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 하다. 여기가 어디인가 정녕 설해천리 눈보라속이란 말인가.

《...그때 나는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만강의 봄, 그봄은 나의 생명이었어요. 나는 그때부터 혁명가의 웃음, 혁명가의 미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의 생명이었어요.》

두성은 여전히 걷고있었다. 그리고 문득 자기가 김정숙동지께 이끌려서 걷고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주신거예요. 그분이 아니시였으면 없었을거예요. 오늘의 이 생명도...》

《정숙동지!》

두성은 부르짖었다

《저도... 저도... 저의 생명도 장군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는 김정숙동지의 손이 자기의 손을 굳세게 잡아 이끌어주심을 느꼈다. 그것은 이미 경직되어 언나무가지처럼 느껴지던 손이 아니었다. 온기가 느껴지고 약동하는 힘이 느껴지는 손길이었다.

두성은 왈각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소생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직 하나, 의지로 《졸라병》의 마수를 산산이 부셔버린것이였다!...

《우리의 생명은 모두 장군님께서 주신거예요.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전체에게 생명을 주고계셔요. 장군님은 우리의 생명이예요. 우리의 제1의 생명이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제1의 생명을 지켜야 해요.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게... 지켜야 해요!》

《정숙동지!》

두성은 발이 걸쳐어 비칠거렸다.

눈속에서 고목그루터기처럼 빠져쳐나온 《토벌》대군화를 신은 발이 보였다. 얼마 앞에서도 보였다. 옆에서도 보였다. 고목그루터기들속을 걷는듯했다

《보지 말아요. 얼어죽은 왜놈들이예요. 이 눈보라속에서 죽은 놈들이예요.》

썩- 하는 거세찬 파도소리, 그것은 끝날줄 모르는 설해천리, 수해천리의 설레임소리였다. 세상 만물을 눈속에 파묻어버리고 얼구어버리는 죽음의 파도소리였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우리는 살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장군님의 품속에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죽지 않아요!》

썩- 하는 설레임소리.

허나 그것은 모든것을 얼구어버리고 물어버리는 파도소리가 아니었다. 가장 아름답고 강의하고 고귀한것에게만 활무대를 열어주는 생의 파도소리였다.

×

《김정숙동지전기》에서는 이 불멸의 사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수록하고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는데를 제일 생명으로 간주하시고 생사판가름의 길을 한치한치 걸어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몽강현 동패자로부터 수해천리, 설해천리를 헤쳐 마침내 사령부에 도착하시였다...》

## 만경대에서의 뜻깊은 하루

주체37(1948)년 8월 어느 일요일 만경대에서였다.

그날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평양으로 온 한 혁명가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숙소프락을 조용히 거닐고있었다. 그가 바로 통일혁명가 성시백동지였다.

멀리서 승용차 한대가 달려오더니 숙소앞에 와 멎었다. 차안에서는 한 일군이 20대의 젊은 청년과 함께 내렸다.

그 청년은 성시백동지를 보자 《아버지!》하고 부르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순간 성시백동지는 《아니! 네가 세창이로구나.》 이렇게 웨치며 달려와 안기는 아들을 와락 그러안았다.

아들을 그러안은 성시백동지도 눈물을 머금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도 두볼을 적시었다.

아들은 남조선에 있는 어머니생각이 북받쳐올라 《아버지, 어머니도 편안하신가요?》라고 물었다.

《응, 어머니도 잘 있다. 어머니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너희들을 보고싶어 한단다...》

그들은 그동안 서로 가슴에 품고있었고 또 하고싶었던 여러가지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참으로 뜻밖의 감격적인 혈육의 상봉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도 이날의 이 상봉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깊은 사연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남조선혁명가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주시려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여있었다.

그 얼마전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성시백동지와 담화하시면서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관계부문 일군을 통하여 평산에 있던 그의 아들이 평양에 와서 중앙당 학교(당시)에서 공부하고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하시여 이날의 상봉을 마련해주셨던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전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후에는 남조선에서 통일혁명을 하느라고 성시백동지가 오래동안 아들과 헤어져있으니 이날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함께 지내

라고 그들을 승용차에 태워 만경대에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뒤따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몸소 만경대에 오시여 그들을 만나주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성시백동지의 아들을 보시자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아버지와와 상봉을 축하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라고 말씀하신 후 그가 지난날 아버지와 헤어져 신 경위에 대하여 들으시고는 《지난날 많은 고생을 하였어요. 먹을것도 못먹고 입을것도 못입고... 살뜰한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라고 말씀하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 끝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만경대로 나오신다는것을 알려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동무들 부자간의 상봉을 매우 기뻐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성시백동지와 그의 아들 성세창동무의 가슴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형언 못할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졌다. 그런데 때마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고향집앞에 와서 멎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며 아, 벌써 왔구만, 그동안 건강은 어떻소, 좀 쉬었소? 하고 말씀하시었다.

이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성시백동지의 아들을 소개해드리시었다. 그리고 그의 생활경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성시백동지에게 큰 아들이 있다고 기뻐하시며 성세창동무를 보시며 해방전에 아버지가 없이 고생이 많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앞으로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도 어려워하지 말고 당에 제기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그의 전망문제도 의논해주신후 성시백동지에게 아들걱정은 말라고, 아들은 당에서 맡아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성시백동지와 그의 아들은 만경대에서 뜻깊은 하루를 보내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자애깊은 사랑과 뜨거운 은정에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김정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들을 위해 한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동지애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지애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 공산주의적도덕의리가 최대한으로 발양된 비범한 혁명가로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동안 해놓은 그 모든것은 다 동지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것이였지 자신을 위한것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동지애는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헌신성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습니다.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도 그 본질은 동지애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숙은 여러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주었습니다. 그는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사하치기에서 전투를 할 때 내 주변에서는 아슬아슬한 정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무리의 적들이 나한테로 은밀히 접근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투를 지휘하느라고 그런 정황이 조성된줄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숙이 아니였다라면 큰일이 일어날번 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싸갈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 구룡연길목에서

오재신

붉게 타는 단풍잎  
이끌저끌 나뭇기는  
금강의 가을  
구룡연 오르는 길목에 서니

금시라도 저기  
바람결에 옷자락 날리시며  
하늘땅 가득 미소를 채우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마주오실듯

그러면 내 달려가 한품에 안기며  
쌍이고쌍인 사연  
다 아뢰이고싶어라  
그리고 말씀올리고싶어라  
좋은 날 못보신 구룡연에  
꼭 오르시자고

항일전의 그 나날  
달밝은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금강산의 제일경치 그려보시며  
해방의 날엔  
모두 함께 가보자 하시더니

금강산을 찾으신 그날엔  
아버이수령님 안녕 위해  
모처럼 마련된  
구룡연 탐승의 길도  
뒤로 미루신 어머니  
다시 오마 약속만을 남겨두시고...

그날에 어머니를 기다려  
금강산의 푸른 숲 아름다리 년륜들마다  
그리움이 감기고 감겨 수십년

위대한 장군님 해빛아래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금강산  
그 모습 바라볼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어머니 생각이여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결에도  
문득 들려오는 어머니의 발자국소리  
구룡연의 폭포수보다 더 크게 들려와라

금강산 일만경치보다  
먼저 이 가슴에 찾아오는  
아 어머니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어!

## 광선사진관앞에서

현채련

아직도 옛모습 그대로  
키낮은 수수한 집이건만  
온 나라가 다 알아  
끊임없이 발걸음 이어지는  
광선사진관

일제의 구두발에 짓밟혀 신음할 때  
구차한 살림에도  
사진을 찍고 싶어  
단벌옷을 바꿔 입으며  
설음안고 찾아오던 사진관이여!

그 언제부터였던가  
찾아오는 사람들 가슴마다  
혁명의 뉘를 심어주며  
조국해방의 미래를 밝혀주는  
투쟁의 사진관이 된것은

깜장치마에 자주색저고리 산뜻이 차려입고  
지하공작의 길에 오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신파에 나오신 그때부터였으니

해방의 봄빛 파사로이 비끼어  
사람들 얼굴마다 그늘을 가져주고

밝은 웃음 피어나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는 모습  
사진에 남기지 않았던가

하지만  
어이하여 그 어이하여  
그리도 인자하시고  
그리도 인정 많으신  
빨찌산어머님 모습만은  
한장도 남기지 못하였느냐...

내 이곳을 찾을 때마다  
남먼저 발걸음 이어지는 광선사진관  
일제놈들과의 투쟁속에서  
지하공작의 날과 달을 맞고 보내신  
빨찌산어머님 모습만이  
내 눈앞에 환히 어려오거니

세월이 흘러  
력사가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광선사진관이여  
너는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위업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높이 솟아 영원토록 빛나리라  
력사의 증견자 불멸의 기념비로!

가사

## 어머님의 한생

홍민식

백두의 포연이 댄 군복속에 흘렸습니다  
사령부 안녕지켜 방패되어 흘렸습니다  
아 어머님 생은 짧아도 빛나는 한생  
수령결사옹위의 만년초석 쌓으셨습니다  
  
광명성 안아올려 대통운을 주셨습니다  
백두산 눈속에서 조선의 봄을 꽃피웠습니다

아 어머님 생은 짧아도 불멸의 한생  
내 조국의 창창한 만년미래 열으셨습니다  
  
두분의 장군의 총대위업 받드셨습니다  
두분의 태양의 주체위업 빛내셨습니다  
아 어머님 생은 짧아도 위대한 한생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에 영원합니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묘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주로 묘사의 련결로 이야기가 흘러야 하며 대사나 주정도로, 설명은 거기에 보충적인 작용을 하여야 한다.》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심리묘사이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기본은 사색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묘사하여야 성격의 본질적특징과 사고방식을 집중적으로 발현시킬수 있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는 인물의 심리와 작가의 얼굴을 다같이 볼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는 인물과 작가자신의 심리가 비끼고 그들의 사상감정으로 물들여지고 정서적평가에 의하여 굴절되여야 소설문학의 특성에 어울릴수 있고 독자의 관심도 끌수 있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는 사실주의적묘사의 기본형태이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그리는 환경을 그리는 활것없이 세부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 론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선군문학

김순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빛나는 로정을 따라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 주체문학은 선군위업이 전면적으로 꽃피난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횡포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난관 등 최악의 역경이 막아나섰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력사의 온갖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붉은기를 결사수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격동하는 선군현실을 반영한 선군문학창작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가 창조하는 선군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높은 단계이며 선군위업수행에 참답게 복무하는 문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마땅히 이 위대한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 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찌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혁명적인 문학작품이 발휘하는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끌어내가는데서 천만군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우리 군

대와 인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우리 선군문학은 무엇보다도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그 본색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시대에 창작된 수령형상문학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수령영생위업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이 새롭게 출현한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20세기 90년대 중반기에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너무도 절통한 상실의 아픔을 당하였다.

온 겨레가 땅을 치며 몸부림치고 세계 자주적 인류가 우리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깊은 애도에 잠겼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가슴에 사무쳐와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한마음으로 수령님의 위대성과 받아안은 은덕의 크기를 더더욱 뜨겁게 되새기며 수령님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나갈 억척같은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심원한 사상이 문학형상에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우리 문학은 시대와 인류의 뜨거운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수령영생위업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탐구 개척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 창작된 수령영생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문학은 수령영생주제의 작품을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히 창작하였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며》 등 수많은 서사시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영생》을 비롯하여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

희곡 《소원》 등 수령영생주제의 작품은 소설, 시와 가사, 극문학,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새롭게 출현한 수령영생작품들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그리움의 정서이다.

우리 작품들에 구현된 그리움의 사상정서는 지향의 숭고성과 확고성, 정서적울림과 여운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문문학이 형상의 갈피에 새긴 무수한 그리움의 세계와 대비할수 없는 성스럽고 고결한것이다. 그것은 그리움의 발현에서나 세기와 열도에서, 그리움이 안아오는 위대한 변혁과 창조에 있어서 그 심원한 미학적미를 새롭게 안겨주는 혁명의 성인에 대한 미증유의 그리움이다.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 원천을 둔

**김일성**민족의 고결한 민족적감정이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이 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한 민족적감정이 진실하게 깔려있다.

수령형상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다같이 모신 작품들이 훌륭하게 창작된것이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세상에 부럼없어라》등 큰 형식의 작품들에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의 형상과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다같이 모시고있다.

이것은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특기할 사변이다.

이미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서 수령과 령도자의 숭고한 형상을 새로운 미학정서적높이에서 창조한데 이어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 작품들에서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세기에 빛날 불멸의 형상으로 창조하여야 할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위인들의 숭고한 품모를 거대한 사회적사변들의 응축된 서사시적 화폭에서 훌륭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서사성과 서정성의 유기적인 결합에서도 모범을 보이고있는 성과작이다.

수령형상시가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이 전일적인 서정적화폭에서 숭고하게 형상된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을 창조한것은 총서작품들에서 시도되고 그 모범이 빛나게 창조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열병광장》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빛나는 화폭을 창조하였다.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는 온 누리에 존엄높이 떨치고있는 우리 조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총대, 위대한 선군으로 빛난다는 주제사상적과제를 제기하고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품모를 화폭에 감동깊게 부각하고있다.

우리 문학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적품모를 하나의 예술적화폭에 정중히 모시고 깊이 형상한것은 수령형상문학발전의 비약이며 혁신적인 면모이다.

우리 시대 수령형상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품모를 전면적으로 형상한것이다.

은 작품들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 불면불휴의 헌신적로고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선군장정의 야전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혁명무력을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시는 선군령장의 숭고한 형상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이와 함께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강계정신》, 《라남의 열풍》 등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에서는 선군령도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도록 우리 인민들을 이끄시며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감동 깊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형상은 시가문학에서 더욱 격조높이 창조되었다.

우리 시문학은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신념에 찬 정서와 민족적자부심에 넘치는 감정으로 다양하게 노래하였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전선길의 3일이야기》, 송년시 《눈이 내린다》, 서정시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등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의 선군장정을 노래한 수많은 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시찰로 한밤을 지새시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새벽을 맞으시며 근위병사들과 함께 야전식사를 하시는 감동적인 장면을 비롯하여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이 혈육의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모습을 랑만적정서가 넘치는 시적화폭으로 부각하고있으며 《전선길의 3일이야기》에서는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시여 그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사랑의 정깊은 세계를 뜨거운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언제나 선군장정의 야전길을 걸으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선군령장의 위대한 풍모를 노래한 서정시 《철령》은 반영하고있는 내용이 매우 풍부하며 정서적감흥이 강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우리 시문학에서 철령은 다양한 각도에서 깊은 미학적미를 안고 선군령장에 대한 칭송으로 깊이있게 시화되었다.

여기에서 서사시 《철령을 넘어》는 시대를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에 대한 깊은 철학세계를 정서적으로 일반화한 특별히 주목되는 작품이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선군위업과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인생관, 혁명관이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에 대한 진실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선군철학의 불패의 진리성과 무한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한 시문학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련을 헤치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찾으시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을 안겨주시고 밝은 미래으로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령도를 감동에 젖어 노래하고있

다.

장편기행시 《강성대국행진곡》은 불굴의 강제정신을 창조하시여 강성대국건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노래하고있으며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는 온 한해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회주의결사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장군님의 령도풍모를 뜨거운 시적화폭에 일반화하여 칭송하고있다.

특히 서사시 《20세기 령마루》에서는 위대한 선군령도로 20세기 마지막년대를 빛내이신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풍모를 세기의 교차점에서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돛에 즈음하여 창작된 장시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는 송가문학발전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명작이다.

장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장장 35성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헌신의 로고에 대하여 감동에 젖어 노래하고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선군시대의 견지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하고 있는것이다.

서사시 《백두산용암이 끓는다》, 전선종군시초중에서 《선군령장찬가》, 송년시 《2002년이여 우리는 너를 빨찌산해로 부른다》 등 많은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여 총대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총대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있으며 선군령도의 생활력이 발휘되고있는 현실속에서 시적계기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선군령장의 풍모를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미학적특징은 중요정치적사변들을 계기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노래한 작품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시작하신 40돛을 맞으며 창작한 시목은 《노래하노라 영광의 40년이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선로 30돛을 맞으며 창작한 시목은 《빛나라 2월의 강령이여》에 들어있는 여러편의 시들은 선군시대의 사상미학적관점에서 위대한 력사적사변들의 불멸의 의의와 그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시화하면서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이와 같이 선군시대 위인칭송시문학은 사상정서적지향과 시적일반화에서 새로운 미학적특징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혁신적면모를 뚜렷이 하였다.

선군시대에 꽃피난 우리 문학은 시대정신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개척으로 주체시문학의 형상세계를 풍부히 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문학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며 시대의 산아이다. 문학의 가치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영하며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위대한 시대에는 언제나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시대정신이 굽이치고있다.

선군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은 수령충성의 절대적인 감정과 그리움의 정서를 시대정신으로 되게 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수령결사옹위의 시대감정으로 승화되어 우리 문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한 수령결사옹위는 선군시대에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 주인공들의 성격의 기본특징이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하여 우리 문학에서 형성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다.

서사시 《장군님과 오성산병사》는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의 누대로 운명적으로 련결되어있는 한 평범한 전사의 영웅적소행을 통하여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정신을 지닌 시대의 서정을 풍만하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시조 《영웅찬가》, 서정시 《나는 먼길가는 법을 배웠다》, 《동무들이 군복을 입자》 등 많은 작품들은 반영하고있는 생활이 각이하고 시적세계가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수령결사옹위의 시대정신을 노래하는데로 지향하고있으며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사수하려는 감정정서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사상정서적바탕으로 하는 성격형상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바라는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시련도 극복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끝까지 해내는 영웅적희생정신의 소유자들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경제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령도를 심장으로 간직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수행해나가는 선군시대인간들의 성격을 다양한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열망》과 《지금은 봄이다》, 《찬란한 미래》 등 장중편소설들과 선군시대의 매혹

적인 성격을 창조한 인상깊은 단편소설들이 훌륭히 창조되었다.

특히 장편소설 《열망》은 주인공인 책임비서와 지배인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형상과 다양한 부정인물들의 개조과정을 통하여 선군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인간들이 달리는 될수 없는, 우리 시대의 열망으로 살며 투쟁하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정임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을 가장 투철히 반영한 성과작이다. 서사시에는 충성과 그리움,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매우 높은 형상수준에서 구현되어있으며 선군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서사시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선군문학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위인의 정서와 시대의 서정이다.

우리 문학은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문학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속에 우리 문학의 문제성이 있으며 위대한 령도자의 감정정서에 우리 문학의 서정세계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미학관과 완전히 일치되는 여기에 명작의 근본표징이 있다.

위대한 우리 시대를 노래하는 문학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와 체취와 숨결까지도 장군님을 닮아야 한다는것을 창작의 철리로 간직하게 된것은 우리 문학을 령도자의 문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일대 전환의 새로운 리정표였다.

우리 문학은 새로운 리정표가 가리켜주는 길을 궁지높이 걸어가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를 구현하는데서 류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의 자욱마다에서 시대의 서정이 뜨겁게 우려나온것이다.

시류음 《여기는 최전선이다》, 장시 《오성산은 번개친다》, 시 《먼 후날의 력사자들에게》, 《전선고지에 별무리 흐른다》, 《오성산병사의 이야기》, 전선종군시초중에서 《선군령장찬가》 등 많은 작품들이 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선시찰의 로정을 따라가며 창작된 시들에서 일관하게 흐르고있는 사상정서는 최전선의 야전길을 걸으시는 선군령장의 슬지와 담력, 필승불패의 전법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그 어떤 침략자들도 신성한 내조국강산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건드릴수 없다는 신념의 감정이다. 시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의 길에 새겨진 가슴뜨거우면서도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다양한 시적계기와 정서적충동을 가지고 시대의 서정을 한껏 펴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시형상에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가장 아름답게 변모되는 조국산천의 절승경개를 노래한 작품들이 시대의 성과작으로 창작된것은 선군시대 문학발전에서 매우 특기할 사변이라고 볼수 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고난도 시련도 다 이겨내시며 선군령도의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칠보산, 구월산, 장수산과 울림폭포 등 이 나라의 명승지들을 찾으시어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리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빛나는 현실은 우리 문학의 풍만한 서정으로 재현되였다.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산수시초 《서해명승-구월산》, 시초 《황해금강 장수산》을 비롯하여 시 《산울림, 땅울림, 내 마음 울림》, 《아름다운 첫 기슭에서》, 《그 사랑앞에》, 《아, 인민의 폭포》, 《폭포장단》 등 많은 산수시들이 나왔다.

특히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은 칠보산의 절묘한 풍경이 위대한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절승경개로 가꾸어졌다는것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와 정서적통일을 이루고 아름다운 시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풍경시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선군시대문학발전에서 특징적인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수십여편의 장편소설이 훌륭히 창작된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이며 통일에 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비상한 각오와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장편소설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선군문학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선군시대문학에서 가장 빛나는 면모의 하나는 우리 당의 음악정치를 담보한 가사문학이 전례없이 왕성하게 창작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가사문학은 음악정치를 굳건히 담보한 노래의 사상예술적기초로서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선군시대가사문학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가사들이 활발하게 창작된것이다.

가사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

고사령관》, 《그이를 보위하여 총폭탄되리》 등의 많은 가사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심, 결사옹위정신이 투철히 반영되어있다.

선군시대 우리 가사문학에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 끝없는 충실성, 혁명의 수령, 자기 령도자를 해와 달이 다 하도록 따르고 모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가사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의 열정이 뜨겁게 안겨오며 숭엄한 감정이 가슴속에 넘쳐나도록 하는 명가사이다.

특히 가사 《2월은 봄입니다》는 영원한 행복의 봄을 안아오신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금치 못하게 하는 뜻깊은 명가사이다.

가사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작품전반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상을 관통시키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깊이가 있으면서도 소박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되어있으며 가사 《정일봉에 안개흐르네》는 풍만한 정서로 정일봉에 깃든 뜻깊은 사연을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선군시대 가사문학에는 가사 《우리 집은 군인가정》, 《먼저 찾아요》와 같이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좋은 작품들과 《승리의 길》과 같이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을 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과감히 뚫고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락관과 의지를 반영한 많은 가사들이 들어있다.

가장 어려운 시련을 헤쳐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혁명적인생관을 지니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락천적기백을 안고 살며 싸웠다.

이러한 시대의 지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가사 《강성부흥아리랑》,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축복하노라》, 《축배를 들자》 등 승리의 신심과 생활적이며 락천적인 가사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선군시대에 나온 가사들은 주제령역과 생활반영의 폭이 넓고 다양할뿐만아니라 가사의 문학적 품격에서도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보여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선군문학은 사상예술성에 있어서나 형상의 다양성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뚜렷이 갖추며 힘있게 전진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우리 선군문학은 새 세기를 풍미하며 더욱 승승장구할것이다.

# 한 여인에 대한 추억



조인영

정초부터 온 나라가 농사차비로 벅적 끓던 어느날 밤, 창밖에서는 흰눈이 펄펄 날리고있었다. 사무실 벽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건만 나는 집에 들어갈 엄두를 못내고 군안의 토지대장들에 파묻혀 드바빠 돌아갔다.

솔직히 말해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이라는 직책은 나에게 있어서 퍼그나 아름다운 자리였다.

몇해전에 우리 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토지건설구상에 따라 수백정보의 다락논을 사회주의맛이 나는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늘어난 포전면적에 기초하여 농장별로 새해농사시비계획을 세우기 위해 새로 만든 토지대장을 펼치면서 새벽을 맞기가 일쑤였다. 그날 밤도 나는 고향인 연호농장의 토지대장을 류다른 감회를 안고 한장두장 번지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연호농장은 소홀히 대할수 없는 농사대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이 연호마을 한복판을 지나 철령너머 전선으로 이어진것이다.

다른 모든 농장들이 다 그러하지만 연호농장의 농사가 잘못되어 그이께 근심을 끼쳐드린다면 그보다 더 큰 실책이 어디 있겠는가.

7~8년전에 거기서 기사장을 하다가 군경영위원회로 올라온 나는 가슴뿌듯한 향수를 느끼며 정든 포전들을 하나하나 상기해보았다.

《군민포전》, 《원호고개들》, 《정지나무들》... 토지대장을 한장두장 번지면서 유기질과 비료함량을 료해하던 나는 《만평들》이라는 포전의 토양분석표를 의아한 눈길로 한동안 여겨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토지정리구상에 따라 행길옆의 울망줄망한 다락논들을 밀어서 네귀 번듯하게 새로 만든 포전의 유기질함량이 예상외로 높았던때문이었다.

그곳 기술일꾼들이 혹시 잘못 조사했거나 잘못

적어 넣은것은 아닌지?

나는 즉시 전화로 연호농장 기사장을 찾았다.

그도 새해농사를 본때있게 해낼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밤샘을 하고있던터라 그때까지도 사무실을 뜨지 않고있었다.

《연호농장 기사장동무. 아직 집에 못들어갔구만. 밤이 깊었는데.》

《우리야 쫓지 않았습니까. 군기사장동지두 아직 저녁식사전이겠구만요. 몸을 돌보면서 일하십시오.》

나에게서 직무를 인계받은 그곳 기사장은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기술일꾼이었다.

《다른게 아니라 동무네 1작업반 <만평들> 말이요. 유기질함량이 잘못 기입된게 아니요?

토지정리한지 얼마 안되는 땅이 언제 지력이 그렇게 높아졌소?》

《군기사장동지! 그건 옳습니다. 몇년전부터 그논의 지력이 <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저으기 놀랐다.

《만평들》은 원래 논면적보다 논둑면적이 더 많은 다락논이어서 《달배미들》 혹은 《논둑포전》이라고 부르던 척박한 경사지논이었다.

그런것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널찍널찍한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였다.

그 땅이 《상》에 이른데는 반드시 그곳 주인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을것이였다.

내가 묻기도 전에 연호농장 기사장은 새로 만든 포전들의 지력이 높아진 원인을 설명했다.

《농장원들모두가 토지정리한 논에서 알찬 수확을 내자고 하나같이 떨쳐나섰지요. 그중에서도 변음전어머니가 제일 앞장에 섰습니다. <만평들>은 그 어머니의 손에서 닭알노란자위처럼 되였습니다. 그래서 농장원들은 그 땅을 가리켜 <변음전들>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아, 그렇소?》



나는 감탄했다. 그리고는 그곳 기사장과 인사말을 나눈 뒤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변음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야릇한 흥분이 툭하고 심장을 건드렸다.

변음전. 내가 어이 그 여인을 모를수 있으랴.

기억의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10년세월을 거슬러 나를 고향 연호마을로 이끌어갔다.

×

농사일로 드바쁜 봄철 어느날 저녁이었다

연호농장총회에서는 기사장인 나에 대한 의견이 다소 제기되었다. 땅하고만 씨름하지 말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군이 되라는 것이었다.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고있을무렵이었다. 회의장 맨뒤자리에서 키가 자그마하고 체소한 가냘픈 인상의 모판관리공녀인이 간신히 일어났다.

그 여인은 얼굴도 들지 못한채 짜내는듯 한 모기소리로 나를 비판하였다.

《저, 기사장동지는 좀 맘을 인정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모판관리공들이 안타깝고 가슴아플 땐 같은 심정이 돼달라는거예요. 그저 똑똑해가지구 욕만 하려드니 모판관리공들이 물어보고싶은 말도 못물어본답니다.》

몸매 작은 여인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소박하나 던지기 힘겨운 비판이었을것이다.

그 여인은 그 충고를 하려고 령길을 몇번이나 걸어넘는것과 같은 수고를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가 바로 변음전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신중히 대해야 했다. 사실 말이지 그 비판이 가장 적중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대범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주석단에 올라앉아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받는다는것은 얼마나 웅색한 일인가.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했다.

나는 틀스러운 목소리를 지어내며 무겁게 대답하였다.

《예, 접수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일부 녀성농장원들이 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것이 알렸다. 그들은 모두 모판관리공들이었다. 자기들을 대변해준 변음전에 대한 일종의 고마움이라고 할가. 아니면 내가 혼연히 접수했때문일수도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비판받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유쾌한 일은 못되었다.

농사실무란 얼마나 힘에 부친 일인가.

씨불임으로부터 난알털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공정이라 할것없이 바쁘지 않은 공정이란 없는것이다.

그래 그들은 내가 영농공정을 드림없이 끌고나 가느라고 목이 쉬고 장판지가 박달방망이처럼 딱

딱해져가지고 달려다니던걸 보지 못했던 말인가. 자신들은 코앞의 손바닥만 한 모판을 가지고서도 찼찼 매면서 천여정보의 땅을 안고 사시장철 모대기는 기사장의 안타까움을 어찌 다 헤아린단 말인가.

회의를 결속하던 나이 지긋한 관리위원장아바이는 변음전농장원이 젊은 기사장동무에게 좋은 방조를 주었다면서 참작하라고 하였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자정이 넘도록 궁싯거리며 잠들지 못하였다. 내 눈치를 살피던 안해가 조용히 말했다.

《이봐요. 변음전아주머니의 비판이 옳아요.

그 아주머니가 <달배미논> 에 모판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아글타글 하는지 알아요? 내가 알아보니 그 아주머니의 아버지가 전쟁때 그 논에서 숨졌더군요. 토지개혁때 분여받은 땅이었대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 땅마다에 깃든 매력과 농장원들의 마음은 헤아려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무뚝뚝한 인상으로 나타나 비닐박막을 벗기시오, 물을 주시오 하고 명령하듯 하니 그들이 좋아할 리 없지요. 농장원들이 애타할 땐 함께 가슴아파하기도 하고 그들이 즐거워할 땐 같이 기뻐하는 인정을 가져달라는게 그들의 요구예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안해의 말을 긍정하였다.

×

나는 변음전농장원의 비판에 신중하지 않을수 없었다. 비판이 있는 뒤로 농장원들앞에 나서자니 몸가짐이 저지기 부자연스러워졌다.

포전에 나갈 때면 애써 부드러운 인상으로 농장원들앞에 나타나곤 했다.

책에서 본 유모아 몇대목쯤 잊지 않고있다가 휴식참에 이야기해서 힘들어하는 모판관리공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그 나날에 나는 변음전이라는 농장원을 점차 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다.

어느날 벼모생육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가 담당한 모판에 나갔을 때였다. 변음전은 새물새물 웃는 눈으로 나를 맞았다.

자그마한 안장코가 자리잡은 보기 좋게 동그란 얼굴, 어텐가 근심을 안고있는듯 한 모양이 그도 젊었을 때에는 퍼그나 예쁘장했을상싶었다

선고비에 이른 나이였으나 모판관리의 복잡한 기술지표와 어렵고 힘든 일을 젊은이들 못지 않게 감당해내었다.

나는 공기같이를 하느라고 비닐박막을 열어놓은 모판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모가 좀 헛자랐어요.》

그는 근심어린 표정으로 자기 모판의 결함을

실토하였다. 그의 어쭙어하는 인상이 마치나 전  
번회의때 나를 비판한것을 어색해하는듯싶었다.

《일없었습니다. 공기같이를 잘하면서 단련을  
시키면 인차 튼튼해질겁니다.》

나는 우선우선한 인상을 지어보이였다.

어찌다가 서로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는 못내  
무안한듯 얼굴을 약간 붉히었는데 나는 그가 전  
에 비하여 퍼그나 수척해졌다는걸 느끼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여 무엇보다 녀인들의  
수고가 많아졌다. 때식걱정에 농사일걱정, 비료와  
비닐박막, 물걱정까지 하자니 모관관리공들의  
애바른 마음이란 비길데가 없었다.

《식량은 일없습니까?》

《그저 바른대로 지낸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께서도 쪽잠과 꿇기밥을 드시면서 철령을 넘나드  
시는 때가 아닌가요.》

지금껏 어리무리한 녀인으로만 여겼던 그의 입  
에서 이런 진정의 말이 나오자 나는 가슴이 저으  
기 혼 혼해져서 그를 다시금 여겨보았다. 그의 얼  
굴에는 너무도 어질고 착해서 남에게 아픈 소리  
를 한번 한 뒤로는 몇날밤을 잠못들것만 같은 어  
쭙은 인상이 어려있었다. 겉보기에는 어질고 어  
리숙해보이나 속은 올곧고 대바른데가 있는 후더  
운 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뒤로 나는 나이가 15년이상인 그를 나이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은연중 존경하게 되었다.

얼마전에 도에서는 우리 농장에 도적인 모내기  
방식상학을 할 과업을 주었다. 아름다운 과제였다.

방식상학을 잘 치르자면 우선 모관과 논자리부  
터 잘 선정해야 했다. 그런데 보매 모관은 변음  
전녀인의 모관이 제일 적합한것 같았다.

담당관리자의 열성도 그래 모가 자란 상태도  
그래 이모저모로 보나 나무랄데가 없었던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변음전아주머니, 올해 도적인 모내기방식상학  
을 여기 모를 가지고 합시다.》

그러자 그는 두눈을 화등잔처럼 크게 뜨며 놀  
란 소리를 냈다.

《아유. 제가 어떻게 그 큰일을 치른단 말예요.》

《됩니다. 아주머니의 열성이면 된단िका요. 그  
리고 우리도 늘 관심하지요.》

그제야 그는 호-하고 한숨을 내뿜면서 알겠다  
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나는 모관을 돌아보고 나오면서 부드러운 인상  
으로 말했다.

행길로 몇걸음 옮기다가 바람막이바자너머로  
변음전의 모습을 눈주어 보던 나는 내 눈을 의심  
하며 잠간 걸음을 멈추었다. 보온나래 두루마리  
를 안고 걸어가던 그는 무척 힘에 겨운듯 눈을  
꼭 감고 서있다가 다시 걸음을 떼는것이였다. 때

식을 변변히 들지 못하는 모양이였다. 그 모습을  
목격한 나의 마음은 아릿하였다.

관리위원회에서 알아보니 그는 분배식량을 적  
지 않게 탔다고 했다. 그런데 평길도로관리원인  
남편과 한직장에 다니는 로동자세대들이 식량난  
을 겪게 되자 고루 나눠주었다고 했다.

아니 식량을 퍼주고나면 어떻게 한해농사를 짓  
는단말인가. 나는 은근히 민망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가룩한 마음씨에 고개가 숙어졌다.

모관들을 두루 돌아본즉 하루일의 부담이 많은  
모관관리공들속에는 변음전농장원처럼 식량곤난  
을 겪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무언가 손에 권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그들을 먹이고싶었다.

나는 문득 농업과학기술시식보급실 한쪽 구석  
에 놓아둔 몇묶음의 찰수수이삭이 생각났다. 지  
난해에 표본을 만들려고 채취했다가 쓰고남은것  
이였다.

손질하면 낱알 서너키로는 될것 같았다. 나는  
작업반 기술원처녀를 불러서 그걸로 모관관리공  
들에게 한끼 대접하라고 일렀다.

×

모내기를 앞두고 며칠째 심한 가물이 들이닥쳤  
다.

하늘은 창창 개이였고 한낮도 되기전에 불볕이  
쏟아졌다. 모관들은 늦은봄 해별아래에서 짹짹  
터갈라지고 벼모들은 술잎처럼 까슬까슬 말라들  
었다.

일부 경험없는 모관관리공들은 모관이 버섯 마  
르는것이 두려워서 해따가운 한낮에도 그냥 비닐  
박막을 씌워두었다가 벼모들을 누렇게 그슬리곤  
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느라고 기술일군들과  
분조장들을 모관에 데리고 나가 비닐박막들을  
열어젖히였다. 그때마다 모관에서는 화끈 단 공  
기가 뿌연 땅김과 함께 단내를 물씬 풍기며 쓸어  
나오곤 했다.

왕가물이라 나는 어지간히 울상이 되여 저수지  
에도 달려가보고 금동천에도 가보았지만 수원지  
의 물이 팔리고 계다가 물을 퍼넘기던 양수기전  
동기가 뜻밖에 고장나는 바람에 물이 있어도 풀  
수 없는 형편이였다. 나는 모관들을 돌아다니면  
서 물지계를 저서라도 벼모를 살려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스무개나 되는 분조들의 산지사방에  
널린 모관들을 달려다니면서 목청을 돋우고 오  
후에는 한껏동안 물을 길고난 나는 두다리가 후  
들거려서 일어설 맥도 없었다.

망거미가 내릴무렵에 나는 모관들에 물준 상태  
를 돌아보면서 마을로 향하였다. 저녁노을이 서

쪽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소슬하게 불어왔다. 조만간 비가 오기는 틀렸다.

속이 뿌질거렸다. 각일각 타드는 발팽상모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이런 생각에 움해서 터덜터덜 걸어 변음전농장원의 모판근처에 이르렀다. 바람막이바자를 들치고 모판에 들어서려던 나는 문득 멈춰섰다. 변음전녀인은 까슬까슬 시들어가는 벼모들을 어루쓸면서 타드는 마음을 가까스로 달래고있었다. 그의 애타하는 눈빛은 마치나 앓는 자식을 앞에 둔 어머니의 애모쁜 눈빛을 방불케 했다.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술잎같은 모잎들을 애처롭게 여겨보던 그는 저물어가는 장미빛 하늘을 원망어린 눈길로 더듬었다.

물에 폭삭 젖어버린 로동화와 아래도리, 두어께에 내뻗 땀, 해종일 물지게를 지고도 모들을 다 살려내지 못할것만 같아 모지름 쓰는 변음전의 두눈은 물기에 젖은듯싶었다.

힘이 자라는것 정을 쏟아부은 모판과 무언가 심중의 말이라도 나누는것만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 선뜻 그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였다.

그무렵 린접한 모판에서 최원실이라는 내 나이 또래의 모판관리공이 변음전녀인결으로 뽀르르 건너오더니 몹시 상심하여 집에 들어갈념을 하지 않고있는 그의 잔등에 손을 얹으며 제탄의 위안의 말을 늘어놓았다.

《아유, 이젠 일어나요. 한평생 농사일하는 사람이 요까짓일 가지고 그다지나 아글타글해서야 먹는게 살로 가겠나요. 해마다 왕가물로 모판을 몇번씩 바싹 태우고야마는 하늘인데 그렇게 울상을 하고 앉아있다고 하늘이 비를 내려준대요?》

《하루종일 물지게를 지고 달려도 모판을 못다 적셨으니 속이 안타게 됐나?》

《그러게 내 뭐했어요. 자연채해를 물지게나 저가지고는 막아내지 못한다구...》

그의 말은 물지게를 저서라도 모를 살려야 한다는 나에 대한 은근한 비난으로 들렸다.

그러자 변음전은 노염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럼 어찌겠나. 눈 편히 뜨고 모를 말려죽일수야 없지 않나. 벼모도 생명가진 물건이고 내손 밟고 사는데 아닌가. 기사장도 정 안타까웠으면 물지게를 지고달리겠나. 가만 보면 거기선 늘 썩평좋은 소리뿐이야. 물지게 몇번 지다 와서 그런 소리나 하겠거든 내앞에서 썩 사라지라구.》

전혀 노할것 같지 않던 변음전의 두눈에서는 원실이에 대한 혐오의 불꽃이 번쩍했다. 최원실이는 뽀로통한 인상으로 아래입술을 꼭 내밀어보이더니 제 모판으로 뺄 가버리었다.

나는 잠시후 최원실의 모판에 먼저 들어섰다.

그 녀자는 나를 보자 반색을 하며 맞아주었다.

《아이, 기사장동지가 내 모판에 오셨네.》

나는 말없이 고개만 약간 끄덕이었다.

내가 군대나간 뒤에 어데선가 시집왔다는 최원실이는 동년배라는걸 등대고 비위살 좋게 말을 불었다.

《참, 요전날 기사장동지가 보내준 찰수수로 지짐을 지저서 잘 먹었어요.》

그 녀자는 방글거리며 두눈을 살짝 치켰다.

《그런 인사는 하지도 마시오. 변변치 못한 찰수수 몇되박 가지고 무얼 얼마나 맛나게 해잡수셨겠습니까?》

《변음전아주머니만 내놓고 작업반 모판리공모두가 잘 먹었습니다.》

사실 나는 변음전녀인이 현기증을 일으키는걸 보고 그 난알을 보냈던만큼 그가 빠졌다는 소리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변음전아주머니는 왜 빠졌습니까?》

《글쎄요. 아무리 같이 들자고 해도 자기는 찰음식이 속에 좋지 않다면서 종내 일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나는 못내 유감스러운 인상으로 변음전의 모판 쪽을 바라보았다. 원실이가 말머리를 돌리었다.

《전번 비판을 탓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 기사장동지가 감정도 깊고 인정도 뜨거운분인데 배찬 농사일에 부대끼우다보니 어성을 높일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리해하기탓이라고들 했답니다.》

최원실은 전번 농장총회때 내가 받은 비판들을 암시하면서 나의 아팠던데를 숨씨있게 살살 어루만지려들었다. 나는 그의 말이 듣기 싫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초급일군들은 이런 경우에 경망한 녀자들과 입맞춤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의 모판을 돌아보면서 은근히 부아가 동하는걸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물을 잘 주지 않았구만요. 모두들 물지게를 지면서 모를 살리자구 뛰는데 이러면 됩니까?》

최원실은 대번에 실쭉해졌다.

《변음전아주머니야 기사장동지가 특별히 봐주면서도 방식상학에 내세우니까 열성을 내는거겠지요.》

《사람의 진정을 그렇게 헐뜯으면 죄됩니다.》

래일부턴 죽으나 사나 물지게를 저서라도 모를 살려야 합니다.》

나는 저르기 기분이 잡쳐져서 뻥정하게 내뺄고는 변음전녀인의 모판으로 넘어왔다.

이미 날은 어스름해지기 시작하였다.

또다시 일어나 부지런히 물지게를 지던 변음전은 나를 띠여보더니 애써 반색을 지었다.

그때까지도 물을 주려고 비닐박막을 벗겨놓은 모판들이 적지 않았다. 이제 거기에 혼자서 다

물을 주자면 캄캄한 밤중에야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최원실은 이미 행길에 나섰다.

나는 아무말없이 모관주인과 함께 물을 길기 시작하였다.

《기사장동지, 바쁘실텐데 이젠 들어가십시오.》

《이보다 바쁜 일이 어데 있습니까.》

우리는 꾸준히 물을 길었다.

변음전은 해종일 절반면적이 넘는 모관에 물을 주었다. 물을 먹은 모관은 모잎색이 달랐다.

생기가 돌고 말려들었던 바늘잎이 활짝 펴졌고 잎끝에는 아롱아롱 이슬방울이 맺히었다.

《모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하를 하자 그는 펄쩍 놀라듯 도리머리를 저었다.

《웬걸요. 아직 절반이나 되는 모관은 물을 못 먹어서 솔잎처럼 되었답니다. 오늘 다 주자고 작정했는데 야속하게도 힘이 딸리고 해가 저물었구만요.》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밤새워서라도 물을 마저 주어야 해요. 방식상학에 나갈 모를 잘 길러야지요. 저녁이나 제격 끓여먹고 우리 주인도 함께 이끌고 나오자는겁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모아 살려놓고 보아야지요.》

변음전은 강잉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한시간이 싹히 지나서야 계획했던 모판들의 비닐박막을 덮었다. 달이 퍼그나 떠올랐다. 변음전녀인은 땀배인 얼굴을 들어 미안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도 지칠대로 지쳤다.

하나 우리는 밤의 달빛속에서 마주보며 빙긋이 웃었다.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일을 해제긴 뒤의 기쁨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달빛에 비친 미소를 발견한 나의 마음은 더없이 흥그러웠다. 그 녀인의 웃음은 그 무엇에도 대비할수 없이 애모쁘고 정차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짜늘한 서풍에 땀이 식자 잔등이 오슬오슬해졌다.

나는 변음전에게 무언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어졌다.

《아주머니, 찰음식이 몸에 맞지 않으면 대체로 랭이 심하답니다. 그러니 아침저녁으로 솜옷을 따뜻이 걸치고 장화속엔 늘 두툼한 양말을 신으십시오.》

변음전은 그 어떤 그윽하고 따뜻한것을 느꼈던지 두눈을 깜박거리며 미소하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젓는 것이었다.

《아니예요. 전 오히려 찰음식을 좋아한답니다.》

그는 최원실이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어텐가 석연치 않은 심정으로 그와 헤어

졌다.

마을로 들어오면서 나는 줄곧 말라드는 모판을 두고 앓는 자식을 대하듯 애태우며 두눈을 적시던 변음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사실 기사장인 나조차도 그토록 애태워본적이 없는것만 같았다.

하루해를 무사태평하게 맞고 보내는 최원실이와 애면글면 달리다가 지쳐서 잠간 쉬는 사이에도 모판과 정을 나누며 애타하던 변음전녀인의 엄청난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것일까.

진정이 없어야 어찌 것처럼 밤늦도록 모판을 불안고 애태우며 모지름줄수 있단 말인가.

확실히 변음전녀인에게는 땅과 곡식을 대함에 있어서 못사람들과는 류다른 예린 정서가 있는듯싶었다.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잠시 다리를 펴고있느라니 또다시 변음전의 모습이 눈앞을 막아섰다.

나는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내가 방입하고있으면 타드는 모판들은 어찌되며 도적인 방식상학은 어찌한단 말인가. 나는 피곤을 무릅쓰고 관리위원회로 향하였다.

걸으면서 나는 줄곧 이 저녁 나를 일떠세운 힘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것은 분명 변음전녀인의 모습이였다.

×

사무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전화기수자판을 눌러 관개사업소를 찾았다. 거기서는 뻔히 아는 소리를 되풀이했다. 3단양수장의 전동기가 타버렸는데 해체하여 수리하자면 닷새가 걸린다는 것이었다.

닷새면 모들이 건잡을수 없이 타죽을것이다.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모를 잘못 길러 모내기를 제대로 못한 논판들...

전선길 달리시다가 모내기 못한 논벌을 보신다면 어버이장군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랴.

아니,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순간 하나의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송수화기를 들었다.

《여 보시오. 관개관리소요? 2단양수장까지만이라도 가동시켜주시오. 3단에다가는 트랙트르강우기 3대를 보내서 물을 퍼올리게 할테요.

그다음 4단을 가동시키면 되지 않소.》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오만 물량이 적어서 30분도 풀수 없소. 물막이죽을 쌓아야겠는데 우린 로력이 없단 말이요.》

《알겠소.》

나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래일 아침 작업반장들전원을 비상소집시켜서

작업반마다 열명씩 로력동원을 시키자. 50명인원  
에 관리일꾼들까지 나가면 한껏좁으면 물막이뚝  
을 쌓을수 있을것이다. 프락포르강우기 3대는 늘  
정비되어있으니 문제로 될것이 없었다.

지령전화로 작업반들과 기계화반을 찾아 이상  
의 내용을 포치하고나니 밤이 퍼그나 깊었다.

낮에 물지계를 지고 달렸더니 피로가 온몸을  
덜쳐늘렸다. 눈을 좀 붙이려다가 무엇에 흠칫 놀  
란듯 소스라쳤다. 무엇때문일까. 아하, 저녁에 본  
변음전녀인의 모습이 또다시 앞에 나타났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나에게 사정한다.

《기사장이 잠자리에 들면 모판은 어떻게요?

우리 오늘밤엔 자지 말자요. 자지 말자요.》

그 녀인의 절박한 호소가 어마어마한 소리통에  
서 울려나오는것처럼 나를 흔들어 일떠세웠다.

나는 꼭 그의 눈물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의 모습은 또다시 놀라운 견인력으로 나를  
일떠세웠다.

그렇다. 래일 아침이면 벌써 늦는다. 12시간이  
나 18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동안 목마른  
벼모들은 생육이 정지된채 가물에 시달리고 결과  
는 정당소출이 떨어질것이다.

고단해도 내가 뛰자. 나는 곧 리당비서와 관리  
위원장을 만나 나의 용단을 밀어줄것을 요구했다.

물론 변음전녀인의 가혹한 마음과 남편과 함께  
모판에서 밤샘을 할 그의 기특한 소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밤으로 곧 대책이 취해졌다.

상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해뜰무렵에는 벌써 4단수로우에 물이 담겨졌  
다.

나는 빨간 수건을 날리며 춤추듯 달려가는 1작  
업반 기술원처녀와 함께 물길을 따라갔다.

우리는 1작업반 발령상모판으로 가는 물길을  
터놓았다. 물은 경사진 수로를 따라 사품치며 내  
리달린다. 행길옆 변음전농장원의 모판에 이르러  
물과 함께 바람막이바자 안으로 들어선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굳어졌다.

밤새워 모판에 물을 다 길어다준 변음전녀인이  
보온나래우에 편안히 누워 굳잠이 든게 아닌가.  
그의 동그스름하고 감실감실한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사라지곤 하였다.

어제 저녁무렵에 본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  
였다. 행복의 꿈이라도 꾸고있는것은 아닌지.

나는 그윽한 감개에 젖은 눈길로 그를 바리보  
았다

그를 서둘러 깨울수가 없었다. 나와 기술원처  
녀는련민의 정어린 눈길로 한동안 변음전녀인의  
온몸을 더듬어보았다. 개흙이 계발린 로동화, 후  
줄근히 젖어버린 옷자락, 땀에 젖었던 이마에는  
머리카락 몇오리가 차분히 붙어있었다.

모판두둑사이의 걸음길은 쏠지른 물에 진창이  
되었는데 거기엔 변음전의 작은 로동화자욱과 그  
의 남편의것이 분명한 커다란 발자욱이 촘촘히  
찍혀져있었다. 온밤 남편과 둘이서 물을 길어준  
것이였다. 도로관리원인 남편은 출근시간이 되어  
자기 초소로 나간 모양이였다.

나는 기술원처녀와 함께 메말랐던 모판들을 돌  
아보았다. 밤사이 물을 흠뻑 먹은 벼모들은 바늘  
잎을 활짝 펼치고 생기에 넘쳐있었다.

우리가 잠시 벼모판을 돌아보는 사이에 물은  
모판에 들어왔다. 변음전이 누운 곳에도 물이 고  
이기 시작했다. 어차피 그를 깨워야 했다.

기술원처녀가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눈을 뜬  
그는 늘 짓군 하는 어쭙은 인상으로 발딱 일어났  
다. 발치에 들어차는 물을 본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가 어찌도 좋아하는지 새물새물  
웃는 눈가장자리로 맑은것이 흘러내렸다.

《이젠 우리 모들이 살았어요. 기사장동지가 제  
때에 대책을 세웠구만요.》

그는 나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물이야 내가 아니라 변아주머니가 끌어왔지  
요.》

그러자 그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는듯 어리  
둥절한 인상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설명  
하지 않았다.

마음이 저으기 후터워진 나는 어제 저녁 나를  
일떠세웠던 변음전의 진정어린 모습을 그려보았  
다.

그것은 정녕 자신을 잊고 나라쌀독을 위하여  
아글타글하는 애국농민의 모습 그대로였다.

변음전은 마침 생각난듯 삼을 들고 일어나더니  
아직 비어있는 최원실의 모판으로 물을 이끌어  
갔다.

《정말 머리가 숙어지는구만.》

내가 기술원처녀에게 조용히 뇌이였다.

《그렇습니다. 전번에 찰수수지집을 해놓고 모  
판관리공들에게 같이 들자고 했는데 변아주머니  
만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최원실아주머니가 데리  
러 갔다오더니 자기는 찰음식이 속에 좋지 않다  
고 하더라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맛  
보라고 했더니 조용히 웃으면서 적은 음식에 나  
이많은것까지 끼우겠느냐면서 종내 사양했답니  
다.》

아, 그랬구나. 나는 날이 갈수록 변음전녀인의  
가혹한 마음이 후덥게 헤아려져서 묵묵히 고개를  
주억거릴뿐이였다.

그해 변음전이 애써 자래운 벼모는 도안의 방  
식상학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내였다.

변음전녀인은 모내기가 끝나자 행길주변의 《달  
배미논》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치마허리를 질끈 동인 그 녀인은 어둑새벽부터

논판에 나와서 살았다.

논물관리, 김매기, 비료치기 등 복잡하고 힘든 농사일을 남보다 앞장에서 잘해내어 《만평틀》의 논벼작황은 유난히 눈에 뜨이게 좋았다.

추석을 앞두고 올벼가을을 하게 되었다.

맨먼저 익은 벼를 베어 풋바심을 해서 햇곡밥을 맛보며 조상의 제도 지내는 8월대보름날은 농군들에게 있어 더없이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1작업반 포전들의 벼가 익은 상태를 료해하여 그중 잘되고 올된 《달배미논》의 벼를 제일 먼저 베게 하였다. 첫 벼베기를 하는 날이라 나도 기꺼이 거기에 나갔다. 변음전을 비롯한 분조원들모두가 성수나서 눈에 들어섰다.

농장원들이 선들선들 날세운 낫을 벼그루에 대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허리를 펴며 그들을 만류했다.

《가만, 동무들, 농장적으로 제일 좋은 작황을 안아온 이 포전주인이 먼저 한단 묶어세운 다음 우리모두 낫을 댁시다.》

《그게 옳겠어요.》

모두가 나를 긍정해주었다. 뒤이어 분조원들모두 다 마음을 고쳐먹고 내편을 들어주었다.

《주인이 어서 낫을 대세요.》

최원실이아 전에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변음전은 레의 어줍어하는 표정으로 나와 분조원들을 돌아보더니 두눈을 습벅이며 풍성한 벼숲에 허리를 굽히 었다.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그는 익숙된 숨씨로 잠간사이에 아름이 벌개 벼단을 묶어안았다. 벼단을 안은 변음전은 웃는지 우는지 가늠못할 표정으로 나를 잠간 바라보더니 벼이삭우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다.

그는 울고있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거둔 수확을 안고 기쁘고 격해서 솟는 그의 눈물은 타드는 모판을 불안고 모지름쓰던 그때와는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키었다. 분조원들은 무어라 말할수 없이 가슴뿌듯한 감정에 잠겨 변음전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눈을 습벅이었다. 최원실이마저 두눈을 끔찍이더니 입술을 실긋거렸다.

《자, 이젠 모두 일을 시작합시다.》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며 벼그루를 휘감아쥐었다.

모두들 흥그러운 기분이 되어 스르륵스르륵 낫질을 했다. 벼를 베는 나는 은연중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축축한것이 눈가를 적시었다. 나는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애모쁜 사랑과 동경에 한껏 취한 자신을 발견하였다.

철참에 변음전은 삶은 고구마와 침담근 감을 내놓았다. 분조원들은 한식구처럼 모여앉아 권커

니 받거니 웃음꽃을 피우며 맛나게들 먹었다.

변음전이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소감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나를 바라본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제가 그동안 올상을 자주 보여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 오늘은 기사장동지랑 나온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모두들 짹짹그르 박수를 쳤다.

그는 《신고산타령》을 멋지게 뽑아내었다.

그 흥취나는 노래가락에 최원실이아 그저 앉아 배기지를 못하겠던지 《좋다!》하면서 손뼉을 마주치며 일어나더니 당실당실 춤을 추며 돌아갔다.

그 서술에 분조원들모두가 춤판을 이루었다.

나만이 눈길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싱긋병긋 웃고있는데 변음전녀인이 문득 내앞에 이르러 팔을 잡아일으키었다. 나도 난생 처음 춤을 추었다. 노래도 불렀고 마음껏 웃기도 했다. 분조의 철참은 마치나 인민군 용사들의 흥겨운 화선오락회를 방불케 했다.

사람은 울줄도 웃을줄도 알아야 한다.

논물도 있고 락천적인 웃음도 있는 땅다루는 사람들의 생활을 담아 내 언제든 글 한편은 지어 내리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해 농사총화때 나는 어려운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모내기방식상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도안의 농사에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장총회때 상급지도일군이 나를 내세우자 박수소리가 장내를 채웠다. 농장원들에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던 나는 머리를 들다가 무춤 굳어졌다.

맨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서 두눈을 습벅이며 기꺼이 박수를 치고있는 변음전녀인을 본것이였다.

×

그뒤 나는 군경영위원회로 소환되였다.

변음전녀인을 위시로 농장원들이 동구밖까지 따라와 나를 배려해주었다.

도와 중앙의 크고 작은 회의와 강습, 방식상학, 스무개농장의 농사지도, 전례없는 규모에서 진행된 토지정리... 사업반경은 이전보다 수십배나 늘어나 연호농장은 나의 시야에서 저르기 멀어졌고 변음전녀인에 대한 생각도 점점 삭막해졌다.

《만평틀》의 지력이 높아진 문제를 가지고 연호농장 기사장과 전화가 있는 뒤 나는 그곳 농장의 토양조사자료를 현지확인하기 위하여 내려갔다.

나는 이전 《달배미논》이였던 《만평틀》결에 차를 멈춰세웠다.

연호농장 기사장이 거기서 나를 반겨맞아주었

다.

《여기가 일명 <변음전들> 이라고 하는 <만평들>입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다는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근 10년전 그 땅우에서 있었던 갖가지 희노애락이 변음전의 모습과 더불어 가슴 찢어듯이 찢어들었다.

검붉은 빛으로 번들거리는 포전이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애쓴 수고가 헤아려졌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구호가 박혀있는 《만평들》의 여기저기에 무뚝뚝하니 솟은 두엄무지들마다에서는 흰김이 물물 피어올랐다.

《변음전아주머니는 지금 무얼하시오?》

내가 궁금하여 묻자 그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몇해전만 하여도 이 땅을 담당하여 살점처럼 쓰다듬으며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고있지만 몸과 마음은 늘 여기에 얹어놓고 산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연호농장기사는 내가 군으로 올라온 뒤에 있었던 일들을 추려서 얘기했다.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행군> 때에 장군님께서 토지정리를 통이 크게 벌리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농장에서는 변음전녀인이 담당한 <달배미논>이 첫 대상이였습니다.

변아주머니는 불도젤운전수들의 식사며 간식, 더운물을 보장하느라고 늘 포전에 붙어있었답니다.

10대의 불도젤이 우렁와릉 돌아가며 실뱀같은 논뚝들을 물어쫓고 올망졸망한 논배미들을 가뭇없이 뒤집어엎으며 널찍널찍한 규격포전을 만들고있었습니다. 토지정리가 거의 끝나 수평고르기를 하게 된 <만평들>은 어제날의 때벗이를 하고 면모를 일신한듯 했지요. 나도 기분이 즐거워져서 선두 불도젤운전수곁에 흡족한 심정으로 앉아있었습니다. 점심때를 가까이한무렵이었지요.

운전수들의 밥합지를 이고 나왔던, 변음전아주머니는 그것을 황황히 포전머리에 내려놓더니 불현듯 내가 타고있던 선두 불도젤앞을 막아서는것이였습니다.

<이보라구, 기사장. 이러면 다 끝나는가?>

<예. 왜 그러십니까. 아주머니?>

신명나게 달려가는 불도젤을 멈춰세운 그를 나는 좀 언짢은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변녀인은 지금껏 얼굴에 떠돌던 웃음기를 싹 거두고 시무룩한 인상으로 말하더군요.

<이거 좀 아쉽구만. 맨우에 있는 세모꼴배미랑 행길옆 구석배미랑 다 하나로 밀어붙일수 없잖나?>

나는 대수롭지 않게 깊은 생각없이 말했습니다.

다.

<아주머니, 거긴 지형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겨먹은데다 몇평 안되는 땅이어서 설계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땅입니다.

어서 물러나십시오.>

나는 험스스런 웃음을 지어보이며 변아주머니를 설득시키려 했지요. 하나 그는 숙어들지 않고 숙연한 눈매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보게, 기사장,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살점같은, 명줄같은 땅이 아닌가. 이 한치의 땅에 스며있는 피땀을 나나 기사장이 어찌 다 헤아릴텐가. 땅을 팔시라고서야 어이 발판잡을 잘수 있고 맘편히 웃을수 있겠나. 땅도 숨가진 물건이라면 목석같은 인간들이 저를 병신으로 만들었다고 노여워 할것만 같구만.

잘 생각해 보게...>

변아주머니의 그 말 한마디한마디는 나의 가슴을 저미는듯 파고들더군요. 그 소박한 녀인의 입에서는 마치나 땅에 대한 사랑의 송가라도 울려나오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순간 병어리라도 된듯 아무 말도 못하고말았습니다.

어느분께서 찾아주시고 어느분께서 가꿔주시는 땅입니까. 그의 말따나 이 한치한치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피땀이 스며있는것입니까. 어버이 장군님께서 땅은 나라의 재부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재부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소홀히 대하다니 내가 무슨 농업기술일군이였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으로 토지정리에 동원된 군인들이 주변에서 논뚝짓기를 하다가 불도젤을 막아선 변아주머니의 심상치 않은 거동을 보고 모여왔습니다. 사연을 헤아린 인민군대 대대장동무가 변음전아주머니를 긍정해나서더군요.

<기사장동무, 변음전아주머니의 요구대로 합시다.

토지설계사업소와 토론하여 설계도 변경시키고 로력이 긴장하다면 우리가 말겠습니다.>

그리하여 변음전아주머니의 요구대로 <만평들>은 더 번듯해지고 넓어졌지요.

<만평들> 포전이 우리 장군님의 은덕으로 새로 태어나던 날 저녁 변음전아주머니는 인민군대동무들과 불도젤운전수들에게 집의 돼지를 잡아가지고 단단히 대접했습니다. 그 마당에서 글썽 근심만 많은줄 알았던 변음전아주머니가 흥취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판을 벌리는통에 이 <만평들>이 온통 군민의 오락회장으로 되였었지요. 나도 춤판에 이끌려 난생처음 춤을 추었는데 울상만 드문히 보아오던 변음전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무던히도 좋아하는, 어린애와도 같은 천진한 웃음을 보게 되니 마음이 즐겁더군요. 글썽 그 변음전아주머니가 춤은 또 얼마나 잘 추었다구요.》

연호농장 기사장은 그날의 변음전녀인을 그려 보는듯 혼연히 미소를 지었다.

우리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변음전아주머니의 집으로 향하였다. 연호농장 기사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이듬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논물을 보다가 밤늦게 들어온 변음전은 저녁을 지어놓고 남편을 기다렸다. 고개길을 관리하는 남편은 큰물에 사태라도 날가봐 밤길도록 들어오지 못했다. 변음전이 저녁밥을 싸들고 고개마루에 오르니 남편은 굴러날수 있는 돌밑에 돌들을 다 고여놓고 도로관리초소막에서 한숨 쉬는중이었다.

남편은 변음전이 차려준 저녁을 다 먹자 근심스레 비내리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보 로진. 난 오늘 저녁 령을 내릴것 같지 못하오. 마음이 안놓이거든. 이 령길이 어떤 령길이라는거야 잘 알테지... 그리고 당신도 내려가는 길에 말은 포전에 들려보오.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겠소?》

변음전녀인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남편의 말을 받았다.

《나도 그 생각이예요. 오늘 밤은 포전을 뜨지 않겠어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 가까이에 있는 포전이 아니냐요.》

변음전녀인은 남편과 헤어져 포전으로 내려왔다.

비는 더 억수로 퍼부었다. 강한 폭우였다.

변음전은 삽을 들고 캄캄한 어둠속을 누비었다. 가물철에는 실오리같은 물줄기마저 말라버리던 《만평틀》 주변의 개울이 쇠아쇠아 노호하며 포전기슭을 물어뜯으려고 갈개치고있었다. 안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지정리해주신 살점같은 이 땅을 한치도 뜯겨선 안돼. 그는 이렇게 뇌이면서 포전기슭에 흙을 파었으며 필사적으로 드달렸다. 하나 혼자서는 노호하는 탕수의 횡포를 막아낼수 없었다.

《게 누가 없어요?》

변음전은 행길쪽에 대고 퍼터지게 웨쳤다.

매마침 포전을 순찰하던 청년들이 달려오고있었다. 음전은 부지런히 개울뚝을 높이느라고 삽질을 서둘렀다. 그무렵이었다. 딥고선 눈뚝이 풀썩 주저앉으며 그는 광란하는 탕수에 내던져졌다....

자연은 미치 한차례 가벼운 장난이라도 한듯싶었다. 세찬 광풍도 사나운 채찍비도 뜸해졌다.

셀녘이 되자 열흘나마 비를 퍼부은 검은 구름장은 산가녁에 맥없이 주저앉고 동컨하늘엔 구름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산골 개울물은 시시각각으로 줄어들고 밤새껏 들끓이운 《만평틀》의 벼

숲은 안식을 맞아 고요히 일렁이었다.

변음전은 청년들에 의하여 구원되었다.

포전머리 잔디우에 누운 그는 청년들의 어깨성너머로 지금껏 정을 나누며 살아온 정든 포전을 바라보면서 속삭이듯 뇌이는것이였다.

《〈만평틀〉 이 무사했구나. 무사했어.》

그는 혼연한 미소가 떠오른 두눈에 핑그르 밝은 눈물을 담았다.

《변음전어머니!》

청년들은 그가 정신을 되찾은것이 너무도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변음전은 청년들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갔다.

그는 얼마후에 퇴원하였으나 허리와 어깨를 잘 쓰지 못하여 이전처럼 포전을 가꾸기가 어려워졌다.

그해 가을 《만평틀》에도 벼숲이 일렁이었다.

어느날 깊은 밤 전선길을 달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평틀》곁에 차를 세우시고 전조등빛에 드러난 포전작황을 살펴보시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 올망졸망하던 다락논이 네 귀번듯한 기계화포천으로 된것을 못내 기뻐하시면서 멋있다고, 그리고 논다룬걸 보니 여기에 훌륭한 주인들이 있다시며 만족해하시였다는것이 다....

연호농장 기사장은 감회에 젖어 계속하였다.

《다음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농장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만평틀> 포전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한한 행복감에 흐느끼는 변음전녀인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변어머니는 이 땅을 기쁨지게 걸구느라고 수많은 집집승을 길러 질 좋은 두엄을 수십톤씩 내고있지요. 그후에 농장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만평틀>을 <변음전틀>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있답니다.》

(《변음전틀》!)

나는 애뜻한 정서에 잠겨 포전이름을 입속으로 뇌이였다. 우리는 어느덧 변녀인의 집앞에 이르렀다. 닭, 오리, 계사니의 꼬꼬덕소리, 짹짹대는 소리며 꿀꿀대는 돼지소리, 매매하는 염소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리 기별을 받고있었던듯 나를 알아본 변음전녀인이 두엄쳐내던 거리대를 거름더미에 폭 꽃아 놓더니 우는듯 웃는듯 기꺼운 걸음새로 사립문밖에 달려나온다.

기쁨도 설음도 땅에서 찾았던 녀인, 제 설음, 제 기쁨이 아니라 땅의 일로 울고웃던 변녀인은 살붙이처럼 쓰다듬던 한뼉기의 조국땅이 제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꼭 잡은 내손을 놓지 않고 하냥 기뻐서 웃고있었다.



# 조국찬가에 바쳐진 진실한 시형상

-시집 《조국시초》를 두고-

최희건

## 1. 푸른 싹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을 안아 비옥한 생활의 대지-선군시문학의 기름진 토양에 뿌리내린 주체의 시가작품들은 푸르려 무성하여 풍요한 《시의 열매》를 수확하고있다. 시집 《조국시초》(김형준작)도 그러한 열매중의 하나이다. 《조국시초》가 하나의 《시의 열매》라면 시집안의 첫시 《조국》은 푸른 싹이라 할수 있다. 창작된 년대로 보아도 첫작품이며 그 시적형상의 높이로 보아도 아직은 키가 작은 작품이다.

하지만 그 움트는 《푸른 싹》에서 우리는 조국이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남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엿볼수 있다.

가꾸어가는 마음 꽃들에도 깃들여 향기되어 날리고 바치고픈 마음 돌에 비껴 금돌이 되어 빛나고 그 마음 초목들도 알아 가지마다에 열매되어 고개숙이고 떠나지 못할 마음 바다의 넓이 되어 파도되어 천만년 달려만 오는 그 품이 우리 수령님의 품인 우리 조국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형상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국의 의미를 깊이 형상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다만 열매로 될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주는 푸른 싹이다. 이제 이 푸른 싹이 어떻게 자라나고 가꾸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 2. 매혹의 눈

시 《나에게 주는 격언》(4수)을 읽어보면 여기엔 조국의 의미가 더 깊이 새겨져있다. 《사랑에 매혹된 눈》에는 쇠도 금덩이로 보일것이라 하면서 자기 눈에 비친 한그루 나무, 하나의 돌덩이가 은금으로 보이기전엔 조국을 사랑한다고 감히 노래하지 않겠노라 하였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매혹의 눈으로 보고 느낀다. 《사랑에 매혹된 눈》이란 대상과 자기를 구별함이 없이 하나로 보는 눈이다. 조국의 한그루 나무, 풀 한포기를 자기 육체의 한부분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 그런 사랑을 가질 때에야야 그 매혹의 감정은 가장 고결하고 우아한것으로 되며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계, 혼연일체의 감정세계를 낳을수 있으며 따라서 조국을 레찬하는 사상감정도 생겨날수 있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사상감정정서는 조국의 존재가치와 귀중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헌신으로 지향시키며 지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지키려는 숭고하고 열렬한 사상감정으로 승화시킬수있다. 시 《나에게 주는 격언》(4수)중에서 시 《조국과 사랑》에는 바로 이러한

사상정신과 감정심리가 진하게 깔려있다. 이것은 이 시집안의 모든 시편들에 일관하게 흐르고있는 사상감정이다.

시 《너에게 묻는다》(1,2)에서는 조국사랑의 의미를 노래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사랑과 증오의 시를 많이 썼다고 자처하지 말라 하며 자기에게 묻는다. 너의 시행의 발이랑마다에 너의 시어를 씨앗처럼 묻는다면 풍요한 가을날에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는가? 그리고 너의 시행의 전호마다에 너의 그 시어들이 병사마냥 세워진다면 조국의 준엄한 시각에 원썩을 향해 서슴없이 날아가는 총알이 되고 비수가 될수 있는가? 이것은 모두가 육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무장될것을 요구하는 선군시대의 물음이다. 이러한 심각한 물음은 자기자신에 대한 강한 요구성이다.

시인의 시에 대한 혁신적인 지향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시의 결점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시적형상-하나의 《산유기체》를 형성하는것이다. 이러한 지향이 바로 상기 격언시들에 제기되어있다.

《눈속에 묻히고 발길에 짓밟혀도/ 엄혹한 겨울을 물리친 봄잔디처럼/ 언제나 새것이 숨쉬는 그런 시를》쓰기 위해 《생활을 사랑》하고 《불에 달궈지고 모루우에 누웠어도/ 마치에 항거하는 강쇠처럼/ 불의에 불이 되는 그런 시를》쓰기 위해 《증오를 간직》하며 《피끓는소리 흥타래 내지 않는/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우짖는 종다리처럼/ 진실만을 읊조리는 그런 시를》쓰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라는 강렬하고도 쇠소리나는 웨침은 시적형상을 보다 새롭게 혁신시키려는 몸부림이다. 그것과 함께 이 시에는 서정적주인공이새롭게 느끼고 깨닫는 사랑과 증오에 대한 심오한 생활철학이 있다. 바로 이러한 혁신적요구가 실현된 일련의 시편들을 1990년대에 씌여진 시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시 《청춘과 사랑과 대동강》, 《결혼식날에》, 《물로 지어진 이름이여》와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 시편들은 《내 조국을 다 알았던가》편에 들어있는 1980년대의 시작품들에서 나타났던 생경한 시들에 비해보면 한결을 진진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부분적교체일뿐이다. 시적세부들은 발견되었으나 개념적인 시표현들을 적지 않게 남기고있다.

시형상의 결점들이 부분적교체로부터 전면적인 교체로써 시형상들이 혁신되기 시작한것은 《바다의 광산곡》, 《봄비》, 《아들에게》, 《산력사》와 같은 작품들과 그 이후의 시들인 풍경시초 《명산의 근본》, 산수시초 《금강산시초》와 같은 시작품에서부터라고 볼수 있다.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이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지난날 《떠나지 못할 마음》, 《바다의 너트로 되여》, 《파도되여 천만년 달려만 옵니다》(시 《조국》에서)라고 하였던 바로 그 《시의 바다》 첫 기슭에서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위한 삶의 길에》, 《변함없는 신념의 닻을!》(시 《닻》에서) 올리고 《섧물과 밀물의 한때/더없이 황홀하여/너를 못보면 한이 될듯/마음속에 새겨보던/조국의 바다》(시 《바다의 광상곡》에서)에 뛰여든 서정적주인공의 새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드디어 조국이라는 그 크나큰 《바다》에서 《나 너의 기슭에/바위되여 솟고/너의 사랑의 입맞춤에 녹아/한알의 모래가 된다해도》, 《행복에 겨워 살려》 한다고 하였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닻과 성과 열을 안고 시인은 《이 세상엔 나의 조국 하나뿐인듯/세계를 굽어보고 사는 자존심》을 나의 조국-조선이 주었노라고 가슴벅차오르는 **김일성** 민족의 자부와 긍지, 사회주의조국의 인민이 된 한없는 행복과 환희를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조국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이렇듯 시인은 자기를 깨닫고 의식하면서 그 심원한 《조국의 의미》가 새겨져있을 시의 령마루-시의 최절정으로 다시 치달아오르는것이다.

이처럼 시인의 《매혹의 눈》만이 조국의 의미를 새겨볼수 있고 그 의미가 완전히 밝혀질 시의 령마루를 올려다볼수 있는것이다.

### 3. 사랑의 감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제는 시인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감을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심장을 불태우는가 하는데 있다.》

시인의 심장이 불타올라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이 깊어지고 사색의 세계가 비상히 높아져야 시문학에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킬수 있다. 이 시집안의 《나의 사랑 평양》, 《삶은 아름답다》편과 《높은 령마루》, 《나의 병사시절》편에 들어있는 시들에서 우리는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시인자신의 사랑의 감정정서적체험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시 《나의 연》, 《화가에게》, 《출생중》, 《술과 인생》, 《생의 찬가》, 《전쟁과 어머니》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는 인간사랑의 화원을 가꿔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사랑의 현대전설이 있고 유년시절의 꿈이 있고 망국시절에 노예가 되여 흘리던 눈물과 해방시절에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의 고마움에 대한 눈물의 가치도 있다. 또한 여기엔 말으면 산천의 정기가 스며 흐르고 닻에 깃드는 향토적서정과 값높은 인생을 조국에 바치는 로동의 구슬땀과 창조적 탑을 쌓는 위훈의 노래, 어머니조국땅을 총대로 지켜가는 병사의 긍지, 청춘시절의 사랑과 우정의 노래도 있다. 바로 시인은 삶의 희열로 가득찬 조국에 대하여 끝없는 환희를 안고 격찬하고있다.

시인의 첫시 《조국》에서 《시의 푸른 싹》이 움트고 시 《나에게 주는 격언》(4수)에서 그 《즐거》를 뻗치면서 시 《너에게 묻는다》(1,2)에서 새 자양분을 얻고 자라 시 《청춘과 사랑과 대동강》을 비롯한 여러편의 시들에서 새로운 《시의 잎새》를 펼치기 시작하더니 《나의 사랑 평양》, 《삶은 아름답다》와 《높은 령마루》, 《나의 병사시절》편을 거쳐 《바다의 광상곡》, 《명산의 근본》, 《금강산시초》에 와서 비로소 시의 잎사귀들이 더욱 푸르러 무성해지고 마침내 새 세기에 들어선 그 첫 아침에 《열매》를 보게 된 시 《조국이란 바로 이러한것》(1,2)이 세상에 나왔다.

한생의 창문을 닫을 때까지  
다 알고 살았던가 나의 조국을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리라 나의 조국을

조국이란 바로 이러한것!

《어머니가 꾸짖으면 아버지를 찾고/아버지가 꾸짖으면 어머니를 찾으며/굽다고 쓸어주는 사람만 찾아도/아픈매를 들고도 제먼저 눈물짓는 품》이 아니던가 조국이란! 《남처럼 입고 먹지 못한다고/가난을 타발하고 투정질하며/때로는 태깅고 자란 제집을 나서도/빗장을 걸지 않고 기다려주는 집》, 《비가 내리면 제 우산버리고/남의 꽃우산아래 제 한몸 맡기며/마른땅 골라뵈으며 한몸 아껴도/끝내는 오리라 기다려주는 세월》이 아니던가 조국이란! 《모금모금 먹고 자란 젖내가 싫다고/향수내 풍기는 옷자락만 찾는/별나비같은 안락에 순간 잠겼어도/버릴 자식 하나 없어 못잇는 정》-바로 이것이 어머니 내 조국, 위대한 선군시대, 위대한 사랑의 인덕정치, 광복정치로 빛나는 이 세상 오직 하나뿐인 위대한 **김일성** 조선-**김정일**조국이 아니던가! 이것은 현세계의 흐름속에서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사와 인간의 존엄 여지없이 짓밟혀 유린당하고 참삶과 자유가 얼어붙은 저 멀리 차디찬 대륙의 동토대와 인간삶의 불모지를 굽어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총대로 지켜주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무한대한 사랑에 눈물짓어 부르는 조국찬가가 아니겠는가! 하기에 우리 인민은 《고픈 배 달래여 찬물 마시고/찬구들에 잔등대고 누워 잠자도/속타배탈 모르는 고향집처럼/활개펴고 누워자면 천하가 제것인/주기만 하는것이 천품인듯 하여/보상과 받는것엔 인연조차 없는/날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처럼/차별을 모르는 끝없는 사랑》을 조국의 사랑으로 알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모두가 《늦게나마 철이 들어 조국을 생각하니/어머니와 나의 한생 보살펴준 어머니가》 있음을 다시금 놀랍게 깨닫고 의식했으니 그것이 바로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 나의 조국-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님의 품이었다.

## 4. 증오의 감정

사랑의 시편들뒤에 《단죄의 시편들》을 읽으며 또하나의 다른것을 느낄수 있는바 그것은 사랑은 증오를 낳는다는것이였다. 증오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생기는 감정심리이다. 가장 사랑할줄 아는 인간만이 가장 증오할줄도 안다.

증오의 사상감정은 사랑의 감정과 함께 민족적, 계급적성격을 띤다. 《단죄의 시편》들에는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가장 강렬한 증오의 사상감정이 집적되어있다.

특히 시 《못》은 그 감정폭발의 세기와 파렬성이 매우 강렬한 작품이다. 못은 집을 짓고 공장을 짓자고 만든것이다. 인간은 그것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꾸려왔다. 그러나 미제야수들은 우리 인민의 머리에 그 못을 박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못은 미제야수들의 《우상》이다. 그래서 이른바 《자유녀신상》의 머리에다 가지처럼 뻗죽뻗죽 못을 박았다. 아마도 미제야수들의 창자와 혈관속에도 못이 가득차 흐를것이다. 시에서는 이렇게 단죄하고있다.

《못을 가득 먹고 지옥에 가라고/네놈들의 상판 땅에 그러놓고/조선의 아이들이 풍속에도 없는/못치기놀이를 한다》고, 《신천박물판의 피묻은 못》은 《고인들의 머리에서 뿜았지만》, 《우리의 뇌리에 못처럼 깊이 박힌것》, 《미제와 결사전의 각오!》라고, 그래서 미제의 《멸망의 종지부를 이 못으로 박아 찍으려다》고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한다. 이처럼 자기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사상감정에서부터 강렬한 증오의 감정이 생긴다. 이것이 사랑과 증오의 필연적관계이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시초들인 《통일의 웨침》과 《신천시초》에서와 같이 하나의 시정신으로 일관되고 승화되면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랑의 시편의 사상감정은 증오의 시편들의 사상감정을 더욱 강렬한 세기와 파렬성을 나타낼수 있게 하는 감정적전제로 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또한 그 사랑과 증오의 사상감정은 하나로 융합되어 그뒤에 있는 시편들에서 발현된 념원의 감정정서로 이어지고 승화되면서 발전하게 된다는 합법칙적과정을 찾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편들은 단순히 주제별내용에 따라 묶여진 편집상의 요구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이 시집에 흐르고있는 일관한 시정신을 보여 준것이며 따라서 시작품들이 가지고있는 예술형상적질, 그 깊이와 높이의 성장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편집》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이 시집의 특성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이 시집의 창작적성과와 개개의 시편들이 가지고있는 시형상적질과 그 미학적가치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성장한다고 보는 까닭도 이때문인것이다.

여기에 이 시집이 보여준 창작경험과 시사성이 있을것이다.

## 5. 념원의 감정

그러면 이제 사랑과 증오의 사상감정이 어떻게 념원의 사상으로 결합되어 통일주체의 시편들에 나타나고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날지도 않은/하여 보지도 못한/자식의 이름을 지어놓고/부르며 기다리는 어머니처럼/너의 이름 통일이라 지어놓고/세월은 흘러 반백년은 더 지났다》

이것은 분렬된 조국에 대한 아픔이며 동시에 이제 통일될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깊이 깔려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는 분렬에 대한 아픔이 생길수도 없다. 하기에 서정적주인공은 분렬세대의 머리에 내린 흰서리를 통일아 너는 보지를 못하느냐고 절절히 웨치고있다. (시 《통일은 오고있다》에서)

아버이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안고오신 조국은 분렬조국이 아니라 통일조국이였건만 둘로 갈라진 조국을 두고 서정적주인공은 《내 삶의 첫 맥박이 두드리던 통일의 문을/내 후손이 두드리다 진해야 한단 말인가?!》고 절규한다. (시초 《통일을 부르는 목소리》에서) 그러한 사상감정은 《통일지사로 100년 사느니》 차라리 《통일투사로 사는 하루》가 더 귀중함을 느끼며 《하루를 번개같이 짧게 살자/번개뒤엔 반드시 우뢰가 있듯/짧게 산 하루끝에 통일의 우뢰가》 터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웨치는데 이른다. (시초 《이 길을 가자》에서) 정녕 그 우뢰소리에 분계선이 깨어지면 조국도 하나가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기는 통일을 소원하던 마지막사람이 될것이라고, 그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절절히 웨친다. (시 《소원》에서)

이러한 불타는 소원을 안고 마침내 서정적주인공은 《통일의 날 평양의 거리》를 꿈속에서조차 걸어보며 통일이 눈앞에 오고있음을 보고있다. (시 《통일은 오고있다》에서) 이 얼마나 확신에 넘친 량만적감정인가!

이러한 사상감정은 합쳐져 드디어 시 《통일의 날 평양거리에서》 최절정에 이르게 된다. 보는바와 같이 통일념원의 시편들에서는 이 시집안의 다른 모든 시편들에서 나타났던 조국사랑-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사랑하는 그 시정신이 뜨겁게 굽이쳐흐르고있다.

시 《통일의 날 평양의 거리에서》는 통일주체작품들 가운데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작품으로서 그 시적형상이 새로운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그 시적서정은 량만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량만적서정은 혁명적인 량만적환상으로 시의 사상감정을 펴나가고있다.

이 환상은 통일주체작품의 형상생리를 이루는 데서 중요한 형상적요소로 된다. 그것은 통일열망, 통일환희로 가슴벅차게 하며 통일의 래일을 확신케 한다. 또한 통일을 확신하며 사는 우리 인민의 량만적인 감정정서를 더욱 풍만하게 하며 양양시켜주는 활력적기능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량만적환상은 통일주체시작품의 혁

명적랑만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형상적요인으로 하여 그 미학적영향력과 가치가 크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랑만성을 하나의 중요한 형상적요인으로 하였던 랑만주의는 그 창작방법에서 작가의 리상과 희망을, 주로는 조건적인 형식으로 그려내는것을 형상적특성으로 하였었다. 그것은 지난 시기 계급사회에서는 당시의 현실이 작가의 리상과는 모순되고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모순과 대립에 기초하여 그러한 랑만주의창작방법이 선택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현실과 작가의 리상이 일치할뿐 아니라 발전하는 현실속에서 보다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어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는 랑만주의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다만 혁명적랑만성이 주체사실주의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되었다. 여기에서 랑만적환상수법은 혁명적랑만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과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이 시집안의 통일주체작품들에서 랑만적인 시적환상수법을 많이 리용한것은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특수한 역사조건과 현실적요구로부터 선택된 창작수법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전국적범위에서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역사적과업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국토랑단,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다. 이 비극은 통일에 의해서만 끝장날 수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꿈이다. 이 꿈은 깨어나 생시로 될것이다. 이 분명함을 확신하는것이 바로 혁명적인 랑판이다. 그러한 확신, 그러한 꿈을 시적형상으로 재현하는데서 랑만적인 시적환상수법은 통일주체시작품들의 생리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형상수법으로 된다. 그러므로 랑만적환상수법으로 통일주체의 시들을 꾸민것이 이 시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시 《통일의 날 평양의 거리에서》는 그러한 랑만적인 시적환상으로 꾸려졌기때문에 시를 읽으면 마치 통일의 날에 평양의 거리에서 느끼는 감격과 환희가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술형상적발견이며 이 시만이 가지고있는 개성적얼굴이다. 바로 여기에 랑만적 환상수법이 가지는 시형상적의의가 있는것이다.

## 6. 시집의 형상생리적기본특성

시집 《조국시초》의 시형상적특성은 무엇이겠는가? 이 시집안에는 백수십편의 시들이 있다 시편들은 다 시적대상도 각이하며 그 정서적색갈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편들이 조국찬가어로 지향되고있다. 그러므로 조국에 대하여 노래한 《큰 시뭇잎》으로 여기며 시집을 《조국시초》라 이름하였다고 본다. 시집안의 시작품들에 흐르는 기본 사상감정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랑과 증오와 념원의 감정정서로 펼쳐져있으며 조국사랑과 찬양의 정신으로 일관되어있다는것을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 이것이 기본으로 되는 시형상적특성일것이다.

다음으로 시집의 매개 시편들은 자기의 시형상의 결점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면서 점차적으로

극복하고있으며 전면적인 완전교제로써 시형상을 혁신해나가는 과정이 마치 하나의 서정시안에 《기, 승, 전, 결》이 있는것처럼 시편들이 승화발전되는 그 구획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때문에 시집을 읽고나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된 장시를 읽은것 같은 느낌까지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시인들에게 자기의 《창작적좌표》와 《리정표》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또한 이 시집에는 경구적인 시표현들이 많으며 《자기식의 투》를 가진 시표현들로 시문장들이 특색있게 꾸려지고있다는것이다. 실제적으로 시의 정서적향기와 맞은 명표현, 명시구들에 의해 얻어지게 되는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시편들이 독특한 시운물적특성을 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특징적인것은 시의 매련의 첫줄은 대체로 두세소리마디로 된 시어로 시작하여 다음의 시줄들은 소리마디수를 하나 또는 둘씩 점진적으로 들어가며 시줄을 계단식으로 배열하고있다. 이러한 운각조성과 운물단위구성은 호흡에 따라 시줄의 길이를 분행하여 시의 감정정서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시운물조성법이다. 이것은 감정정서의 운동성을 보다활발하게 하며 양양시켜나가는데서 효과적인 운물조성법으로 된다. 시 《한생》, 《생가》, 《그들의 고향은...》, 《나의 연》, 《화가에게》, 《파문》, 《결혼식날에》 등과 같은 시들이 그 대표적작품으로 된다. 이러한 의식적인 시도는 시적정서의 생동한 표현에 이바지하는것이 운물의 기능에서 기본이라는 형상원리를 알고 씌여졌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각이한 시형상대상과 각양각색의 정서적색갈을 가진 시들이 다같이 하나의 조국찬가어로 지향되고 시련들의 밑바닥에 한줄기의 피줄처럼 일관하게 흐르고있는 사랑과 증오와 그 어떤 념원의 감정정서, 시형상적질이 점차적으로 혁신되어가는 과정, 경구적인 시문장들, 시행을 계단식으로 배열하는 운각조성과 운물단위구성과 같은 여러 요소들과 요인들의 기능과 작용에 의하여 모든 시편들과 시집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 형상생리적특성을 가지게 된것이다. 이것은 시집을 묶는 시인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게 될것이다. 시집이 거둔 귀중한 성과가 여기에 있다.

## 7. 시집을 다 읽고난 뒤에...

시집 《조국시초》는 해방후동일로 태어나 조국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던 어제날의 천진한 소년-시인이 자기의 운명을 살려주고 키워준 은혜로운 조국을 총대로 지키며 알고 최물을 녹이며 알고 붓대를 들고 알았음을 《시의 꽃》으로 엮어 어머니조국에 바친 《노래의 다발》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생토록 시를 사랑하고 즐겨 읊조려온 평범한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시집 《조국시초》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열렬한 조국애의 사상감정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민는다.

나는 시인이 선군시대의 새로운 조국찬가-제2의 《조국시초》를 내놓으리라는 기대와 보다 독특하고 이채로운 시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인에게 몇가지 의견을 주려고 한다.

시인은 시 편편마다 자기식으로 기발하게 착상도 하고 새로운 시적언어표현으로 시를 꾸밀 줄 아는 형상적특기를 가지고있으나 일부 시들은 논리가 앞섰거나 시적화폭보다 상념적이어서 정서적향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참작했으면 한다.

시가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이나 예술형상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는 생활의 시적화폭을 통해서만 의의있게 풀수 있다. 이것이 문학의 고유한 본성이며 주체사실주의시가문학의 형상적요구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작)이나 가사 《나는 알았네》(전동우작),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전동우작)와 같은 작품들은 다같이 조국을

노래한 작품들로서 그 철학성과 지성세계를 생동한 생활적표상, 구체적생활의 시적세부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다른 하나는 시를 멋들어지게 꾸미려는 창작적의도는 나무랄바가 아니지만 너무 《예술적기교》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물론 시는 멋들어지게 읊을 맛이 나게 매력적인 시어, 시구들로 엮으면 더없이 좋다. 그렇다고 멋부려 썼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기교주의》에 빠질수 있다는데 극력 류의하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이 글을 마감지으며 시인이 시집을 내면서 한 말을 다시 적어본다.

《나의 손에 쥐여진 종이와 펜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만을 노래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은 시인이 다진 맹세였으며 독자들의 기대이기도 한것이다.

## 심장에 새겨진 모습

홍철진

나의 일터

정문에 들어설 때면

엄숙한 눈빛으로

말없이 묻고있는 사람이 있다

-동무는 공동구호정신으로 살고있는가

어찌 붓끝에 실려

우리앞에 다가선 모습이랴

보아라

이미 우리와 친숙한

낯익은 모습이 아니냐

이 땅에 처음으로

천리마가 네굽안고 날아오를 때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엄숙히 묻던

틀림없는 그 모습이다

그 눈빛

그 물음앞에서

시대는 천리마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천리마기수가 되었나니

소극과 보수, 신비주의를

펼 펼 끊는 용광로에 처넣으며

질풍같이 달리던

그날의 천리마기수

80년대에는 하루일지를 펼쳐들고

또다시 우리앞에 나서지 않았던가

-동무는 숨은 영웅들처럼 살고있는가

그 물음앞에

시대가 다시

기적과 위훈으로 대답했다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불길이

3대혁명붉은기훈장으로 빛나는

기수들의 가슴으로 하여 시대가 눈부셨다

세월은 흘러

천리마기수들 머리우에

이제는 흰서리 내렸어도

그날의 천리마기수

오늘은 선군통마타고

우리에게 또다시 묻지 않는가

-동무는 공동구호정신으로 살고있는가

어머니당창건 60돐을 향하여

구보로 달리는 천만군민을

선군혁명총진군의 새로운 양양으로

말없이 떠밀어주는

저 낯익은 모습앞에서

시대는 또 얼마나 번모될것인가

인간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아, 이제 또 강산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을

심장에 새겨진 모습이여!

영원히 함께 갈 저 모습속에

나도 있다, 너도 있다

## 심장을 바치라

홍현양

우리는 새 전투명령을 받은 전사  
피땀은 가슴에  
당의 전투적구호를 받아안고  
총진군의 길에 올랐노라

우리의 심장에 불을 지퍼준  
당의 그 부름에  
천만군민이  
생각도 결음도 하나로 맞추고  
철벽의 초소와 불꽃튀는 기대앞에  
푸른 이랑 설레는 말머리에  
대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돌격의 기발을 날리노라

이 땅은 어디 가나 백병전의 돌격참호  
가야 할 진군길에 바쳐갈  
우리의 붉은 피방울  
사품치는 쇠물처럼 끓거니  
산악앞에 물러서라  
진멸이라 예돌아가라  
심장을 바치리라 당의 부름에

보라  
오중흙7련대기발을 휘날리며  
무적필승의 일당백병사대오는 굽이친다  
무산의 광부들은 대발파의 심지에  
비약의 불을 달았다  
기적소리 우렁차게 울리며  
렬차들은 궤도를 번개치며 질주한다

푸른 강줄기를 휘어잡는 언제우에도  
은빛추녀를 올리는 대안땅의 하늘가에도

장군님을 그리며 대고조의 불길을 일으키던  
70년대 70일전투 나날의  
뜨거운 그 마음들이 흐른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오늘에 바치는 피땀은  
래일의 승리속에 영원한것  
아까울것 없으라  
당의 전투적구호를  
목숨바쳐 관철하는 길에 우리는 총폭탄

선군혁명동지로 손을 잡고  
천만심장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대오  
우리 다른 길은 몰라라  
어려워도 힘겨워도  
설사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진대도  
붉은기를 높이 든  
우리 돌격의 발걸음 드팀이 없으리라

아, 당의 부름에 우리 심장을 바치리니  
우리의 억센 발걸음소리  
강산을 울리는 비약의 우뢰가 되고  
우리의 뜨거운 숨결  
이 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  
대지의 훈향이 되리라

온 세상이 우러러 바라볼  
10월의 광장 하늘가에  
우리 심장의 불을 달아  
승리의 축포를 터치리라!

주체94(2005) 7. 6

## 어머니당은 부른다

한광춘

심장은 뛴다  
붉은 피 뛴다  
승리의 10월 대축전장으로 부르는  
우리 당의 목소리에  
용기는 천백배로 넘친다

나래쳐가자  
우리의 날과 날은  
평범한 시간의 분초가 아니다  
목표는 더 높이

일판은 더 크게

이 땅에 생을 두고 살며  
우리 저 하나 안락을 바란적 있었던가  
당이 부르면 언제나  
더운 피와 땀 아낌없이 뿌리며  
성스런 당기에 승리를 새겨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하루하루  
너와 나 걸음걸음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결사관철의 그 자욱으로 이어가자  
리수복영웅의 돌격로우에  
값높은 삶의 순간순간을 새겨가자

선군혁명총진군으로 내달는  
우리의 길  
10월의 광장까지는 몇천몇만 자욱이나  
그 자욱자욱은  
우리 당의 60년을 세상에 떨치는 자욱자욱  
그 하루하루는  
우리 당의 역사를 만대에 빛내이는 하루하루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랴  
심장을 아끼랴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어제날 백걸음 천걸음을  
오늘은 하루에 비약하며  
폭풍쳐가자  
노도쳐가자

천만군민이여  
일심단결의 대하여  
애국의 한마음 폭발시켜  
강성대국의 역척같은 대들보를 얹으며  
선군통마의 무쇠발굽으로 지축을 울리며  
10월의 광장으로 가자

세계는 보게 되리라  
후손들은 알게 되리라  
우리 장군님 키우신 선군혁명동지들이  
어떤 불굴의 투사들이냐  
어떤 기적의 영웅들이냐

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창건 60돐을 맞는  
로속하고 세련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 펼쳐질  
경사로운 대축전장에  
자랑높이 들어서자  
보무당당히 들어서자

주체94(2005). 7. 6

## 푸른 들에 10월이 설레인다

신문경

푸른 하늘 푸른 들  
곡식들이 설레이는 지평선 저 끝까지  
모든것이 새롭구나  
어머니당의 부름안고  
이 아침 들길에 나서니  
고향별이 류달리도 정다웁구나

별이여  
너의 천이랑 만이랑  
끝없는 환희에 젖고  
이 가슴 피끓는 맹세로 불타오르거니

총탄이 날고 폭탄이 작렬하는 곳만  
전장이라 하랴  
쌀이 없인 우리의 승리가 없기에  
총진군의 피성이 울리는  
별은 나의 전호  
우리의 기본전선

승리의 10월로 가는 길이  
풍요한 이삭이 무르익을  
별에서 열리고  
별에서 뻗어가거니

우리 당이 펼칠 10월의 대축전장  
그날에 홍성일 만가지 기쁨이  
풍성한 오곡으로  
한껏 설레일 벌이여

너의 이랑들에 피줄기를 이어놓고  
숨결을 바쳐가리  
불별도 찬비도 포전에서 맞으며  
낮과 밤을 들에서 살리

10월의 들판에 물든 이삭빛으로  
우리의 당기가 더 눈부시고  
이 땅에 높이 쌓을 로적가리에 들려  
내 나라의 하늘이 더 맑고 푸르리라

아, 나는 이 아침도  
10월이 설레이는 들로 간다  
우리 당의 구호를  
천만이랑 뻗어간 대지에 새기며  
풍요한 가을로  
10월의 경사를 펼치려간다

주체94(2005) 7. 6

시조

## 그대 위한 내 사랑

김정곤

### 나의 시가에 답아

굳어진 듯  
움직임 모르는  
영예군인 침상머리 향해  
그런 듯 서있는 처녀

벌써 그 몇 번  
돌아가라는 《차디찬》 말마디를  
가슴의 불로 녹이며  
소리 죽여 또다시  
알릴 듯 말 듯 다가가는  
처녀의 발자욱소리  
그 소리 오션지에 담으면  
아름다운 선물이 흐르지 않을까

말없이, 조심히  
깃털처럼 내려앉는  
처녀의 손에 모인 체온  
마른 가지에 닿으면 햇순 부풀지 않을까

모르는 듯  
아는 듯  
올려보는 영예군인의 물기진 눈동자  
내려다보는 처녀의 맑은 눈동자  
부딪쳐 허공에 튀는 불꽃  
창넘어 휘뿌린다면  
두리는 얼마나 밝고 환희로울 것인가

아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언덕으로  
끝내 병사를 안아올린  
처녀의 사랑이여  
선군세월의 청신한 사랑이여

이 사랑  
자자구구 시가로 엮으면  
후세에 전해질  
선군사랑의 전설은 아닐까

### 자기를 바쳐

두눈을 잃은 병사에게  
너인은  
자기를 바쳐  
새삶의 빛을 주었습니다

두다리 잃은 병사에게  
너인은  
자기를 바쳐  
인생의 새 걸음을 주었습니다

하다면  
너인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조국을 위한 병사의 희생이  
얼마나 값높은가를  
너인은 사랑으로 보증하여  
총권 병사들의 전우라는  
이 한마디로 남아

아! 한마디 전우로 남아  
군복에 누빈 햇숨처럼  
따뜻함과 밝은 웃음을  
무쇠가슴들에 출렁이게 하고있습니다

### 그날의 병사로만...

병사가 조국에 바친 모든것을  
너인은 자기가 받아 간직하고있든듯  
스스로 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누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안해의 마음으로 웃음도 짓고  
때로는 엄마되어 눈곱을 적시고



때로는 전우가 되어  
노래도 같이 부릅니다

무엇을 분식하겠습니까  
그처럼 어려움과 힘겨움이 밀려와도  
사랑이라는 넓은 폭에 싸안아  
헤치며 이겨가는것도  
행복이라고 웃음짓는 너인

너인앞에는  
오각별군모를 눌러쓰고  
총가목에 손을 얹은 병사  
그 병사만이 벋글거리며 마주 서있답니다

오! 사랑의 힘이  
펄펄 날던 그날의 병사를  
그대로 가까이 당겨와  
너인앞에 남편으로 세워준것이니

누워 있어도 앉아있어도  
조국의 성벽이던 그 산악같은 어깨에  
제 작은 어깨를 나란히 세우며  
너인은 늘 그를 높이 보며 살고있습니다

아십니까  
높이 향한 사랑은  
진함을 모릅니다

## 아, 당신

전호에 가슴을 맞대이고  
군복깃에 성애가 불리어도  
숨결 뜨거웁던  
그 호흡소리를 나는 늘 듣습니다

장군님 중대에 오신 날  
태양같은 미소앞에 두볼에 타던 눈물  
지금은 방울방울  
내 가슴에 보석이 되어 빛뿌립니다

명사수 꽃을 달고  
활짝 웃는 그의 사진이  
내 마음에 싱싱 살아있어  
나도 모르게 볼우물이 물결치게 합니다

대렬합창에 선창을 떼던  
그대의 웅골찬 목소리  
때없이 내 가슴을 흔들어  
내 걸음발을 기운차게 합니다

아, 당신  
당신은 하나도 잃은것 없이  
빛나는 눈빛 그대로  
힘찬 팔다리 그대로  
더 커지여  
내게로 온것입니다

그대 위한 내 사랑  
저 하늘이다  
총을 멘 그이 어깨가  
비오나 눈오나 떠받들고있던  
머리위의 푸른 하늘이

저 대지이다  
그대 군화자욱 찍으며  
소금버캐 일도록 강행군의 천리가 비껴간  
한껏 살진 대지가

바줄을 잡고  
칼벼랑도 날아올라  
철갑모에 구름을 휘감으며  
위용찬 조국의 함성인듯  
찌렁찌렁 군가를 부르던  
아슬한 산발도 그이 발밑에 있던 산발

거리로 엇갈리며 흐르는  
아이들 꽃물결을 보아도  
그이 었디였던 전선고지  
찬비 뿌리던 전호가 다가온다

철따라 피는 과일꽃 한송이  
철따라 지는 나무잎 하나에도  
침략의 검은 손이 닿을가  
방아쇠에 손을 걸고  
목숨도 내대인 그이

그이의 등을 쓸어보아도  
조국의 큰짐 실었던 잔등이다  
톡톡 튀는 박동소리 들어보아도  
조국의 큰 심장에 잇대여 뛰던 피줄이다

옷장에 걸린 군복을 내리워  
이따금 다림발을 세워도  
참호의 위장풀 내음새

물씬물씬 목메이게 일어난다

아, 그대

조국을 불안던 큰 가슴에

작은 이몸 기대이고

마음에 흐르는 한결같은 정은

그대 위한 내 사랑

그대 지킨 땅과 하늘처럼 가없기를

그대가 쓰다듬던 전호의 흠빛처럼

그렇게 변색을 모르기를

그대를 위한 내 사랑

심치입은 육신의 아픔 가뭇없이 가시여주고

충을 불안던 그 가슴이

이 뜨거운 정을 받아

더 펄펄 끓기를

내 사랑 소생의 날개 되어

마중하는 하루하루가

봄맞이로 창창 열려지기를

그리고 사랑이

죽음도 이긴다는것을

이 크지 않은 몸으로

선군녀인의 소박한 마음으로

보여주고싶노라

함뼉 안겨주고싶노라

## 병사의 손

박세일

오늘은 나의 병사들을 위하여

통시간을 내겠다 하시며

초소에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병사들의 훈련모습도 보여주시고

갱도식 령장고안에도 몸소 들어 가보시고

떠나시기전에는 그들의 소원 헤아려

기념촬영도 하여주시고...

병사들 소원이 백가지라면

천가지 만가지로 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

사랑의 자욱을 초소에 남기시고

야전차에 오르시는데

말릴새도 없이 용수철처럼

불쑥 튀어나온 한 병사

-아버지 장군님

한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무슨 소원이요

어서 말해보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고싶습니다

순간 철없는 병사의

무례한 행동을 두고

일군들과 장령들 몸둘바를 모르는데

뜨겁게 올리는 장군님의 음성

-좋아

최고사령관의 손도

병사들을 위하여 있는것이지

자, 어서 잡아보오

아, 그이는 이렇게

외람된 청을 올린 병사를 탓할대신

천하를 위락파락하시는

무적필승 장군의 그 손을

이름없는 한 병사의 자그마한 손에

스스럼없이 맡기셨나니

최고사령관동지의 손을

두손에 감싸쥐고

행복에 웃고 우는 병사여

태양의 열도인 장군님 체온으로

심장의 피를 끓인 복받은 병사여

선군령장의 체온으로 더욱혀진

병사의 그 손

온 세상이 보란듯이

기발처럼 높이 들라

힘껏 들어쥐면

사랑과 믿음으로 다져진

병사의 무쇠주먹

한번 들어 내리치면

결사옹위의 폭탄이 되는

아, 복받은 병사의 손이여!

## 백두산정에서

장선국

백두산정에 오르니  
몸과 마음 다시 태어나는구나  
저 멀리 압록강 두만강은  
실오리를 늘인듯  
천리수해는 푸른 잔디밭인듯

불러도 불러도 또 불리지누나  
백두산 백두산 그 이름이여  
내 나라 조종의 산  
이 나라 어머니산이여

항일빨찌산 그 이름과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락엽처럼 떨군 산  
여기선 멀고 가까운 곳  
천하가 네 봉우리밑에 있도다

보아라  
울부짖으며 노호하며  
미제의 기계화사단들을  
선채로 얼어붙인  
황초령의 장진호반이  
여기서 시작되고

미제의 《강대성》의  
함정골에 처박은  
영웅의 봉우리 1211고지도  
네가 다 안고있지 않느냐

위대하여라  
여기서 네 또한  
신군의 태양을 받들어 올라  
백두산총대바람을 일으켰고

가사

원썩을 디불러대며  
천하를 흔들고있나니

아 세상을 굽어보며  
한껏 웨쳐보는 마음  
소리치며 부딪치며  
집채같은 바위를 굴러  
모래알마냥 산산이 부서뜨리는  
백두산이여 너의 기상인가

광대한 만주별관을  
순간에 재와 솥으로 만든  
그날의 너의 활화산이  
이 마음에서 일어서는가

저도 모르게 백두산정에서  
주먹을 높이 들고  
호호탕탕 발을 구르며  
천하를 향해 웨치노라

들으라 세계여  
여기 솟아 세기를 떨치는  
백두 너같이 억세고  
백두 너같이 드넓지 않는  
선군의 기상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 원썩들  
우리의 발밑에 있도다

백두산 백두산 아아  
불러도 불러도 또 불리지 않는 산이여!

## 어머니의 소원

리진묵

어머니가 내 이름 지어주실 때  
바라신 그 소원 무엇이던가  
나라위해 훌륭한 아들이 되라  
내 삶의 앞날을 축복해주셨네

사랑과 정을 다해 키워주실 때  
어머니가 바라신것 무엇이던가

인생길 천리만리 끝까지 가라  
위훈의 억센 날개 달아주셨네

머나먼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어머니의 소원도 함께 걸었네  
당을 따라 걸어가는 자욱마다에  
그 소원 무지개로 비껴있었네

## 편집부의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역센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온 나라가 당창건 60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고 승리자의 대축전장으로 달리는속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실현된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복반부제로의 송환 5돐을 맞이한다.

편집부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창작한 작품들과 글들을 소개한다.

## 우리 동네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남들이 다 자는  
첫 새벽이면 부산한 동네  
이집저집 문 열리는 소리  
승강기를 곁에 두고도  
하나, 둘 보폭을 맞추며 산보 떠나는  
여기가 비전향장기수 우리 동네입니다

한번 들이키면  
10년은 젊어 질듯만싶은  
조국의 신선한 공기  
아무리 걸어도 힘들지 않아  
땅이 닳도록 걷고 또 걷는  
우리의 운동길입니다

동지들과 어깨나란히  
산보길 걷다가도  
이 현실이 너무도 꿈만같아  
첫 새벽에도 눈굽을 적시며  
우리 사는 창문들을 올려다봅니다

조용한 곳에  
비전향장기수 우리가 살  
독집이 마련되었을 때  
수도의 한복판에  
함께 모여 살도록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해주신  
우리 장군님

조국의 품에서야  
무엇때문에 독집에서 살게 하겠는가  
그들은 조용한 곳이 아니라  
우리 조국이 들끓는 소리를 듣고싶어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장군님 사랑에  
우린 목메여 울었습니다

철창속에서 30년 40년  
보고싶고 듣고싶고  
인정에 주렸던 우리  
장군님 품에 안겨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삽니다  
조국의 숨결소리 다 듣고싶어  
창문을 안닫고 우리 삽니다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감옥에서 통방신호로  
안부를 주고 받던 동지들이  
이집저집 옷층 아래층  
때없이 오고가며 문을 두드립니다  
때로는 제집 문도 꿈만 같아  
사랑으로 두드려보는  
비전향장기수 우리들입니다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싶어하시는 장군님 사랑  
잠든 때에도  
소리없이 머리말에 찾아오는  
그 사랑으로 눈부신 창문  
여기가 우리 사는 동네입니다

사랑이 모여사는 동네입니다  
가장 행복한 웃음들이  
층계마다 흐르는 동네입니다  
나날이 넘쳐나는 젊음을  
장군님위해 끝까지 바쳐갈  
보답의 마음들이 모여사는  
여기가 우리 비전향장기수동네입니다

## 눈물의 노래

비전향장기수 최태국

### 나의 노래

눈물이 어이 노래가 되리  
철창속에서 35년  
나는 눈물조차 말랐던 사나이

한모금의 물도 그리웠다  
차디찬 감방에서는  
그래서 줍이 말랐던가  
눈물도 말랐던가

교형리들이  
살점을 뜯어내는  
《칭기스한》의 불고기고문  
시뻘건 인두가 발바닥을 지질 때도

나는  
피터지게 입술을 깨물며  
천만배의 복수를 다짐했나니  
그래서 눈물도 말랐던가  
그런데 어인 일이나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땅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설 때  
내 그만에야  
철부지 어린애가 되어  
두무릎을 꿇었다  
쏟아지는 눈물  
하염없이 두볼을 적셨나니

오, 수수십년  
가슴에 쌓이고 쌓인 눈물이  
모진 아픔과 모진 슬픔을 다 끌어내며  
행복의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판문점회의실에 모셔진  
꿈결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뵈옵는 순간  
아뢰고싶었던 천만마디 말을  
눈물이 대신하였다  
눈물이 다 말하였다

### 안해의 노래

내 무슨 노래를 엮으리까  
긴긴세월 당신을 기다려온  
이 안해가 아니냐요

이제면 오시려나  
저제면 오시려나  
밤에도 문이 닫기면  
금시라도 밖에 서있을것만 같아  
밤에도 사립문을 닫지 못했던  
이 안해예요

어쩔 눈물이 없었겠나요  
유복녀 첫 애가 태어났을 때도  
유치원에 가던 그 애가  
우리 아빠 어디 있나  
안타까이 물을 때도

어쩔 눈물이 없었겠나요  
당신의 생일날이면 생일상 차려놓고  
비어있는 그 자리  
당신을 기다리던 제가 아니냐요

그래요  
유복녀가 새각시 되던 날  
사위가 부어주는 술잔을 들고도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꼭 오리라고 믿고 믿어  
좋은 날 좋은 때 골라 지은 옷  
차곡차곡 쌓여  
장농가득 넘치는데

울고싶어도  
울수 없었던 저예요  
내 눈물을 보이면 당신 마음 약해질가봐

내 울면 딸애의 마음 약해질가봐

그 마음 천리만리  
철창속에 날아가서  
당신에게 신념이 되라고  
의지가 되라고  
그래서 눈물을 보일수 없었어요

당신과 꿈같이 만났을 때  
아버이수령님 우러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우러르며  
나는 처음으로 물목을 터쳤어  
이제 더는 참지 못해  
이제 더는 참지 못해...

## 딸애의 노래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맞나요  
이 딸에게 남긴건  
조그마한 사진 한장  
  
그것은 나의 아버지  
밤이면 밤마다  
포근한 요람에서  
가슴에 꼭 안고 잠들던 아버지

이제는 그 사진도 보풀이 일었어요  
  
간절한 정  
사무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작은 가슴에 모이고 쌓여  
아버지! 아버지! 소리쳐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고마워  
이 딸이 소리쳐 부릅니다

## 독자편지

## 참된 생활의 교과서

저는 잡지 《조선문학》 애독  
자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얼마전 《조선문학》(주  
체94(2005). 4호)에 실린 비전  
향장기수 김동기동지가 한 통  
일에국투사에 대하여 쓴 수기  
《철쇄로도 묶지 못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감동깊게 읽  
었습니다.

한 인간의 강의한 신념과 불  
굴의 투지를 요란한 구호나 멋  
들어진 설명으로가 아니라 감  
동깊은 사실과 생동한 생활세  
부를 통하여 보여준것으로 하  
여 불굴의 통일에국투사들의  
참된 정신세계를 보다 감명깊  
게 받아안았습니다.

실례로 짝이 맞지 않는 검은  
고무신세부는 투사들의 어려  
운 감방생활을 잘 보여주고있  
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마을을 통과하던 원썬놈들은  
길에 넣어놓은 보리를 짓밟고  
지나가지만 인민군군인들은 그  
것을 에돌아 미끄러운 논둑길  
로 행군하는 간단한 하나의 내  
용을 통하여 미제놈들의 비인  
간적이며 반인륜적인 면모를  
구체적인 대조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벼슬이 높고 많은 재산  
을 물려줘서 아버지를 《존경》  
한다는 교회사νομ의 말과 비록  
가난하지만 자식에게 인간의  
참된 량심을 심어준 부모님들  
을 존경한다는 불굴의 애국투  
사의 말을 통하여 두 인간의  
사상정신적차이를 아무런 꾸밈  
도 없이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싱턴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교회사  
νομ에게 나는 김일성 장군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하는 불굴  
의 애국투사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순결한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하기에 그는 최후의 순간에  
도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  
렀던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적신념  
과 의지로 받들어나가며 당창  
건60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  
동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  
을 관철하기 위한 알곡증산에  
펼쳐나선 우리 농업근로자들에  
게 더 큰 힘이 되고 참된 길동  
무로 되는 좋은 글들을 더 많  
이 실어주기 바랍니다.

평안북도 운전군 구련협동농장  
농장원 강정실

## 비전향장기수-나의 어제와 오늘

비전향장기수 김용수

### 1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긴긴세월  
홍안청춘이 백발이 될 때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뻐삼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 오늘 생각해보노라

세상이 넓다지만  
사방 콘크리트벽으로 막힌  
무덤 같은 0.75평  
그속에서 삶과 죽음과의 싸움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교형리들은  
전향을 안한다고  
앞수정 뒤수정 대포수정  
물고문 전기고문 비행기고문  
그자들의 끊임없는 악행에  
피가 흐르고 살점이 찢기웠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공중에 매달려  
통에 담금질하기 그 몇번  
그때마다 배속 깊은 곳에서  
분노의 열물을 토해냈다  
복수의 이를 갈았다

그렇다! 감독은 고독이다  
나 홀로 갇히워 고독하고  
동지들과 떨어져서 외롭다  
해야 할 일 다 못하니 안타깝다

고독은 밝은 해빛아래서  
푸른 하늘을 한껏 날고싶어  
몸부림치는 조롱속에 든  
외로운 한마리 새다

고독은 소외다  
하지만 나는  
언제한번 소외당한적이 없다  
동지의 사랑속에 숨쉬고  
투쟁의 신념으로 심장이 뛰고  
어머니당의 품에서 떠난적 없었다

놈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기절하기 그 몇번-  
희미한 의식속에  
먼저 떠오르는 위대한 수령님 모습  
그러면 신심도 용기도 되살아나고  
꺼져가던 생명도  
봄날처럼 소생한다

오, 사랑하는 조국이여  
견딜수 없는 고통의 순간마다  
나에겐 단 하나  
비장한 불패의 무기는  
오로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변할래야 변할수 없는 신념!

조국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내 흘린 피자옥 그리도 떼뜻하고  
내 그대를 그처럼 흠모했기에  
신념의 한생 변함없었나니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나에게 그대가 소중히 간직되어있었기에  
그 모진 고통속에서도 잃지 않은  
통일애국의 발걸음이 있었거니  
그대를 위해서  
단두대앞에서도 웃을수 있었더라

### 2

단 1초면 넘을수 있는  
분계선을 넘는데

우리는 30년, 40년이 걸렸다  
아, 한많은 비극의 장벽  
원한의 분계선아!

우리가 분계선을 넘은것은  
단순한 위도상의 위치이동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지옥에서 락원으로 온  
운명의 전환이었다

감옥에서 가뭇없이  
한생을 마치고말았을 비전향장기수들이  
그립던 조국-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울며 웃으며 안긴 때부터 다섯해!

때없이 돌이켜 보노라  
남녘의 감옥에서 고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하루빨리 데려와야 한다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위업에 심혈을 기울이신  
아버이 우리 수령님!

우린 다 몰랐어라  
비전향장기수 우리를 위해  
우리 장군님 얼마나 마음 쓰셨는지  
어머니품에 안기였을 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  
주면 줄수록 더 주고싶어하는 사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

고목에 꽃을 피운 전설같은 이야기  
《총각아바이》 꽃같은 색시 만나  
꽃핀 가정에 열매 또한 없을소나  
반민의 축복속에 《축복》이 태어나서  
온 나라가 경사로다 축복이로세!

날이면 날마다 계절이면 계절따라  
인생의 즐거움 다 누린다네  
내 살아서 다시 못오르면  
넋이라도 오르고싶었던  
혁명의 성산 백두산마루에 올라  
백두의 장엄한 해돋이에 매혹되어  
태양찬가를 소리높이 불렀노라  
백두산의 기상을 호흡했노라

여름에는 동해명승 송도원에서  
백사장에 덩굴며  
흘러간 동심을 되찾기도 했고  
가을에는 구월산 단풍에 취해  
몸도 마음도 붉게 물들였던  
금수강산 내 나라는 가는 곳마다  
선군8경 좋을시구 어깨춤 절로났소

꿈 같기만 하더라  
기나긴 수십년 지옥의 철창에서  
저 멀리 북녘하늘 우러르며  
죽어도 전향은 안하리라  
그것을 혁명임무로 알고산 이 몸  
이 행복, 이 영광 받아안을줄은  
정녕 몰랐더라

감옥에서 이름마저 빼앗기고  
수인번호대신 당원증번호로  
원수들과 싸웠던 우리  
그것이 안겨준 사랑과 믿음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건만  
조국통일수상자로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으로  
민족앞에 내세워주신분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세상에 높이도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죽쇄가 앓아간 청춘을 되찾고  
철창속에 시든 인생을 품에 인아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사랑  
그것은 우리 장군님만이 주실수 있는 사랑이었다  
비전향장기수, 우리가 받아안은 오늘이었다



#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드는 오늘의 김혁, 차광수가 되고 김책형의 충신이 되자!

-공동구호에서-

수기

## 사랑에 대한 생각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명절날이나 여러 계기를 통하여 한자리에 모이면 합창으로 리인모동지가 작사한 노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자주 부른다.

나도 홀로 서재에 있거나 침실에 있을 때면 이 노래를 부르곤 한다.

따스한 이불속에 잠들다가도  
문득 깨어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 사랑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내 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눈물이 말라버린 늙은 이몸도  
고마움에 울고옵니다

아 김정일 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조용히 이 노래를 부르느라하면 오늘의 행복이 가슴에 사무쳐와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을 바라고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행복의 씨앗이라고 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독감방에 있을 때 사랑이 너무도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30~40여년동안 독감방생활을 하다보니 그 누구에게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싶은것이 우리들의 공통한 심정이였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사랑도 받아보고 사랑을 줄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만큼 사랑에 굶주려본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사랑은 고사하고 폭력과 기만만이 살판치는 인권불모지에서 사랑이 목마르도록 그리웠던 나날이였다.

감옥이란 자유의 반대개념이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자유 아니면 감옥이라고 웨치지 않았는가

다.

감옥이란 사랑의 반대개념이기도 하다. 그곳은 인간성이 배제된 랭혹한 공간이다.

때문에 감옥에는 사랑이란 머리칼 한오리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적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외부세계와 철저히 격리시키려고 0.75평 독감방에 개미 한마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2중3중의 철조망과 콘크리트담벽을 쌓고도 모자라 육중한 철문으로 봉쇄하였다.

그들은 그들자신이 동양최대의 감옥이라고 자랑하는 대전감옥에 살인강도 등 흉악범과 5년 이상의 징역형과 감옥에 세번이상 들어왔던 전과범을 수감했다.

그 감옥밖에는 전기철조망을 치고 경비교도(감옥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현역군인)초소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무장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있다. 바로 그 철조망밖에는 순찰도로가 있는데 놈들은 도보로 혹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을 따라 수시로 순찰한다. 외각철조망에는 외부사람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 철조망에서 안쪽으로 50~100미터정도의 사이를 두고 다시 철조망이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그 안쪽 철조망에서 다시 50~100미터의 공간을 두고 막 6미터높이의 콘크리트담벽이 있다.

그 콘크리트담벽우에는 레이자광선장치가 되어있어 날아가던 까마귀라도 내려앉으면 보안과 전자감시실의 비상종이 울리고 기동타격대가 출동한다.

하기에 장난기가 심한 수감자들은 놈들을 골탕먹이려고 담너머에 큰 돌을 던지곤 하였는데 그럴 때면 비상종이 다급히 울리고 기동타격대가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놈들은 그렇게 감시해도 탈옥자가 계속 생기자 이번에는 텔레비존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안과 텔레비존화면을 24시간 가동시키였다.

거기에 콘크리트담벽에 달린 13미터높이의 감시대가 6개나 있고 무장한 군인이 24시간동안 경비를 서고있다.

그 감시대에 콘크리트담안팎과 앞뒤를 감시하는 고광도탐조등이 밤이면 켜져있는데 그 불빛때문에 잔디도 누렇게 색이 변해 자라지 못하고있을 정도였다. 거기에 콘크리트담안의 전 구역을 감시하는 30미터 높이의 중앙감시대가 보안과건물에 설치되어있다.

그 콘크리트담안 한구석에 또 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담벽을 쳤는데 바로 그안에 비전향장기수를 수감하는 0.75평 독감방건물을 지었다.

사실 그것은 감옥안의 감옥이었다. 그 특별구역에 들어가는 철문앞에 보조소가 있는데 철문에는 붉은 글씨로 크게 《근무자의 출입금지》라고 써여져있다.

이 철문을 통과할수 있는자는 《중앙정보부》(당시)가 승인한 간수와 해당 직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이런 근무자도 특별사동에서 보고 듣고 한것을 외부에 나가서 말하면 《국가비밀루설죄》로 공직에서 추방되거나 구속된다.

감옥정문에서 비전향장기수를 수감한 0.75평 독감방까지 가려면 14개의 철문을 통과해야 한다.

제일 밖의 전기철조망안쪽의 공간이 탈옥자가 숨을 장소로 리용될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놈들은 그곳의 나무나 풀덤불을 다 베여버리고 잔디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 정도이 니 개미 한마리도 0.75평 독감방에 접근 못한다.

그러니 사람이 제일 보고싶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듣고싶었다. 사람들과 마주앉아서 마음놓고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고싶었고 어린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와 울음소리조차 듣고싶었다.

어머니의 다정한 얼굴이 못견디게 보고싶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싶었고 꿈속에서라도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싶었다.

내 안해의 아름다운 얼굴도 보고싶었다. 그리고 안해의 잠자는 숨소리마저 듣고싶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수 있는 소원이었을것이지만 그 악의 《천당》에서는 내 소원이 너무 컸던가싶다.

전기철조망과 6미터 높이의 콘크리트담벽과 육중한 철문이 34년동안 나의 이 모든 소망과 행복을 차단하였다.

독의 물도 얼어터진다는 대소한의 추위에 0.75평 독감방의 벽은 서리꽃이 하얗게 피었다. 이미 손, 발, 귀는 다 얼었고 코등마저도 얼었다.

배고픔으로 추위가 더 느껴지는 밤이었다.

어느날 열방에서 통방을 시작하겠다는 호출신호가 왔다.

나는 주먹으로 벽을 두번 치며 호출신호에 응답했다.

그러자 열방에서 전달을 받으라는 신호가 왔

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으로 단추를 갖고 《딱딱딱》 치고 귀를 벽에 바짝 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전향장기수들을 다 데려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전달받은것이다.

그날 나는 너무나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감옥에 있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하여 나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적의 야수적고문의 고통도 잊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 한구석에는 죄의식이 자리잡는것이였다.

사실 우리들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을 끝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놈들에게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는 불민한 전사들이였다. 그런데도 우리들때문에 것처럼 마음쓰고계신다니...

나는 자꾸만 갈마드는 부끄러움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하루는 0.75평 독감방의 고독을 깨버리려고 운동장하수구옆에 피어난 민들레를 깨진 작은 물통에 흙을 담고 심었다.

어느덧 기일이 흘러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었는데 그것을 보니 한결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만 꽃이 피고지는 모습에서 덧없는 세월의 흐름을 느꼈다.

이렇게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처지를 생각하니 일종의 무력감마저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였다.

나는 이번에는 꽃이 아니라 선인장을 구해다 키우기로 결심했다.

선인장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라는지 어쩐지 알수가 없었다. 꽃이 피고지는 일도 없으니 사시장철 늘 같은 모습이였다. 이처럼 선인장은 민들레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을 느낄수 없었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데서는 더없이 좋았다.

나는 선인장을 바라보면서 고독한 세월을 잊으려고 했다.

고향집에는 할아버지때로부터 키워오는 커다란 선인장화분이 있었다.

어머니는 이 화분을 애지중지 키웠다.

시집간 누이가 첫 아이를 낳고 시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는 새로 돌아난 선인장줄기를 떼여 주며 잘 가꾸라고 했다.

그후에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손가락모양의 선인장에서 새끼선인장을 떼내어 나누어주곤 했다.

어머니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놈들의 폭격속에서도 선인장화분만은 늘 소중하게 키우셨다.

우리 집 선인장은 7년에 한번 나팔꽃같은 분홍꽃이 피었는데 그때는 온 마을사람들이 꽃구경을 와서 아름다운 꽃모양에 감탄을 했다.

감옥에 있을 때 고향집선인장이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할 때면 자연히 어머니모습이 떠오르고 7년만에 한번 피는 그 꽃이 몹시 보고싶었다.

옆에 사람이 없으니 고독을 잊으려고 선인장을 가꾸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키웠는지도 모른다.

운동시간에 간수의 눈을 피해 새끼손가락만 한 선인장을 갖고 들어와 변소뒤벽아래에 놓고 키웠다.

그런데 선인장은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해 누렇게 시들기에 운동시간에 갖고 나와 햇빛을 몇번 쏘였더니 파랗게 생기를 되찾는것이 아닌가.

평범한 자연현상이지만 태양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수 없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태양 없이는 우리의 육체도 생존할 수 없다.

캄캄한 철창속에서 태양빛이 그리울 때  
우리들은 바라보네 님의 영상 그려보네  
반평생 간히워서 밝은 빛을 찾으려고  
간난신고 이겨내며 복讎하늘 쳐다보네  
아- 아-

옥중에서 비전향장기수 김창원동지가 지은 《비전향장기수 옥중투쟁가》이다. 나는 이 노래를 조용히 부르면서 푸르른 선인장을 보았다. 그러느라니 자연 우리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그리웠다.

그때면 나는 속으로 태양의 찬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연이어 부르곤 했다. 어떤 때는 입속으로 부르던 노래소리가 걱정애 겨운 나머지 크게 새어나가 간수가 달려오기도 했다.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 지독한 추위도 위벽이 서로 말라붙는듯 한 배고픔도 지어는 선인장이라도 키우며 잊으려 애쓰던 고독감도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그렇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워하며 기나긴 옥살이를 이겨냈던것이다.

나는 조국에 돌아와 주체90(2001)년 7월 8일 금수산기념궁전방문록에 이렇게 썼다.

차디찬 감방속에서 수령님은 우리의 심장을 불

태운 위대한 태양.

교수대에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얼마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던가.

늦게 돌아온 전사들은 그 품이 그리워서 눈물 흘립니다.

내 죽어 한줌의 흙이 되어서라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수령님을 항상 따릅니다.

지금 내 방에는 각이한 모습을 한 선인장화분이 몇개 있다.

그 모든 화분은 내가 선인장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준 기념품으로서 거기에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의지에 대한 뜻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는것이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그 화분들에서 마침내 진한 붉은색의 작은 꽃송이들이 수없이 피었다.

그 아름다움은 거의 석달동안 지속되어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0.75평 독감방에서 이루지 못한 소원을 늦게나마 풀어주는것이였다.

그 꽃의 아름다움에 나는 완전히 취해버리고말았다.

마치나 나에게 그 화분을 보내준 사람들의 정성을 말해주는것처럼 그 꽃은 항상 아름답게 피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주는 사람들의 사랑임을 내 어찌 모르랴.

주체89(2000)년 6월 15일, 이날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심장으로 느끼게 한 뜻깊은 날이였다.

사실 6. 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7천만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역사적문건이다.

그런데 이 선언에 우리 비전향장기수송환조항이 있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는가.

지금까지 인류사상 그 어느 정치지도자가 자기의 전사에 대하여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역사를 펼쳐보여준적이 있었던가.

나도 후에야 안 일이지만 프랑스-로씨야전쟁이 끝난 후 수많은 프랑스군포로들이 로씨야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뽐레옹이후 집권한 프랑스정부는 그들의 송환을 거절하여 자기의 포로들이 이국땅에서 굶어죽고 얼어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조국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취하시였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것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존경과 뜨거운 인사를 올리고있는것이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사랑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눈에 흠이 들어가도 이 은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체89(2000)년 9월 2일은 우리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온 날이다.

철창속 독감방에서 지나긴 고난의 세월을 살아 오던 우리는 분계선을 넘어서야 인간다운 사랑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사랑 또 있는가를  
분계선 넘어서 알았습니다  
내 언제나 잊지 않으리 장군님 사랑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끝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신  
그 믿음 고맙습니다

아, 김정일 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관문점에서 고려호텔에 이르는 수백리연도를 장식한 수많은 환영군중의 꽃파도와 환호소리는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축복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기회에 경애하는 장군님은 혁명동지들과 인민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세상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0.75평 독감방에서 인간의 사랑과 행복을 모르고 고독하게 살아왔다.

이런 우리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살림집을 두고 것처럼 마음쓰셨다는 사연을 알게 된 나는 또 한번 크게 놀랐고 감동하였다.

처음 비전향장기수들의 주택구역은 시내에서 멀리 벗어난 교외의 풍치좋은 산기슭이었다고 한다.

로송들이 들어선 골짜기, 개울물소리와 피팔새들의 지저귀소리, 멀리에서 울려오는 기적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곳이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둠과 고독을 제일 싫어한다는 심정까지 헤아리시여 아늑한 곳이라 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을 또 조용한 교외에 자리잡게 해야 좋겠는가. 그들이 바라는것은 들끓는 생활의 한복판일것이라고, 사람들이 붐비고 경적소리 그칠새 없고 노래소리, 웃음소리 차넘치는 수도의 한복판에서 수십년간 생사운명을 같이한 동

지들과 때없이 어울리고 노래속에, 웃음속에 생활을 늘 몸가까이 느끼게 하는것이 더 좋겠다고, 조국의 장한 아들들이 수도의 벽찬 생활을 호홉하며 살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간곡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수도의 중심에 자리잡은 궁궐같은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속에서 생활하면서 오늘과 같은 사랑속에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해 여름, 삼복더위 때는 비전향장기수부부동반휴양을 가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들뜬 기분으로 평양을 출발하여 무지개동굴을 지나서 저멀리 동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마치도 동화의 세계에 들어선듯 한 기분이었다.

원산 송도원에 려장을 풀고 휴양이 시작되었다. 휴양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난 비전향장기수부부들은 서로 손잡고 송도원백사장을 거닐었다.

남조선의 한 려행가가 세계려행기에 쓴 글이 생각났다. 세계3대미항중의 하나인 이탈리아 나폴리항을 방문하였을 때 이탈리아기자가 그에게 《나폴리경치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때 그 려행가는 《내 조국 원산 송도원과 명사십리를 보기전에 너 나폴리 아름답다 하지 않으리.》라고 대답하였다는것이다.

세상사람들, 특히 남조선사람들이 그렇게 와보고 싶어하는 명사십리와 송도원을 살아서 와보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안해들과 함께 걸고있다니 정녕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잔잔하게 파도치는 백사장을 사랑하는 안해의 손을 잡고 걸던 우리들은 잠시 멈추어서서 걸어온 백사장발자국을 되돌아보았다.

아! 백사장에 찍힌 우리들의 저 발자국은 꿈아닌 현실을 말해주고있다.

백사장의 발자국은 30~40여년동안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아준 행복에 대한 기록처럼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꿈 아닌 현실에 모두는 행복에 젖어있었다. 수평선우에는 아침태양이 붉게 떠오르고있었다.

아침해살은 안해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있다. 그들의 얼굴은 20대시절의 아름다운 젊음 모습으로 변해가고있다.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애하는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우리들이 받아안은 끝없는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흰 파도는 기슭으로, 기슭으로 끝없이 밀려온다.

# 산 인간으로 안겨오는 진실한 형상

-장편소설 《흰 파도》를 두고-

안 성

선군시대와 더불어 새롭게 창작발표되어 우리 독자들속에서 애독되고있는 비전향장기수형상주제의 장편소설들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산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장장 수십년세월 혁명적신념을 지켜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의 형상이 개성적인 시대의 전형으로, 구체적이며 생동한 산 인간의 모습으로 안겨오는것으로 하여 그 환관환관이 그토록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는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장편소설 《흰 파도》(신용선작)에 그려진 주인공의 형상세계를 음미해본다.

## 사랑은 충성을 낳는다

과연 그 무엇이 비전향장기수들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에 찬 수십년동안 자기의 신념을 지켜 굴함없이 싸우게 하였는가. 장편소설 《흰 파도》의 주인공 김룡준은 자기의 생활과 투쟁으로써 이 문제에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그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깨끗한 량심으로 보답하려는 절대적인 충성심이다. 김룡준은 수령의 사랑과 믿음은 평범한 인간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키운다는 철의 진리를 체현하고있는 인물이다.

인생의 첫시기 김룡준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름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이었다. 고향의 백사장에서 송아지동무들과 함께 덩굴며 앞날의 푸른 꿈을 터놓기도 했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을 때에는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며 싸움터로 선참으로 달려나가 조국수호의 더운 피를 바치기도 했다.

이런 그에게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행운이 안겨졌으니 그는 두차례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던것이다.

30여년전 평양상업대학(당시) 학생들이 일하고있는 수도의 한 다리공사장에 몸소 나오시여 대학민청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주인공을 만나주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이제 다리가 완공되면 사람들이 대학생동무들의 수고를 옛말처럼 이야기하며 거닐게 될것이라고 크나큰 고무와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갓 결혼하여 새 살림을 편 주인공의 집에까지 찾아오시여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복해주시고 먼 후날을 내다보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간곡하게 가르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과 믿음은 정녕 주인공에게 있어서 한생 조국앞에 떳떳이 살도록 떠밀어준 힘의 원천이었다.

위대한 사람은 높은 충성심을 낳는 법이다.

꿈속에서도 어깨를 정답게 두드리주시던 김일성장군님의 그 손길과 햇빛같은 미소 그리고 간곡한 당부 잊을수 없는 김룡준이었다. 그 사람에 보답하는 길, 그 믿음에 참된 의리를 다하는 길은 오직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충성다하는것임을 확신한 주인공이었기에 통일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주저없이 나섰고 그 길에서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긴 세월 감옥살이의 고통을 무슨 힘으로 어떻게 견디여내고있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가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다.

《<전향>거부는 순수 인간적인 량심과 신념을 지키는 소극적의미가 아니라 김일성장군님께 충성다하는 큰 의미의 투쟁입니다.

김일성장군님의 한생은 강도일제와 싸워 피로써 찾은 내 조국의 분열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한생이었습니다. 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따라 통일애국투쟁에 나섰고 무수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물며 아버지수령님을 두번씩이나 만나뵈은 제가 그 뜻을 저버릴수 있겠습니까.》

전향거부는 단순히 인간적인 량심과 신념을 지키는것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다하는 큰 의미의 투쟁이라고 확신하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는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이 토로속에는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수령의 뜻을 떠나 달리는 살수 없다는 숭고한 자각,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무조건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이 력력히 굵이치고있다. 이런 자각, 이런 신념을 굳게 간직했기에 30여년간 매일과 같이 거듭되는 놈들의 전향강요와 상상을 초월하는 악착한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고통, 인간의 모든 정을 희롱하는 심리적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인공은 끝내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것이다.

수령의 사랑과 믿음의 직접적인 체현자로서 그 사랑과 믿음이 안겨준 무한대의 힘으로 깨끗한 량심과 보답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 지닌 신념과 의지의 세계의 근본특징이 있다.

##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속에서

장편소설 《흰 파도》에 펼쳐진 이야기는 그리 복잡한것도 요란한것도 아니다. 광주교도소의 운동시간에 뜻밖에도 어릴적 고향친구 리운영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죽은줄로만 알았던 련실 누이가 살아있다는 꿈같은 소식을 알게 되는 김룡준, 누이와의 상봉을 전향공작에 리용하려는 원수들의 비렬한 책동과 그것을 강의한 신념과의지로 이겨내는 김룡준의 투쟁, 이것이 사건의 전부이다.

시간적길이로 보아도 그리 오래지 않은 이 사건속에서 주인공의 성격형상이 살아나고있는것은 그와 각이한 인물들과의 인간관계를 운명적으로 깊이있게 맞물리고있는것과도 관련되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단순히 누이(김련실), 매부(심학봉), 친우(리운영), 교회관(장원삼) 등 혈연적이고 실무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생활경력과 처지, 사회화환경과 세계관이 서로 다른 각이한 인간들이 운명적으로 깊이 련관되어 있는 극적인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인간학적요구와 건인력을 보장하고있다.

김룡준은 그 모든 인물들의 중심에 서있으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생활관으로 운명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이다.

주인공의 소꿉시절 친우였던 리운영,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수호의 성전으로 호소하는 력사의 부름을 외면하고 김룡준이 전선에 탄원하여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날 때 리씨가문의 3대외독자이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눈먼 사랑에 떠밀리워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나간 사람이었다.

그것으로 하여 그는 한생 고통과 치욕을 느끼고 살았지만 아들의 혼사와 점포의 파산문제를 미끼로 놈들이 내민진 《전향서》앞에서 갈팡질팡한다. 량심과 지조를 두번다시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것은 점차 허물어지고있었다. 그러나 전향은 혁명에 대한 무서운 배반이며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수치라는, 그런 수치는 이 땅에 묻힐수조차 없는 수치이며 불행이라는 김룡준의 절규앞에서 자기의 실책을 깨닫게 된다.

물론 60나이에 이른 리운영이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진정 사람답게 살아온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5년간의 생활체험이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김룡준이었다. 순수한 우정으로 시작되었다가 생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만나 비전향장기수로 성장하게 되는 그들의 인간관계속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더욱 두드러진다.

김룡준의 담당교회관인 장원삼, 그는 《한국》수호와 《인간성》에 대한 자기만의 《일가견》을 가지고 주인공을 전향시키려고 날뛰는 권력의 하수인이다. 더우기 인민군대가 자기 고향을 재더미로 만들고 아버지와 두 형을 죽였다는(그것은 미제의 모략에 의한 만행이었다.) 인식은 개인적 《복수심》을 촉발시켜 그의 전향강요는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다.

김룡준을 전향시키기 위하여 그의 매부 심학봉의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뇌출혈까지 일으켜

침상에 눕게 하며 리죽송과 장은주 두 청춘남녀의 사랑까지도 전향공작에 악용하는 파렴치한자가 장원삼이다. 그러던 그가 사직서를 내고 고향에 내려가 력사를 가르치려는 《운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주인공 김룡준의 투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의 삶과 투쟁을 직접 목격하면서 장원삼은 고상한 정신세계와 인격, 깨끗한 량심을 지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가슴속에 《태양》을 안고사는 인간앞에서는 그 어떤 물리적폭력이나 심리적압력도 무기력한것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력사앞에서 매 인간들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 존엄에 대하여 가늠하게 되었던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기도 이제는 남다른 사람이 되고싶었고 자기자신을 엄격하게 주시하며 살고싶은 심정에서 사직서를 냈던것이다.

물론 장원삼의 이런 결심이 참다운 인간에로의 《환생》은 아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이 인간과 야수들의 대결이라는것을 생각해보면 그의 형상은 정의와 량심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확증해주는것으로 하여 의의를 가진다.

리운영의 아들 리죽송과 장원삼의 5촌조카 장은주, 그들도 김룡준에 의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된 사람들이다. 리죽송은 동유럽사회주의가 다 망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북의 방종이나 듣고 선전을 한다는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아버지때문에 자기의 모든 희망과 포부가 깨어지고 막혀버렸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감옥에까지 김룡준을 찾아와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신념을 바꾸도록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장은주는 리지적이고 깨끗한 마음씨를 지닌 처녀로서 선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상념에서 헤매이고있을뿐이다.

이런 그들이 감방안에서 김룡준이 써보낸 많은 편지들을 통하여 특히는 자기들의 약혼식에 참가한 그와의 상봉과 이야기를 통하여 참다운 삶의 길을 찾게 되었고 마침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통일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굵이치는 주인공의 확고한 신념과 락관적태도는 그들을 감화시키고 민족대단결에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에 합류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던것이다.

이렇듯 각이한 인생행로를 걷는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속에서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사람들을 정의와 량심, 통일애국투쟁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 예술적세부와 주인공의 인간적모습

장편소설 《흰 파도》에서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산인간의 모습으로 뚜렷이 부각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작용을 하는것은 예술적세부들이다.

특히 독자들의 인상에 깊이 새겨지는 세부는 선인장화분과 김룡준의 버릇처럼 왼손을 들어 오른쪽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행동세부이다. 이 세부들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인공의 사상

정신적지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그 성격이 자기의 생동한 호흡과 숨결을 가진 산 인간으로 안겨오도록 함으로써 질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우선 선인장화분을 놓고보자. 선인장화분은 김룡준이네 집의 가보였다. 일제의 조선강점후 흥법도의병대에서 싸우던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몇 해만에 피눈물을 쏟으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녹슬은 화승총대신 가슴에 부둥켜안고온 선인장화분, 7년 혹은 10년동안 정성을 다해 키우면 그 꽃을 볼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선인장을 키우며 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화분이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선인장화분을 애지중지 키웠고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갈 때면 새끼친 선인장 한개를 떼여주곤 하였다. 고향집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룡준에게도...

김룡준은 감방안에서도 선인장을 키워가고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무시로 드나들고 인간적인 그 모든것이 여지없이 말살되는 감방안에서 선인장화분을 키워내는것은 또 하나의 간고한 시련이였고 치열한 투쟁이였다. 간수들이 검방을 하면 압수를 당하고 그러면 또 선인장을 얻어다가 심고... 그러기를 몇십번, 나중에는 원썩들도 지치고말았다.

주인공은 선인장이 단순히 자기 가문의 가보이기에 그렇듯 심혈과 지성을 고이는것이 아니다. 함박눈 내리는 일요일에 김룡준의 집에 찾아오시여 선인장에 깃든 사연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모습이 안겨오게 하는 선인장화분이였다. 생활도 그렇게 꽃을 피워야 한다고, 그렇게 순간도 지침없이 자기 삶을 가꾸고 지키느라하면 마침내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다시금 새겨지는 선인장화분이였다.

그것으로 하여 선인장화분에 담겨진 의미는 보다 새로와졌고 보다 심오해졌다. 그것은 그대로 모진 악형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도록 주인공을 떠밀어준 《힘》이였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거울》이였으며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되새겨주는 《벚》이기도 하였다.

《내가 선인장을 키우는것이 아니라 선인장화분이 나를 그렇듯 엄숙하고 기나긴 감방살이를 이겨내게 해주었고 또 지금도 량심과 의리를 지키게 해주고있답니다.》

참으로 철창속에서 수십년동안 키워낸 선인장화분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열렬한 그리움의 분출이였고 굳센 신념과 의지의 발현인것으로 하여 그 성격적면모를 보여주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김룡준이 버릇처럼 왼손을 들어 오른쪽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행동세부도 역시 그러하다. 독자들은 소설의 갈피갈피에서 주인공의 그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감방안에 홀로 있을 때에나 전향을 강요하는 원수들과 마주했을 때에도 너무도 자주 하는 행동인것으로 하여 그 어떤 습관인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별치 않은 그 행동에도 주인공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눈으로 감수하게 된다.

수도의 한 다리공사장에서 김룡준을 만나주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어깨를 정답게 두드리주시며 크나큰 사랑

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이여서 김룡준은 옥중투쟁의 기나긴 나날 그러한 행동으로써 영광의 그 순간을 그려보았고 달리는 살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확신했으며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던것이다.

그 형상적의미가 깊이있게 부여되고있는 이 생활세부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성심을 체질화한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작품에서 주인공 김룡준은 결코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싸워나가는 불굴의 인간으로만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강의한 인간인 동시에 다정다감하고 인정깊은 인간이였다. 음악도 사랑할줄 알고 꽃도 사랑하며 부모처자에 대한 열렬한 사랑도 지닌 인간, 현실과 역사를 바로 볼줄도 알고 그 어떤 궤변도 낱알이 꿰뚫어보는 높은 지성과 리성도 갖춘 인간이였다. 이것으로 하여 그의 성격은 보다 생동하고구체적인 산 인간의 모습으로 안겨오는듯싶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독자들에게 안겨진 김룡준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것을 련상케 하는가.

비가 내린 뒤의 교도소 운동마당, 하늘에선 아직도 거무칙칙한 비안개가 낮게 떠돌고 싯누런 비물이 여기저기에 흘러가는데 체소한 몸집의 주인공은 콩크리트담장밑에 노란꽃을 피운 한포기의 민들레잎사귀에 튀어오른 흙탕물을 조심스럽게 털어주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곧 삶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였다. 이런 사랑의 감정을 지닌 인간의 심장은 언제나 뜨겁기마련이다.

이렇듯 사랑으로 충만된 심장을 소중히 간직했기에 김룡준은 철창속에서도 모든 인간적인것을 옹호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었던것이다. 리죽충과 장은주의 사랑을 구실로 리운영의 전향을 도와달라는 장원삼에게 그런 사랑을 지지하고 떠밀어주는것이 정의와 량심이라고 준절히 이야기하면서 두 청춘남녀의 사랑이 성취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교도소장 배운창의 간계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박선달을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요구해나섬으로써 적들까지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한다.

작품에서는 높은 지성과 리성을 가진 주인공의 인간모습도 격이 있게 그려내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장원삼의 고향마을에서 일어났던 참변의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놈들의 모략으로 하여 장원삼은 고향마을에서의 참변이 인민군대에 의한것으로 믿고있다. 그러나 반세기이상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 국토통일의 원인을 잘 알고있는 김룡준은 그 비극이 미제의 귀족같은 만행일것이라고 단언하는것이다.

마침내 그 참극의 직접적집행자의 한사람인 허덕보의 《량심선언서》를 통해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장원삼이 체험하게 되는 심리적모순은 주인공의 인간미를 부각시켜주는 좋은 반증으로 된다.

이런 성과들로 하여 장편소설 《흰 파도》는 비전향장기수의 형상을 생동하고 개성적으로 보여줄수 있었다.

# 집을 노래하련다

도명희

## 나의 집

앞뜰에 다문다문 채송화꽃은  
제 먼저 웃어 반기고  
울결에 세그루 복숭아나무엔  
따지 않고 그냥그냥 보고싶은 열매들...  
부엌문 열고 들어서면  
온몸을 휩싸는 토장국냄새조차  
구수한 생활의 향기로 풍기는 나의 집

아침이면 창공을 날으는 제비마냥  
나는듯이 일터로, 학교로 가고  
저녁이면  
생기와 기쁨안고 모여와  
글 읽는 소리 노래소리로 명량한  
나의 정든 보금자리

어려웠던 그 나날  
사랑 한알 생겨도  
그것이 온종일 애들손을 거쳐

엄마입에 돌아오던 가룩한 진정  
그 마음 오늘도 방가득 차있고  
아래목을 양보하며  
정답게 다투며 잠들던 나의 집

정말이지  
생활에 부족한것 때로 있어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는 집  
시련이 클수록  
조국과 운명을 더 굳건히  
하나로 잇고 사는 집

아, 집이여  
정으로 따뜻한 생활이 흐르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깃을 다듬어  
조국에 바칠 심장을 꿰어주는  
내 생활의 보금자리여!

## 총대와 보금자리

울담아랜  
빨간 백일홍 만첩으로 피고  
토방우엔  
노란 햇병아리 어미따라 빼용이는  
그리 넓지 않은 뜰안에  
나의 딸이 섰다  
푸른 군복 꼭 조여 입고

아직은 어린 손끝에  
잉크냄새 풍기고  
졸업시험때 외웠던  
수학공식이며 물리 법칙들...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하겠지

호박잎새 싱싱히 오른 지붕이며  
해별이 아롱지는 맑은 창문에  
정겨운 눈길 보내는 나의 딸아  
가슴속에 고이 새겨 안고 가거라  
네 자란 보금자리 정든 이 집을

초소에 서면 너 알게 되리라  
이 땅에 포성은 울리지 않았어도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의 보금자리 어떻게 지켜졌는지

총대가 약했더라면  
열번도 더 허물어졌을 우리 집이  
백번도 더 불바다에 잠겼을 우리 조국이  
어떤 사생결단의 각오로 지켜졌는지  
너는 이게 더 잘 알게 되리라 초소에 서면

비가 와도 가시고  
눈이 와도 가시며  
장군님 걷고 걸으신 최전연 험준한 초소길들이  
따뜻한 이 나라 집집들에 잇닿아있구나

오, 선군의 총대가 지켜준 집에서  
고이 자란 나의 딸이



오늘은 그 보금자리 지키러  
 초소로 떠난다  
 또 한자루의 선군총대가 되어  
 총대와 보금자리!

선군의 참뜻을 깨우쳐주며  
 울담아래 백일홍 만첩으로 붉어라  
 토방아래 트랙에선  
 햇병아리 어미따라 노닐어라  
 군복입은 나의 딸이 초소로 떠나간다

## 그대는 무엇으로 강합니까

무엇으로 강합니까  
 조국이며  
 그대를 받들고선 억센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늘높이 은빛지붕 떠이고선  
 강철기둥, 기계의 힘찬 동음입니까  
 가없이 펼쳐진 규격포전마다  
 땅이 꺼지게 무르익은 이삭들입니까

소박한 나의 집과 다름없는  
 이 나라 집집들  
 행복의 노래넘치는  
 불밝은 창문들이  
 그대가 사랑다해 세운  
 이 나라 기둥이 아닙니까

아침이면 분주히 방문이 여닫기는  
 나라일 위해 바쁜 그 소리  
 저녁이면 조국에 바친 로력의 공지안고  
 시원히 땀을 씻으며 들어서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사는 집  
 그대가 품들여 일떠세운것 아닙니까

생활에선 그지없이 평범해도  
 조국이 호소하면  
 문 열어젖히고 소리치며 달려나가  
 땀도 피도 서슴없이 바칠  
 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  
 그속에서  
 강성대국 떠받들 대들보가 큼니다  
 선군시대 지켜갈 총대감이 자랍니다

무엇으로 강합니까  
 조국이며  
 우리 장군님 계시여  
 끄떡없는 이 나라 집집들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할  
 선군으로 강의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집들이 떠받들고있어  
 그대는 강합니다 나의 조국이며

## 조국에 드리는 시

조국이며  
 그대없이 나의 집이  
 순간인들 서있을수 있습니까  
 그대가 준 이 집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주었던만  
 미처 몰랐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의 모든것을  
 그리도 뜨겁게 보살핀줄

너무도 웅당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첫살림 시작하면  
 새집이 차례져야 하는줄  
 병원의 담당의사는  
 집집을 찾아 예방주사 놓아야 하는줄  
 나의 집 문앞에 웅당

직장길 학교길이 열려져있어야 하는줄

참으로 그대품이 있었기에  
 시련의 그 나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비낀 동심은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갖 시련 이겨낸  
 그대 품에서 태어난  
 메기떼 꼬리치는 양어장이며  
 풀판우에 흐르는 구름같은 염소떼...  
 가없이 펼쳐진 토지정리 들판에  
 끝없이 설레이는 오후백과들...

선군이 안아온 아름다운 경치가  
이 나라 집집을 위한  
내 조국의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까

한없는 그 사랑속에  
나의 집 우리 조국은  
이 세상 누구도 감히 못다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영원한 이 행복을 지켜  
정의의 종대 높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은 나의 집에  
얼마나 크나큰 그대 사랑 짝 차있는지  
이 나라 집집의 수천만 추녀아래  
조국이 들인 품은 얼마나 큰지

바치리라 조국이며  
그대 지어준 집처럼 끄떡없는 신념으로  
언제나 변함없을 뜨거운 심장을  
그대를 위해서라면 목숨다해 아낌없을  
내 인생의 전부를

## 내 조국

리연희

내 이 땅에 살아  
서른일곱해  
다너본 고장 그 얼마이며  
내 시를 바쳐온 고장 얼마이던가

평양을 떠나 수십 수백리  
머나 가까우나  
이 땅은 그 어디라도 낫설지 않아  
정들고 아름다워 나는 시를 쓰고싶어

북방의 그 어느 고장  
눈보라 사나운 어느날  
낯선 얼굴과 얼굴들에 길을 물으며  
내 홀로 들어서던 거리에서  
문득 걸음 멈추며 나는 보았더라  
달려가 반기며 안기는 마음 목메여 불렀더라  
아 수령님!

이 먼곳에 어떻게 왔느냐고  
어떻게 혼자 왔느냐  
물어주시는듯 내 모습 살펴주시는듯  
봄날처럼 환히도 웃어주시던 그 영상이여

어느 공장이였더라  
스스럼없이 들어서는 구내길에  
별써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그이  
그 품에 나도 안아주실듯  
자애롭게 웃으시는 우리 수령님

언제나 그이의 자옥자옥은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나 기다리고있어  
나는 홀로 걷지 않았네 그이와 함께  
하많은 이야기 즐거웁게 나누며 그이와 함께

그렇게 걸었더라  
북변의 대로천채굴장의 험한 계단길도  
열두삼천리 이랑이랑 푸른길도  
백두삼천리 감자꽃바다 황홀한 대지도

낫설지 않았더라 수령님 계시여  
힘겨웁지 않았더라 그이와 함께 걸어  
이 땅 그 어디서나 수령님 기다려주시는 내 조국  
그래서 우리 장군님  
정든 고장 정든 인민이라 부르시며  
방방곡곡 찾고 또 찾으시는 내 조국

9월의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이가슴에 더더욱 차오르는 수령님 생각  
수령님과 함께 걸으면 나는 시가 생각나  
수령님 계시는 내 조국  
나는 조국에 대한 시가 쓰고싶어

조국을 찾아주신 그 자옥자옥  
혁명의 성지 백두산이라  
조국창건의 수도 평양이라  
참으로 이 땅은 성스러워라  
그이의 위대한 자옥자옥으로  
그 자옥자옥을 따라 내 자옥도 새기여갈 이 땅

정녕 너무도 복스러워라  
이 땅에 받아안은 나의 생  
천년만년 우리 수령님 모시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받들어  
숭고한 나의 사랑 나의 애국  
내 열혈의 시를 바치고 또 바쳐갈  
아, 내 조국이며!

## 물에 대한 생각

리라순

한낮때가 가까와오면서 대기는 더 뜨겁게 달아 오른다. 그래도 누구하나 아랑곳없다.

이즈음 이른 아침부터 말없이 시작되고 끝도 없어진 작업이라 한다.

그 누구의 얼굴을 보아도 그저 빨리, 더 빨리 하는 초조감만 비껴있을뿐이다. 감이 잘든 물탈을 연방 쏟아놓는 혼합기의 동음, 재게 놀리는 삽날 부딪치는 소리, 골재를 실어들이는 자동차들의 짹으면서도 맵짹 경적소리...

평양음악대학건설이 시작되어서 지금같은 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라고 자신들도 놀라와하는 군인건설자들이다. 하긴 당장건 60쪽에 즈음한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그들임에야... 여기 뿐이 아니다. 취재차로 다녀온 삼수발전소건설장이며 서해곡창 농장벌이며 또 그 어디나 사람들의 심장이 끓고있었다.

군인건설자들과 어울려 물탈을 섬겨주던 나는 잠시 허리를 폈다. 첫눈에 안기는것은 가까운 곳에 세워진 속보판에 씌여진 공동구호였다.

저절로 한자한자 눈주어 보게 된다.

《평양음악대학건설, 모란봉극장과 동평양대극장 개건공사, 김책공업종합대학 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라!》...

이럴즘 건설장에 지원나온 시내 어느 한 봉사기관일군들이 도착하였다.

휴식이 선포되고 잠시 건설장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이어 몸집 좋은 녀인들이 우리가 일하는 작업장에 나타나더니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하여온 여러가지 음식들을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커다란 상자에 가득 담긴 하얀 수지물병들을 꺼내어 골고루 안겨준다. 취재차로 나왔다가 군인건설자들의 일습씨에 반해 잠시 끼여들었던 덕에 나도 하나 받아안았다. 맵시있는 상표가 붙은 《아달산샘물》병이었다.

여기저기에서 가벼운 탄성들이 들린다.

《<금강샘물>이라, 이거 우리 고장 샘물이구만.》

《<신덕샘물>, 신덕 거기는 우리 어머니 고향입니다. 늘 물 좋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갓 입대한듯싶은 애끓은 군인의 말에 곁에 있던 군인이 팔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른다.

《여, 난 말이야. 약수고장 삼방이 고향이야. 한 여름에도 이가 시리고 온갖 병이 뚝 떨어진다

는...》

이럴 때 지원나온 녀인이 수선을 댄다.

《아저씨, 여기 <삼방약수>도 있어요. ... 자, 어서들 시원히 드세요.》

모두들 마신다. 나도 병을 기울여 두어모금 마셨다. 대번에 속이 서늘해지며 온몸의 땀이 잦아 드는듯싶다. 이런 맛을 두고 꿀맛이라 하던가... 병사들은 아직도 물병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야기판을 벌리며 녀인들의 수고를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한 곳으로 물러나앉았다. 뭇가 길은 생각을 불러와서였다.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온 우리 나라에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 따로 있으랴.

어디 가나 산골은 산골이어서 벌방은 벌방이어서 물자랑 없는 고장이 없다. 그래도 명소에 명수라 물맛 좋고 건강에 특별히 좋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물도 있는것이다. 더우기 오늘날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와 생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물원천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치부를 목적으로 한 무질서한 공장건설로 물오염현상이 증대됨에 따라 전에 없던 물무역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이름난 샘물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샘물과 약수를 국제시장에 내가려고 하였다고 한다. 보통생각으로는 지극히 세사로운 일이라고 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래서 안된다고, 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장수라고 하시며 곳곳에 있는 샘물공장, 약수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려 깨끗하고 정갈한 물전부를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인가.

세상에 물걱정이란 말조차 모르고 늘 먹고 쓰는 물의 수질을 두고 티끌만 한 생각도 없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그런데도 좋은 물에서 더 좋은 물을 골라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지만 이처럼 인민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마음써온 그런 평도자를 우리는 모른다.

물...

태고적부터 인간의 생명활동과 떼어놓고 생각

할수없는 물...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물에 생명의 이름을 주어 《생명수》라고 불려왔다.

그런데 인간에게 복리를 주던 그 물이 오늘날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어 어제날 물처럼 흔하다는 말이 오늘날에는 물처럼 귀하다는 말로 되어버렸다. 물의 극심한 오염으로 하여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정말 생각이 깊어지곤 한다 그러면서 어제와 그제고 오늘도 그제고 후손만대 길이 자랑할 내 조국의 맑은 물에 대한 긍지감으로 가슴 부풀곤 한다.

물 좋은 곳이 있다면 그리도 기쁜 마음으로 찾으시여 음료공장을 세우도록 해주시고 천만금을 내놓아도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물을 안겨주자고 큰 공장부지도 옮겨주신 우리 수령님, 어느 한 고장 인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시려 먼 고장의 물을 끌어오신 아버지수령님.

아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의 먹는 물문제때문에 마음 써오신 그 심혈을 어찌 다 말하랴. 곳곳에 꾸려진 생물관장, 약수공장들의 모습이며 곳곳의 봉사망들에 차고 넘치는 모양고운 샘물, 약수병이 그 사랑을 다 전하고있지 않는가.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장수를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이신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마무리 지극하다 한들 물에서 물을 골라 자식들에게 먹였다는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있던가.

정녕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하늘에도 바다에도 비기지 못할, 세상 천만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그런 사랑인것이다.

## 가사

# 내 사랑 내 고향아

정성환

제대병사 배낭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  
동구밖 멀리서부터 반겨주는 고향아  
눈비를 맞으며 총잡고 너를 지킨  
이 아들은 떳떳이 네 품에 안기노라  
아, 내 사랑 내 고향아

험한 령 넘고넘는 훈련의 나날에는  
무쇠가슴 흔들며 힘을 준 고향아  
초소에서 안아본 그리웁던 네 모습이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봉사일군들과 어울려 빙 둘러앉은 군인건설자들은 여전히 물에 대한 화제로 흥성이고있다.

누군가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물위기로 하여 민족간 분쟁이 일어나고있는 사실들을 꺼들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물쟁탈전쟁》일것이라는 말을 하자 여기 저기에서 겨끔내기로 이야기판에 뛰어들었다.

때때로 폭소가 엇섞인 이야기판이었다.

하긴 물위기로, 물쟁탈전이요 하는 낱말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이기도 한것이다.

그래서 휴식의 한때를 사심없는 마음으로 보내는것이였다.

과연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마시고있는 물에 깃든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 알고있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스쳤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다, 그들은 알고있을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어제와 오늘도 낮과 밤이 따로없이 뛰고 또 뛰는것이다.

새삼스레 건설장 제일 눈에 뜨이는 곳에 힘있는 글발로 새겨진 공동구호에 눈길이 간다.

《천만군민이 하나의 동지가 되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걸음걸음 따르자!》

그 구호를 되새기느라니 어느덧 나의 마음속에는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정치적사변으로 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성스러운 모습들이 상상되어 떠오른다. 그러자 심장의 박동이 높아진다.

나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라는 자각이 새롭게 마음속에 깃들기때문이다.

청춘의 이 가슴에 푸른 꿈 안겨주네  
아, 내 사랑 내 고향아

조국위해 더운 땀 바쳐온 이 심장에  
목숨보다 더욱 소중히 간직된 고향아  
이 가슴에 차넘치는 병사시절 정신으로  
네 모습 아름답게 꽃피워가리라  
아, 내 사랑 내 고향아

# 선군처녀

강 수

여기는 자정을 가까이 한 대안천선유리공장건설장이다. 나는 텅빈 현장사무실 책상에 마주앉아 원고지를 펼쳐놓고있다.

밤이 들어 더 세차게 뚫어번지는듯싶게 높아진 건설장의 동음이 창가로 흘러든다.

당창건 60돐에 즈음한 공동구호를 접한 때부터 아예 밤을 잇다싶이 한 이곳 건설자들이다.

창밖의 건설장 여기저기에 걸린 백열등들 그리고 번개의 섬광처럼 번뜩이는 용접화광에 기증기들과 건물벽체에 내다붙인 공동구호의 힘있는 글발들이 살아움직이듯 나의 눈에 확 안겨든다.

《당창건 60돐을 맞으며 대안천선유리공장을 훌륭히 건설하라!》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모두가 결사관철의 투사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이 구호에 떠밀리우듯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기본생산흐름선의 첫 공정인 용해장 그리고 선형장, 서랭장. 제품장과 벌써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적인 대상들과 한창 공사중인 대상들도 시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고있다. 정말 1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건설자들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현대적이고 웅장한 대안천선유리공장의 웅좌를 말그대로 한쪽의 그림처럼 들어앉히었다.

문득 낮에 보았던 한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떠오른다.

이름은 김연희, 나이는 19살... 애어린 처녀다.

낮에 내가 설비조립으로 한창 드바쁜 용해로현장에 찾아갔을 때 거기서는 한참 군민이 하나가 되어 설참오락회를 벌려놓고있었다.

거기서 나는 군인들의 청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있는 한 처녀가 낮이 익어 찬찬히 바라보았다. 어디서 왔던가? 감실감실하게 탄 얼굴, 탄력있는 몸매, 열정에 넘친 눈동자...

다음 순간 나는 놀란 눈을 홑떴다.

(아니, 저 애가?...)

그 처녀는 분명 우리 옷집에 사는 연희라는 처녀였다. 나는 또 혹시나 잘못보지 않았는가 하여 옆에 선 대대참모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옳다고. 그가 자기네 대대에 소문난 혁신자처녀 연희가 옳다고 하는것이였다.

나는 정말 놀라움에 잠겨 그의 모습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1년전만 하여도 내가 보아온 저 처녀는 살결이

흰 가름한 얼굴에 호리호리한 몸매, 무용수들처럼 가름가름한 손가락을 가진 몹시 연약해보이던 처녀였다.

그래서인지 늘상 고개를 가웃하니 숙이고 잠자코 오가던 압전데기로밖에 인상에 남지 않았던것이다. 그랬던 처녀가 건강에 넘치고 쾌활하고 정열적인 처녀로 내앞에 나타나 군인건설자들앞에 나서서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다.

불현듯 내가 여기 건설장으로 현실체험 나올 때 그의 어머니가 따라나서며 근심스레 당부하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 앤 아직 집에서 무슨 일 한가지 제손으로 해보지 못한 애랍니다. 외동딸이라고 너무 어루만졌거든요. 그런 애가 그 벽한 건설장에서 제대로 구실이나 하는지. 정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나는 이 사연을 대대참모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한참이나 껄껄 웃고나서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 연희동무가 여기로 왔을 때 연약한데다가 성격마저 소심한 그를 두고 우려한바도 컸습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힘에 부쳐하는 그를 두고 걱정도 적지 않게 하였습시다. 그런데 이곳으로 동무들과 자진하여 나온 그를 어쩔수는 없었지요.

나날이 흐를수록 좀 나아지기도 했으니깐요.

그런데 우리 대대가 군인건설자동무들과 함께 대상건설을 하면서는 하루가 다르게 일솜씨가 늘어갔습시다....

이제는 온 대대가 사랑하는 혁신자애다 꾀꼴새로 불리운답니다. 군인동무들의 그 열정, 결사관철의 투지가 그를 늘 고무해주고 이끌었기때문이랄가... 하여간 지금에 와서 저 동무는 무슨 일이 나서도 입버릇처럼 뇌이는 말이 있지요. <우리도 군대들처럼 합시다.> 이것입니다....

연희에 대한 대대참모의 칭찬은 그칠줄 몰랐다.

1월의 강추위속에서 대동강얼음을 까고 물속에 들어가 용해로 기초공사골재에 티 한점 들어갈 세라 자갈을 알알이 씻는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따라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 대발파를 위한 굴진작업을 할 때에는 군인들처럼 함마를 잡고 현장을 잡시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연희에 대한 대견함이

가슴 그들먹이 차올랐다.

그러면서도 그가 입버릇처럼 외운다는 말이 귀가에 되살아났다.

《우리도 군대들처럼 합시다.》

웬일인지 가슴 밑굽을 찡-하니 울린다.

아무런 수식도 차례도 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그 말속에 비긴 의미심장한 뜻이 가슴에 마쳐와서였다. 거기에는 한 애어린 처녀의 소박한 지향만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잡힌다.

인민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맨앞장에 내세워주시고 백두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를 가장 높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군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시대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열정을 안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결사관철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의 인민군대.

그들처럼 살며 일해나갈 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잡고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지향으로 은연중 자리잡은것은 언제부터이던가.

《우리도 군대들처럼 합시다.》...

참으로 뜻깊고 소중한 말이다. 이 말을 가슴에 품었기에 어제날의 연약하던 처녀는 오늘날 열정의 처녀로 성장할수 있었다. 그 말을 외우며 처녀는 시대의 창조자로 자랐다. 시대의 창조자...

인간의 생은 창조의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처럼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가정

과 사회에서 창조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며 실천한다. 비록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것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보잘것없는 일도 창조라는 개념속에 속한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무 일도 제손으로 해보지 못한 처녀가 여기 대안천선유리공장건설장에 나와서 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면서 창조하는 법을 배웠고 오늘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것이다.

하긴 이런 경우를 그 처녀 하나만의 이야기라 하랴.

선군의 기치 나래치는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 가나 연희와 같은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 많은것이다.

이 또한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 아닌가...

밤이 깊어갈수록 건설장의 열풍은 더더욱 고조되어가고있다.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엿쉬여 달리며 무슨 짝막한 구령을 웨친다.

군인들이 선창하면 건설자들이 화답한다.

기계소리, 자동차경적소리, 기중기동음속에 묻혀 잘 가려들을수 없다. 모든것이 달리고 웨치며 돌아간다.

곳곳에 나붙은 공동구호의 굴발들이 살아움직이듯 안겨온다.

그와 함께 대안천선유리공장의 웅좌가 한결 더 웅장하게 돋보인다. 그 건설장 어디엔가 연희가 있을것이다. 공동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하루빨리 달려갈 일념으로 가슴불태울 처녀의 모습이 언뜻 스친다.

새삼스레 근심스러운 빛을 큰눈에 담고있던 연희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절로 웃음이 난다.

나는 인차 웃음을 거두고 원고지우에 몸을 기울였다. 오늘 받은 기쁜 인상을 연희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고싶은 심정이다.

선군시대가 키워낸 선군처녀에 대한 자랑을...

## 가사

# 인생과 조국

정릉순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머니 어머니가 제일 좋았네  
어머니 없으면 제집도 빈집  
어머니 있으면 찬밥도 달아

살아갈 인생을 바라다보면  
날 받든 그 사랑은 들꽃의 바다

어머니 없으면 봄날도 겨울  
어머니 있으면 고난도 행복

하늘의 별처럼 날 품에 안아  
빛내준 그 어머니님 고마운 조국  
그 어머니 위하여 목숨다함은  
인생에 제일가는 행복이여라

# 남녘에 보내는 사계절편지

리명옥

봄,

×

내 사는 모란봉기슭에 봄이 왔습니다  
흰구름인양 살구꽃 눈부시게 피어난 그 아래  
꽃동네, 새동네... 고운 노래 부르며  
나의 귀여운 딸애가 애기꽃목걸이를 엮습니다  
벗이여, 그대 사는 한나산에도 봄꽃이  
덜었겠지요  
그속에 뛰어놀 그대 자식도 그려집니다  
뒤동산에 동백꽃 피는 남녘의 고향이야기  
이 봄에도 아프게 듣는 어머니 이야기  
그 무슨 태고적 옛말인양 신기하게 듣던  
여섯살잡이 딸애가 문득 말합니다  
-엄마, 나 통일, 할머니께 드릴래  
순간, 이 봄이 빛을 잃는것만 같습니다  
그대 자식도 통일이 뭐냐고 물을 때 있겠지요  
아빠, 엄만 이 세상 모든것을 다할수 있다고  
믿는

그 천진하고 깨끗한 동심...

벗이여, 아이들이 바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는게 이 나라 부모일진대  
파연 우리 민족 하나되는 통일의 봄이  
별나라보다 더 먼 곳에 있단 말입니까...

×

오늘은 칠월칠석 까막까지 놓아준 오작교 건너  
견우직녀 기쁨속에 만나는 날  
우린 서로 북과 남에서 바라보겠지요  
이밤새면 또다시 헤어질 슬픈 작별  
우린 서로 가슴아파 잠못들겠지요  
그래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번은 만나는데  
벗이여, 우린 왜 그리움만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요  
견우직녀 바라보며 이밤처럼 서로 그리는 사이  
세월은 백발을  
우리 머리우에도 얹어줍니다  
우리 겨레 오고 가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통일오작교는  
우리가 놓아야지 누가 놓아주겠습니까  
목숨 바쳐서라도 통일다리 놓읍시다

단풍드는 이 좋은 가을날  
햇떡빚어 오랜만에 고향나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 생일잔 기쁘게 받아주세요  
만시름 다 잊고 오늘만은 환하게 웃어주세요-  
벗이여, 아십니까, 이 즐거운 순간에조차  
감추지 못하시는 마음속 깊은 그늘  
고향을 찾아온 이 딸을 부러워하시며  
남쪽하늘 바라보시는 백발의 나의 어머니  
벗이여, 그대도 효도하는 자식이겠지요  
허나 나는 날 낳아 키워준 어머니앞에  
구실 못다한 불효자식입니다  
꿈에도 파도소리 들린다는 어머니 그 고향에  
햇떡빚어 가는 그날에야  
나는 진정 어머니의 효녀가 될겁니다

×

산에 들에  
하얗게 내리는 저 흰눈을 보십시오  
우리 겨레의 모습인듯 합니다  
피를 나눈 친형제가 있어서만도 아닌  
같은 민족이 갈라진 그 하나의 아픔때문에  
애타게 서로 찾고 부르는 그 정은  
티없이 순결한 저 흰눈과도 같습니다  
그 흰눈은 북과 남이 없이 내렸습니다  
하늘을 둘로 가를수 없듯  
피를 어떻게 둘로 가를수 있겠습니까  
벗이여,  
이제 더는 둘일수 없는 우린 하나의 민족  
어이하야 미제가 갈라놓은 분렬때문에  
우리 겨레 둘로 갈라져 살아야 하며  
갈라져 우리 겨레 둘이 되면  
땅도 둘로 되는 무서운 비극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벗이여, 이제는 민족분렬을 끝장냅시다  
6.15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 민족끼리 지혜를 합치며  
분렬의 근원 미제를 송두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불행을 영영 끝장냅시다

# 백년숙적

리영복

세월은 흘러 이제는 백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열번이나 되는 긴긴 세월이 흘렀다  
조선이라는 《비계덩이》를 놓고  
가쓰라와 타프트가 공공이를 해  
여우같은 일제가  
이 땅을 강점했던 때로부터 한세기가 흘렀구나

그 긴긴 나날에  
우리 민족이 억울히 감수했던 만단사를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으랴  
왕궁을 포위하고 총칼로 강박해  
치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해 빼앗은  
국권강탈행위...

20세기 초엽부터 이 땅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를 어찌 여기에 다 꼽으랴만  
한 나라 한 민족을 아예 없애려  
《황국신민화》를 떠들다 못해  
말과 글 사람들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았으니  
물어보자 이 지구상에  
간악한 사무라이족속들을 내놓고  
어디에 또 이런 악한들이 있는가를!

청장년 840여만명을 강제잡치해  
100여만명을 무참히 살륙하고  
20만명의 녀성들을 성노예로 짓밟은 야수!  
이 불구대천의 원수들은  
천문학적액수의 자원략탈만행을 비롯해  
문화재 도적사실을 아직도 부정외면하고있으니  
낮가죽은 또 얼마나 두터운가!

헌데 요사인 또 야심이 꿈틀거려  
최많은 과거를 감감히 잊은채  
침략질로 쟁긴 《도적자본》을 가지고  
《평화공헌》이요 《분담금》이 어찌요 하며  
《정치대국》이 되겠다고  
돈으로 유엔상임이사국자릴 흥정하는 꼴을 좀  
보라  
정말 일본의 《정치난쟁이》들은  
렴치도 없지만 개비위에 어벌도 크지

원래 놈들의 조상은 못된짓을 업삼다  
모두매에 죽다살아 섬으로 쫓겨난 족속무리라  
돈과 재물이란 오금을 못써  
사람들이 자는 야밤삼경에 두더지처럼  
남의 나라 조상의 묘까지 도굴해  
금불이와 문화재를 훔쳐간  
잔인하고 악착한 오랑캐족속들이거니

얼마나 지독한 《돈벌레》였으면  
집집의 낫바리와 손가락 저가락까지 빼앗다못해  
제가 죽인 피흐르는 시체에서  
비너와 가락지  
치아의 금불이까지 잔인하게 뜯어갔으니  
아마 저승에 간 히틀러가 이걸 안다면  
깜짝 놀라리라  
섬오랑캐들아 머리를 숙이라  
짐승도 낮을 붉힐 이 특대형의 범죄앞에  
얼굴을 붉히라 공손히 무릎꿇고...

하지만 저 섬나라-사무라이후손들은  
오늘도 리성을 잃고 남의 땅 독도를 넘보며  
개꿈을 꾸다 채침의 부리를 갈며  
허나 똑똑히 알라 지금은 한세기전  
가쓰라와 타프트가 《황금덩이》를 놓고  
노나먹기 《협정》을 맺던 때도 아니고  
2차대전에서 다 죽어자빠져  
양키젓을 빨며 되살아나던 때도 아니거니

백년숙적!-  
일본의 가련한 《정치기생》들에게 묻노니  
세기를 이어 공모결탁하며  
《양교》에 붙어 살아가는 그 더러운 버릇을  
파연 언제가면 버리려나?  
패망의 쓴맛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긴교》의 창녀가 돼 한몫 보려단  
일본은 뼈도 못추리고 영영 수장돼, 알겠나?  
《갈보》노릇을 작작하고 주대있게 살라  
그게 일본이 떳떳이 살수 있는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 작가소개

# 에스빠나문예부흥기의 대표적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한편의 작품으로 이 세상사람들을 제일 웃기고 그 웃음속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게 한 작가를 꼽는다면 아마도 에스빠냐작가 세르반테스를 들어야 할것이다. 에스빠냐문예부흥기의 대표적작가인 세르반테스는 장편소설 《돈 끼호테》와 더불어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아있다.

그는 마드리드근교의 대학거리 알카라 데 헤나레스에서 몰락한 소귀족출신의 가난한 의사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따라 여러곳을 다니면서 정규학교교육은 받지 못했으며 한 인문주의학자의 서재를 리용하여 문학공부를 하였다. 21살때 에스빠냐주재 로마법왕의 특사에게 복무하다가 그를 따라 이탈리아로 갔고 23살때 군대에 입대하여 여러차례의 해전에 참가하였으며 왼팔을 못쓰는 불구자로 되었다. 귀국도중에 해적들에게 잡히어 알제에서 5년간의 쓰라린 노예살이를 하고 몸값을 물고서야 놓여나올수 있었다. 34살때에야 고국에 돌아온 그는 합대의 식량공급원, 세금장수원 등 여러 직업에 종사했지만 생활은 늘 곤란하였다.

1585년에 첫 소설 《갈라데야》를 내놓고 계속하여 수십여편의 희곡도 썼는데 지금 전하는것은 《알제이야기》와 《누만씨야》두편뿐이다.

1584년에 18살 아래인 까딸리나와 결혼하였다.

그는 생활에서 불우하기 그지없었다. 성실하게 근무하였지만 복잡한 사건에 걸려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기도 하고 공금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되

자 옥에도 갇히웠다. 1602년 두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세빌라의 감옥에서 유명한 소설 《돈 끼호테》의 구상이 떠올랐다.

장편소설 《돈 끼호테》의 1부는 1605년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그의 한생의 사상적탐구와 생활체험의 총화였다. 레반트해전에 상징된 영웅적인 전반생과 안달루시아의 들판을 방황하던 굴욕적인 후반생이 돈 끼호테의 형상에 그 형상적기초를 주었다.

소설의 인기는 놀라왔다.

그는 계속하여 왕성한 창작에 달라붙었는데 1613년에는 12편의 중편, 단편소설을 묶은 《교훈소설집》을, 1614년에는 장편시 《빠르나쓰산에로의 여행》, 1615년에는 《돈 끼호테》2부와 《신작희곡 8편과 막간재담 8편》을 발표하였다. 1616년 사망할 때에도 그의 병상에는 《페르세레스와 씨기드문드의 고난》과 같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여러편 타고되어있었다. 이처럼 그는 60대에야 자기 창작의 최성기를 장식한 불굴의 노력이었다.

《기름이 물위에 뜨듯 진리는 항상 허위위에 솟는다.》 그의 이 말은 허위와 폭압으로 가득찬 현실속에서 인문주의적리상을 안고 생활의 진리를 꾸준히 탐구하여온 창작적신념을 표현하고있다.

《용감한 심장에 부딪치게 되면 온갖 불행이 다 깨어져나간다.》 이 말은 불운했던 인생행로를 억센 의지로 헤쳐나간 그의 삶의 좌우명이였다.